

제20호
2023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IPA 기법을 활용한 수원시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김숙희·김형준

무엇이 시민을 수원에 머무르게 하는가?
: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의 결정요인 분석 | 박윤환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 지역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 조한라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권리보장에 관한 질적 연구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 전경숙

수원시 도시하천의 생태문화적 해석 및 관리방향 | 이도이

제20호
2023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목차

제20호

2023년

IPA 기법을 활용한 수원시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김숙화·김형준 ...	1
무엇이 시민을 수원에 머무르게 하는가? :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의 결정요인 분석 박윤환	27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 지역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조한라	63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권리보장에 관한 질적 연구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전경숙	93
수원시 도시하천의 생태문화적 해석 및 관리방향 이도이	143

IPA 기법을 활용한 수원시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김숙희**/김형준***

1. 서론
2. 관련 문헌고찰
3. 수원특례시 전기버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현황
4. 전기버스 설문조사 분석
5. 전기버스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6. 결론 및 향후과제

1. 서론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인 사회 문제의 하나로 대두됨에 따라 세계 각 국의 정부에서는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환경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정책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1년 5월 29일 대통령 직속기구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하였다.

* 본 연구는 SRI-정책-2022-08 「수원시 전기버스 도입효과 분석」 연구와 제88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발표회 내용을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선임연구위원(Senior Research Fellow, Suwon Research Institute)

*** 아우토크립트 주식회사, 모빌리티사업본부, MaaS 그룹, 대리(Assistant Manager, Autocrypt Co., Ltd., 교신저자(hjkim@autocrypt.io, 02-2125-4000))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과학기술, 국제협력 등 8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친환경 모빌리티는 에너지혁신 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친화적이고 연료 효율 등의 장점으로 인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는 친환경 전기버스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6년 제주도에 전기버스가 도입된 후 서울, 부산, 대전 등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일반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CNG 버스에 비해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저감 등의 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최병주 등(2020)¹은 1(kWh)의 전력 생산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CNG 버스에서 발생하는 값을 비교한 결과 차량 1대당 년 9.91tCO₂eq의 CO₂와 640kg의 CH₄가 저감 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수원특례시에서도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정책의 하나로 전기버스를 확대 도입 중이다. 2019년 관내 62대의 전기버스 도입을 시작으로, 2022년 7월 기준 관내 269대의 전기버스가 운행 중이다. 전기버스의 도입 효과로는 대기질 개선 및 소음 저감, CNG, 경유 대비 저렴한 연료비용으로 운영비 절감, 저상형 차량 도입으로 이용 편의성 개선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기버스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기버스 차량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항목들을 도출하고,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이용 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요도-만족도(IPA) 기법을 활용하여 개선해야 할 요인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을 도출하여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최병주·나혜중·최욱돈·김종해, 2020, 「서울의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했을 때 환경 개선 효과 분석」, 『전기전자재료학회 논문지(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Vol.24, No.3, 821~827쪽 September 2020, 논문번호 20-03-19(<http://dx.doi.org/10.7471/ikeee.2020.24.3.821145>).

2. 관련 문헌고찰

1) 전기버스의 정의²

전기버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전기자동차의 정의를 만족하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명시된 전기자동차의 정의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승합자동차의 정의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다.

또한, 전기버스는 차량, 운영전략, 충전 인프라, 버스 정류장 등 전기버스 차량 그 자체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운행 여건에 따라서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다.³

〈표 1〉 전기상용차 핵심기술

구분		내용
구동 시스템	모터	전기를 이용하여 구동력을 발생하는 장치
	인버터	배터리와 직류(DC)전원을 교류(AC)전원으로 변환하여 모터의 속도, 토크를 제어하는 장치
	변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자동차의 주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회전력을 제어하여 바퀴에 전달하는 장치
에너지 저장시스템	배터리	전기에너지를 저장 및 공급하는 장치로서 셀→모듈→팩으로 구성되며 내연기관자동차의 연료탱크에 해당되는 장치
공조시스템		차내의 온도, 습도, 청정도, 흐름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장치
충전 시스템	배터리 교체형 시스템	기존 방식의 '급속', '완속' 충전 대신에 미리 완충된 배터리 팩을 교환함으로써 충전시간을 내연 차량의 주유 시간만큼 단축시킬 수 있는 장치
	충전장치	외부의 전기에너지를 자동차 내부 배터리로 공급하기 위한 장치로, 공급 장치로는 '급속', '완속', '가정용' 충전기로 구성

2 나영식 외 2인, 2021, 「전기상용차」.

3 한중학·강동윤, 2018, 「인천광역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그림 1〉 전기버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2) 선행연구

장정아 & 최용길⁴은 경기도 지역경제포털에서 제공하는 전기버스 충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지역 전기버스의 충전량, 가동률, 충전요금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데이터의 활용 전략을 제시하였다.

오승민 외⁵는 최적의 BEB(Battery-Electric Bus) 시스템 계획을 위해 충전기 및 버스 군 공유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고, 에이전시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화 프레임워크와 대기행렬 도표를 이용한 솔루션 방법을 제안하였다.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BEB 다중경로 시스템에서 충전기 공유와 버스 군 풀링이 충전기와 버스 대수를 감소시켜 효율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함을 알게 되었다. 향후 배터리 교체, 무선충전기 등 다양한 충전 방식을 도입한 다중경로 시스템을 계획하거나 SC-MR 문제를 실제 도시 규모의 BEB 네트워크로 확장하는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

4 장정아·최용길, 2021, 「경기도 전기버스 충전이력 정보의 활용 전략」, 『교통 기술과 정책』 제18권 제6호, 2021년 12월.

5 오승민 · Iliia Papakonstantinou · 손상훈 · 이진우, 2021, 「다중경로 전기버스 시스템을 위한 충전 인프라, 버스 군 규모 및 관리, 배터리 용량 최적화」, The 85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2021.11.10.-11.).

다.

최경수 외⁶는 유선(소켓) 및 무선 충전방식의 전기버스에 대해 최적 충전위치로 유도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하였다. 카메라 기반의 정적 POI 인식과 GNSS/DR 및 차량정보의 복합 측위 방식을 활용하였다. 시설물이나 추가 센서 장치 없이 정밀한 위치를 측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렌즈 오염, 도심 지역의 Multi-Path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측위 정확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향후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충전위치로 유도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병주 외⁷는 서울의 전기버스 주행시험에서 연료소모율을 측정하여 전기버스의 주행거리와 연료소모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노선의 주행패턴을 적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제 측정 값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시내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할 경우 CNG 버스 대비 예상되는 이산화탄소 저감 등 환경 개선 효과와 더불어 전기버스 대체가 확대될 경우 부가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시험 결과를 근거로 1(kWh)의 전력생산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과 CNG 버스에서 발생하는 값을 비교한 결과 차량 1대당 연 9.91tCO²eq의 CO²와 640kg의 CH⁴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전기버스 143대로 계산할 경우 CNG 버스에 비해 CO² 배출량은 연간 약 1,417.13tCO²eq(운행 전 8,073tCO² eq)가 저감되고, CNG 버스에서 배출되는 CH⁴는 연 159tCO²eq가 각각 저감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점산 외⁸는 전기버스 관련 법·제도 및 동향 검토, 국내외 사례 검토, 버스운송사업자의 도입 여건 조사, 관련 기술 수준 및 사업모델 조사 등을 통하여 경기도 전기버스 도입 계획 및 도입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곽호원 외⁹는 전기버스의 주행거리 변화 최소화를 위한 공조시스템 개발을 위

6 최경수·사익환·김재은·김성진, 2021, 「친환경 전기버스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정밀 유도 기술 연구」, 『제어로봇시스템학회(ICROS) 논문지』.

7 최병주·나혜중·최옥돈·김종해, 2020, 「서울의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했을 때 환경 개선 효과 분석」, 『전기전자재료학회 논문지(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Vol.24, No.3,821~827, September 2020, 논문번호 20-03-19(<http://dx.doi.org/10.7471/ikeee.2020.24.3.821145>).

8 김점산 외, 2018, 「수도권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9 곽호원·김현우·박차식·이호성, 2018, 「전기버스용 냉난방시스템 성능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2018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하여 히트펌프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버스용 냉난방 시스템 성능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압축기 모델링은 Map-base 방식으로 수행하였고, 냉방운전과 난방운전 조건에서 각각 사이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냉방운전 조건인 실내온도 25℃와 실외온도 35℃ 조건에서 냉방용량 21.97kW와 COP 2.644로 나타났고, 난방운전 조건인 실내온도 20℃와 실외온도 5℃ 조건에서는 난방용량 10.63kW와 COP 3.266로 나타났다. 해석적 연구를 통한 본 연구의 결과값은 Bench marking을 통한 실험값과의 오차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향후 전기버스용 냉난방시스템의 핵심부품들의 설계 시에 다양한 운전조건에서의 시스템 성능 분석을 진행하여 핵심부품 및 시스템 설계에 활용할 예정이다.

박단비 & 김성열¹⁰은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전기버스가 투입되는 노선의 배터리 소비에너지, 충전시간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전기버스 추가 투입 대수를 산출하여 NPV 분석을 통해 전기버스 운행환경 특성에 부합하는 충전방식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518번 노선의 경우 전기버스 도입 4년 후부터 배터리 교환방식이 가장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배차간격이 길고, 교차되는 노선이 많지 않은 급행7번 노선의 운행환경에서는 플러그인 충전방식이 전기버스 도입 4년 후부터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재식 & 김성열¹¹은 논문에서는 실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을 채택하여 전기버스 3가지 충전방식(Plug-In 충전방식, Battery 교환방식, Wireless 충전방식)을 CNG 버스와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노선에서의 배차간격과 전기버스 충전으로 인한 시간 지연에 따른 추가 차량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였다.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이윤을 알아보고자 초기비용과 연간 편익을 고려하여 NPV(Net Present Value, 순 현재가치)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발생하는 편익을 NPV로 나타내고 CNG 버스와 전기버스 도입의 연관관계를 산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 전기버스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10 박단비·김성열, 2017, 「전기버스 운행환경에 따른 충전방식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자기술부 문화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 박재식·김성열, 2017,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자기술부 문화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배터리 충전방식에 대한 경제성 연구와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다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운행하는 당사자인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버스 이용 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거의 부재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전기버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항목을 도출한 후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중요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요도-만족도(IPA) 기법을 적용하여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기술적, 제도적, 환경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3. 수원특례시 전기버스 도입 및 인프라 구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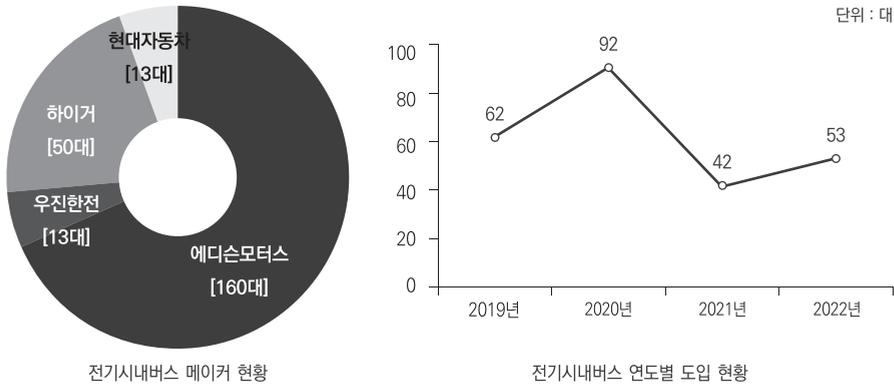
1) 수원특례시 전기버스 도입 현황¹²

2022년 7월 기준, 수원특례시에는 총 269대의 전기버스 차량이 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직행좌석버스 7대, 일반시내버스 242대, 마을버스 20대가 운행 중이다.

2019년 62대 도입을 시작으로 2020년 92대, 2021년 42대, 2022년 53대가 도입되는 등 전기버스 도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7월 기준 수원여객에서 242대, 경진여객에서 7대의 전기버스를 운행 중이며, 수원여객에서는 전 차량 일반시내버스로 운행 중이고, 경진여객에서는 2022년 5월에 현대 일렉시티 2층버스모델 7대를 도입하여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투입하여 운행 중이다.

또한, 2022년 7월 기준 수원특례시에는 총 20대의 전기버스 차량이 마을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2021년 15대, 2022년 5대가 도입되었고, 광고운수에서 10대, 율전마을버스에서 10대의 전기버스를 운행 중이다.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전기버스 모델은 에디슨모터스 차량이 가장 많고, 하이거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수원특례시 내부자료(2022년 6월 기준).



〈그림 2〉 수원특례시 전기시내버스 도입 현황(2022년 6월 기준)

2) 수원특례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도입 현황¹³

전기버스 도입세에 발맞추어 수원특례시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전국 최초로 대규모 태양광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관내 북부공영차고지, 동부공영차고지, 호매실차고지, 서부공영차고지 등에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북부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충전기가 47기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동부공영차고지 25기, 호매실차고지 14기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충전면수는 북부공영 94면, 동부공영 50면, 호매실차고지 28면, 경기대 차고지 22면, 동탄1차고지 20면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수원특례시 차고지별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구분	북부공영	경기대	동부공영	호매실	동탄1	서부공영
전기버스(대)	81	32	52	21	26	7
수전용량(kW)	4,000	990	2,000	990	1,000	990
전력변환부(200kW)	19	5	10	5	5	4
충전기(기)	47	11	25	14	10	4
300kW×2CH(일체형)	0	0	0	0	0	0
충전면수	94	22	50	28	20	8

13 경진여객운수 내부자료(2022년 6월 16일 기준).

4. 전기버스 설문조사 분석

1) 버스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개요

전기버스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버스 운영업체의 버스 운수종사자 중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버스 안전자 139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대면조사로 진행하였고, 2022년 8월 8일부터 2주간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항목은 설문응답자 일반특성과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일반특성 항목은 성별, 연령대, 현재 운행차량(차량번호), 운행경력, 연락처 등으로 구성되어 조사하였다.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 조사 항목은 선호 유종 버스, 전기버스 장·단점, 전기버스 적정 충전횟수, 전기버스 안전도, 전기버스 도입 및 취지,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 전반, 전기버스 차량 영향요인 중요도 및 만족도를 구성하여 조사하였다.

〈표 3〉 버스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항목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일반특성	성별 연령대 현재 운행차량 (차량번호) 운행경력 연락처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 조사	선호 유종 버스 전기버스의 장점, 단점 전기버스 적정 충전횟수 전기버스 안전도 전기버스 도입 및 취지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 전반 전기버스 차량 영향요인 중요도 및 만족도

2) 일반특성 분석 결과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성별 특성 분석 결과, 남성의 비율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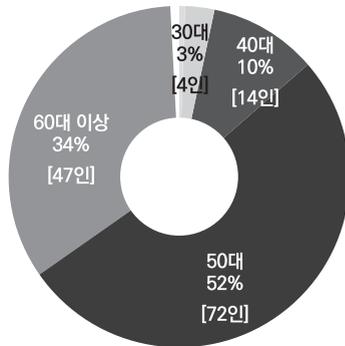
〈표 4〉 응답자 일반특성(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성	134	96
여성	4	3
무응답	1	1
합계	139	100.0



〈표 5〉 응답자 일반특성(연령대)

구분	빈도(명)	비율(%)
10대	0	0
20대	1	0.7
30대	4	3
40대	14	10
50대	72	52
60대 이상	47	34
무응답	1	0.7
합계	139	100.0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연령대는 50대가 5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60대 이상이 34%, 40대 10%로 4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G 버스, 경유버스, 전기버스의 유종별 운전경력에 대한 통계값을 분석한 결과 CNG 버스 운행경력의 평균이 6.7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고, 경유버스와 전기버스가 각각 3.4년, 2.1년으로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경력의 중앙값으로 CNG 버스가 6년, 전기버스 3년, 경유버스 2년으로 그 뒤를 잇고 있었다.

〈표 6〉 응답자 일반특성(유종별 운행경력)

구분	CNG 버스	경유버스	전기버스
평균	6.7년	3.4년	2.1년
표준편차	4.4년	4.5년	1.0년
중앙값	6년	2년	3년
25퍼센타일	3년	0년	1년
75퍼센타일	10년	5년	3년

3) 전기버스 도입 만족도 조사

선호하는 유종의 버스는 전기버스가 122인(8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CNG 버스가 15인(11%)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타 유종 차량 대비 진동과 소음이 적고, 전 차량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운전 편의성이 좋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7〉 설문조사 응답자 선호 유종 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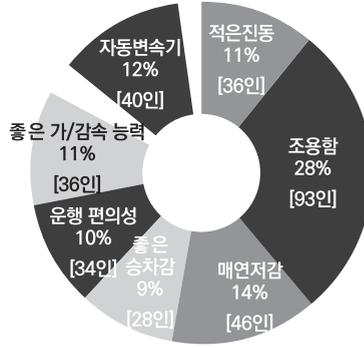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경유버스	1	0.5
CNG 버스	15	11
전기버스	122	88
무응답	1	0.5
합계	139	100.0



전기버스의 장점을 복수 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장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조용함이었고, 매연 저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장점을 통해 전기버스의 주행 쾌적성이 타 유종 대비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표 8〉 설문조사 응답자 인식 - 전기버스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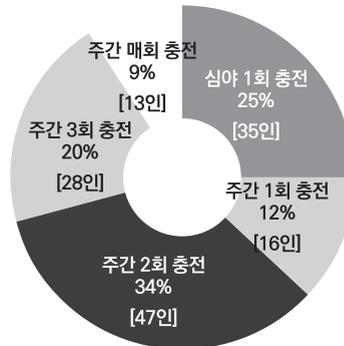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적은 진동	36	11
조용함	93	28
매연 저감	46	14
좋은 승차감	28	9
운행 편의성	34	10
좋은 가/감속 능력	36	11
적은 정비 요소	10	3
자동변속기	40	12
기타	5	2
합계	328	100.0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전기버스의 적정 충전횟수는 주간 2회 충전이 47인(3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심야 1회 충전이 35인(25%)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표 9〉 전기버스 적정 충전횟수

구분	빈도(명)	비율(%)
심야 1회 충전	35	25
주간 1회 충전	16	12
주간 2회 충전	47	34
주간 3회 충전	28	20
주간 매회 충전	13	9
합계	139	9



전기버스의 단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복수응답으로 설문한 결과, 단점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것은 겨울철 난방 부족이었고, 긴 충전시간, 충전에 따른 휴식 부족 등

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단점을 통해 겨울철 전기버스의 난방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긴 충전시간과 그에 따른 버스 운전자들의 휴식 부족 등이 단점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하부 잡음이 많다는 것, 승차감이 좋지 않다는 것, 잦은 고장, 잦은 충전으로 인한 근로 지속, 배터리 용량 부족, 인체공학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아서 승객 불편을 야기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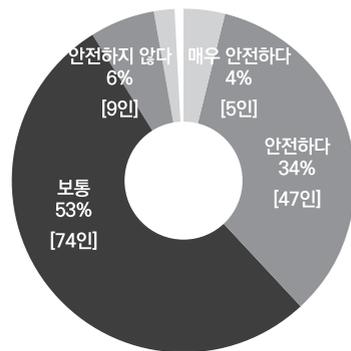
〈표 10〉 설문조사 응답자 인식 - 전기버스 단점

구분	빈도(명)	비율(%)
다양한 메이커의 버스	4	1
차량별로 다른 규격	13	4
겨울철 난방 부족	113	33
긴 충전시간	77	23
짧은 운행가능거리	27	8
유지·관리 기술력 부족	12	4
충전에 따른 휴식 부족	60	18
충전 시 주차 불편	24	7
기타	10	3
합계	340	9



〈표 11〉 전기버스 안전도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안전하다	5	4
안전하다	47	34
보통	74	53
안전하지 않다	9	6
매우 안전하지 않다	3	2
무응답	1	0.7
합계	13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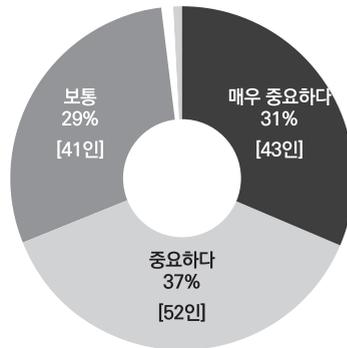


전기버스의 안전도는 보통이 74인(5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하다가 47인(34%)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를 통해 버스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버스 화재에 대한 경험이 없어 이런 응답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의 도입 및 취지는 중요하다가 52인(3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매우 중요하다가 43인(31%)으로 그 뒤를 잇고 있고, 중요하다 이상이 68%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버스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의 도입 및 취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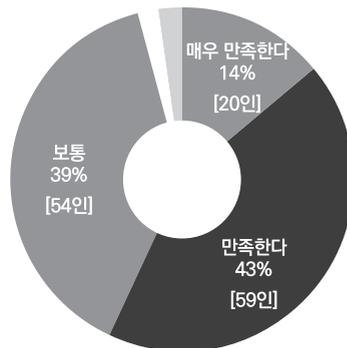
〈표 12〉 전기버스 도입 및 취지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중요하다	43	31
중요하다	52	37
보통	41	29
중요하지 않다	2	1
매우 중요하지 않다	1	0.7
합계	139	0.7



〈표 13〉 전기버스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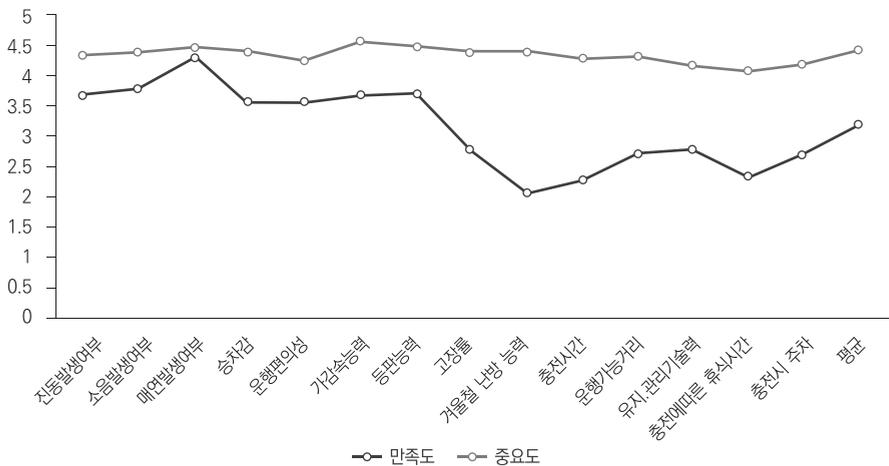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만족한다	20	14
만족한다	59	43
보통	54	39
만족하지 않는다	3	2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3	2
합계	139	0.7



전기버스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만족이 59인(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통이 54인(39%)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2% 높게 나타나, 이를 통해 버스 운전자들은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전기버스 도출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

전기버스 주요 항목에 대한 중요도 평균은 4.39점, 만족도 평균은 3.21점으로 응답하였다. 전기버스 주요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모든 항목의 중요도가 4점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낮은 항목은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이 4.12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높게 응답한 '가감속능력'이 4.6점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 주요 항목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중요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난방 능력'이 2.1점 매우 낮게 나타났고, 매연발생여부가 4.3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장률, 겨울철 난방능력, 충전시간, 운행가능거리, 유지·관리 기술력,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 충전 시 주차 항목은 만족도가 3점 이하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전기버스 도출 항목 중요도-만족도

〈표 14〉 전기버스 도출 항목 중요도-만족도

항목	중요도	만족도
진동발생여부	4.3	3.7
소음발생여부	4.4	3.8
매연발생여부	4.5	4.3
승차감	4.4	3.6
운행편의성	4.3	3.6
가감속능력	4.6	3.7
등판능력	4.5	3.7
고장률	4.4	2.8
겨울철 난방 능력	4.4	2.1
충전시간	4.3	2.3
운행가능거리	4.3	2.7
유지·관리기술력	4.2	2.8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	4.1	2.4
충전 시 주차	4.2	2.7
평균	4.39	3.21

5. 전기버스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결과

1) IPA 정의와 개념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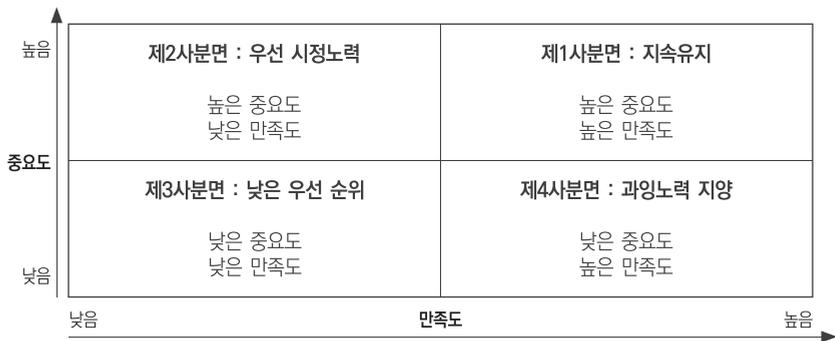
IPA(Importance Performance Analysis : 중요도성과분석)는 Martilla와 James의 1977년 연구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처음 제안 및 도입된 마케팅 분석 기법으로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 속성들에 대해 만족도 및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를 알아내는 분석 방법론이다.

IPA 분석은 평가 대상의 중요도 및 성과(만족도) 값을 활용하여 X, Y축으로 각 역량별 좌표 값을 설정하여 4사분면에 이를 나타내도록 하여 각 속성의 중요도 및 성

14 최영출 외 1인, 2014.

과(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인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분석 결과물로서 ‘중요도’(Y축)와 서비스에 포함된 다양한 요소의 ‘성능’(X축)의 IPA 매트릭스가 출력된다. 각 사분면은 서비스의 고객·사용자가 지정한 요소에 의해 할당된 중요도와 성능을 결합하고 관리 측면에서 다른 가치를 지닌다. 제1사분면은 이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과 동시에 만족도 또한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사분면은 이용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3사분면은 중요도 및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별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다른 사항들에 비해 가장 우선순위가 낮음을 의미한다. 제4사분면은 만족도가 높지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IPA 분석개요



〈그림 4〉 IPA 중요도-만족도 매트릭스

본 연구에서 버스 운전자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 데이터 항목은 진동발생 여부, 소음 발생 여부, 매연 발생 여부, 승차감, 운행 편의성, 가·감속 능력, 등판능력, 고장률, 겨울철 난방 능력, 충전시간, 운행가능거리, 유지·관리 기술력,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 충전 시 주차여건을 포함하여 총 14개의 항목이다. 수집한 전기버스 차량 영

항 요인의 중요도와 만족도 조사결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수행하여 전기버스에 대한 지속 유지, 우선 시정 노력, 낮은 우선순위, 과잉 노력 지양 항목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하였다.

3) IPA 분석 결과

IPA 결과분석 1~4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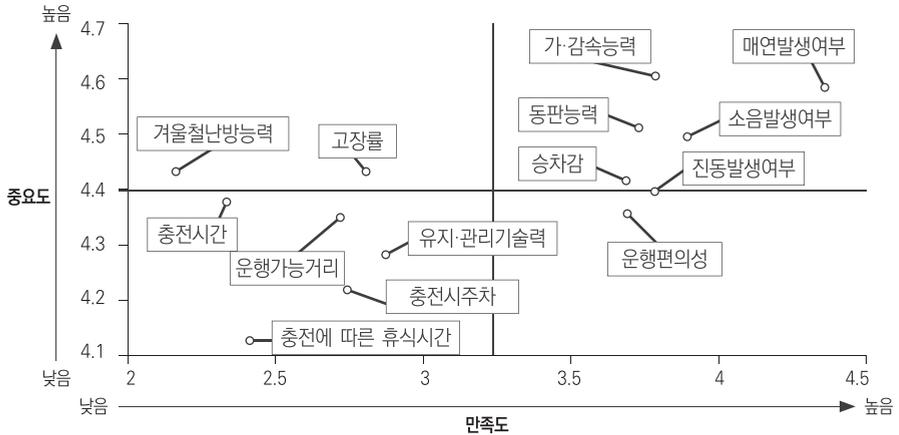
1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지속 유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진동 발생 여부, 소음 발생 여부, 매연 발생 여부, 승차감, 가·감속 능력, 등판능력인 6개 항목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의 주요 강점으로 인식되는 적은 진동, 조용함, 친환경성, 가감속 능력, 등판능력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통해 버스 운전자들이 해당 항목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차감의 경우에는 전기버스가 타 유종의 차량보다 상대적으로 신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강점으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2사분면인 중요도 높고, 만족도가 낮은 우선 시정 노력에 해당하는 항목은 겨울철 난방 능력, 고장률인 2개의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울철 난방 능력과 고장률이 우선 시정 노력 항목으로 나타나 겨울철 난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배터리 용량과 배터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장률을 낮추기 위해 기술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의 기술은 점점 더 향상되고 있으나,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전기버스의 경우 고장률도 높고, 배터리 용량 부족으로 버스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저우선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충전시간, 운행가능거리, 유지관리기술, 충전 시 주차,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인 5개 항목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자들의 설문 결과, 전반적으로 중요도 평균은 매우 높은 반면, 만족도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이런 결과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충전시간,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은 3사분면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버스 운전자들의 전기버스 만족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부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 충전시간에 따른 휴식시간 감소를 불편사항으로 제기한 바,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이 저우선순위 항목에 포함되었을지라도 해당 항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4사분면인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은 항목은 운행의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운영 편의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5〉 IPA 분석 결과

6. 결론 및 향후과제

1) 결론

버스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버스의 장점으로는 조용함, 매연 저감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점으로는 겨울철 난방부족, 긴 충전시간, 충전에 따른 휴식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버스 운전자들은 전기버스 도입 및 취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IPA 분석 결과, 1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지속 유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진동 발생 여부, 소음 발생 여부, 매연 발생 여부, 승차감, 가감속 능력, 동판능력으로 분석되었다. 2사분면인 중요도 높고, 만족도가 낮은 우선시점에 해당하는 항목은 겨울철 난방능력, 고장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사분면에 해당하는 항목은 전기버스 배터리

기술 등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었다. 전기버스의 기술은 점점 더 향상되고 있으나, 기존에 도입되어 운영 중인 전기버스의 경우 고장률도 높고, 배터리 용량 부족으로 버스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수준보다 성능이 향상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전기버스의 안전도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하는바, 전기버스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력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3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저우선순위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은 충전시간, 운행가능거리, 유지관리기술, 충전 시 주차,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에 해당되는 항목 중 충전시간과 운행가능거리는 배터리 등의 기술력과 연계가 되고 있고, 전국 지자체 및 수원시의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 차량구조(안전장치, 내장, 외장, 편의증진 등), 차량성능(배터리 용량, 배터리 무게, 충전속도, 전비, 등판능력, 배터리 보증기간, 모터, 구동장치 등), 차량관리(차량모니터링 시스템, 정비편의성), A/S 등에 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 표준모델이 개발이 된다면 표준에 맞는 사양을 가진 전기버스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사분면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충전 시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시 충전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하기 편하도록 설계 및 배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4사분면인 중요도는 낮고, 만족도는 높은 항목은 운행의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IPA 결과를 통해 전기버스의 전반적인 기술력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주요 강점으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버스 확대 도입 시 강점을 강화해야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2) 정책제언 및 향후과제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이 필요하다. 기운영중인 시내버스를 모두 전기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충전기 설치 시 행정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필요하다. 충전기 설치를 위한 허가 등의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버스 폐배터리 처리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하다. 배

터리 교체 이후 폐배터리 처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적인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다. 전기버스 도입 시 친환경 차량 구입을 위한 지원은 환경부에서 하고 있고,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지원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국토부 예산 미확보로 전기버스 도입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전기버스 도입을 위한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기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전기버스가 실제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환경적 편익과 전기버스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홍보를 통해 기존 버스와 전기버스의 차별성을 중점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국내에서 전기버스 화재가 발생하지 않아 그 위험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외 사례를 확인했을 때 배터리 화재로 인한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하지는 않은 바, 이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버스 운전자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전기버스의 중요도-만족도를 분석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보다 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향후 연구로는 전기버스 적정 충전횟수는 주간 2회 충전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운전자의 개인 선호 차이 등이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노선별, 업체별 적정 충전횟수에 대해서는 실운영 자료기반으로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기버스 만족도 조사는 직접적으로 운행하는 버스 운전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수혜자인 정류장 이용객, 버스 차고지 주변 인근 보행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여 전기버스의 도입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송원가 중 연료비를 산정 관련하여 연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전기버스 충전방식과 충전소 구조, 전기 효율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연료비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 2023년 4월 30일 심사일 2023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30일

참고문헌

- 곽호원 · 김현우 · 박차식 · 이호성, 2018, 「전기버스용 냉난방시스템 성능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대한설비공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김숙희, 2018, 「수원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반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집산 외, 2018, 「수도권 전기버스 도입 확대 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 나영식 외 2인, 2021, 『전기상용차』.
- 박단비 · 김성열, 2017, 「전기버스 운행환경에 따른 충전방식 산정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박재식 · 김성열, 2017, 「친환경 버스 도입에 따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전기학회 전력기술부문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18, 「전기 · 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
- 장정아 · 최용길, 2021, 「경기도 전기버스 충전이력 정보의 활용 전략」, 『교통 기술과 정책』 제18권 제6호, 2021년 12월.
- 오승민 · Iliia Papakonstantinou · 손상훈 · 이진우, 2021, 「다중경로 전기버스 시스템을 위한 충전 인프라, 버스 군 규모 및 관리, 배터리 용량 최적화」, The 85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2021.11.10.-11.).
- 최병주 · 나혜중 · 최옥돈 · 김종해, 2020, 「서울의 CNG 버스를 전기버스로 대체했을 때 환경 개선 효과 분석」, 『전기전자재료학회 논문지(J. Korean Inst. Electr. Electron. Mater. Eng.)』 Vol.24, No.3,821~827, September 2020, 논문번호 20-03-19(<http://dx.doi.org/10.7471/ikeee.2020.24.3.821145>).
- 최경수 · 사의환 · 김재은 · 김성진, 2021, 「친환경 전기버스 배터리 충전을 위한 정밀 유도 기술 연구」, 『제어로봇시스템학회(ICROS) 논문지』.
- 한중학 · 강동윤, 2018, 「인천광역시 전기버스 운행체계 기초연구」.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기버스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원특례시 버스 운수 종사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기버스 도출 항목에 대한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전기버스 확대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하였다. IPA 결과, 1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높은 지속 유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진동 발생 여부, 소음 발생 여부, 매연 발생 여부, 승차감, 가감속 능력, 등판능력으로 분석되었고, 2사분면인 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우선 시정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겨울철 난방 능력, 고장률로 확인되었다. 3사분면인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 낮은 저우선순위 항목으로는 충전 시간, 운행 가능 거리, 유지 관리 기술, 충전 시 주차,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으로 나타났다. 4사분면인 중요도는 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항목으로는 운행 편의성으로 나타났다. 3사분면에 해당하는 저우선순위 항목인 충전시간, 충전에 따른 휴식시간은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 요인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전기버스의 만족도를 제고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PA 결과를 통해 전기버스의 전반적인 기술력이 개선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고, 주요 강점으로 선정된 항목들에 대해서는 향후 전기버스 확대 도입 시 강점을 강화해야 하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전기버스를 확대 도입하고자 많은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 전기버스, 전기버스 만족도, 전기버스 중요도, 전기버스 중요도-만족도, IPA

ABSTRACT

A policy direction study for the expansion of electric buses in Suwon city using IPA

Kim Sukhee / Kim Hyungjun

To expand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buses, we conducted a study to identify the major factors that affect the introduction of electric buses through existing literature, and conducted a survey targeting bus drivers in Suwon cit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we conducted an IPA analysis of the importance-performance levels of the electric bus introduction items, and deriv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this study, w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for the expansion of electric buses.

According to the IPA analysis results, items related to sustained maintenance, such as vibration occurrence, noise occurrence, exhaust occurrence, riding comfort, acceleration and deceleration ability, and boarding ability, were analyzed as having both high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However, items related to priority adjustment, such as winter heating ability and failure rate, were analyzed as having high importance but low performance levels. Items with both low importance and performance levels included charging time, operating range, maintenance technology, parking during charging, and rest time due to charging. Items with low importance but high performance levels included operating convenience.

In addition, based on the IPA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overall improvement in the technology of electric buses is necessary. For items identified as major strengths, efforts should be made to enhance their strengths when expanding electric buses in the future, and continuous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maining items. In particular, efforts to improve driver performance with electric buses are necessary for items with low performance levels, such as charging time and rest time due to charging. This research resul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formulating policies for many local governments that are seeking to expand the use of electric bus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Key words : seniority preference, senior free ride program, mobility rights, the elderly, generation integration, sustainability

무엇이 시민을 수원에 머무르게 하는가?

: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의 결정요인 분석

박윤환*

- 1. 서론
- 2. 이론적 배경
- 3. 방법론
- 4. 분석결과
- 5. 결어와 함의

1. 서론

수원시는 지난 2022년 1월 13일 특례시 출범과 함께 새로운 도시 성장의 동력을 이끌어 나갈 갈림길에 있다. 과연 특례시 지정은 수원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인가? 그런데 수원시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간 형태의 새로운 지자체 유형인 특례시가 된 이유는 바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라는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시 규모를 보여 주는 인구수는 그 자체로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법인격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수가 특례시 지정에 있어 절대적 요소라는 점과 상관없이 그동안 유력한 도시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시 성장의 동력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양질의 충분한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¹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시를 포함한 대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E-mail : ypark@kyonggi.ac.kr, Tel : 031-249-9323

1 Florida, R., 2018, *The New Urban Crisis*, Basic Books: New York.

도시들조차도 안정적인 정주 인구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예로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위 유지를 위해 인구 100만 명 사수에 나서는 ‘숨은 인구 찾기’ 시민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유출 문제의 대응에 시의 사활을 거는 상황이다.² 심지어 광역지자체인 대구광역시도 경상북도 군위군의 편입을 통하여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인구수 증가의 효과를 기대하며 몸집을 키우고 있다. 지난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49.6%로 절반에 육박하는 113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³ 따라서 도시의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전략의 마련은 향후 모든 도시의 최우선 정책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도시에서 거주하는 주민이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일자리와 삶의 질 측면이 투영된 개인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최근에는 수도권의 도시 간에도 끊임없이 인구의 유출과 유입이 역동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시 간 인구이동의 상당 부분은 신도시 건설과 인접 도시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원시도 2010년 이후 광교나 호매실 지구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입주 시기에 인구 유입이 발생했으나 최근 5년 전부터 화성 봉담지구 개발 등의 여파로 인구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발간한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술한 주택 사유로 인한 인구 유출 추세에 더해져 직업 사유로 인한 수원시로의 유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즉 그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하여 수원시로의 인구 유입이 발생했으나 이러한 직업 사유에 따른 인구 유입에 최근 급격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이다.⁴ 이러한 인구 유입의 정체와 절대 인구 감소에 대한 두려움은 이 문제가 향후 수원시의 도시 성장 전략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⁵

2 창원시는 2023년 3월 말 기준 인구수가 101만 8,699명으로 기록해서 출범 당시 108만 1,499명과 비교해 무려 6만 명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여 주고 있다. (『국제신문』 2023년 4월 24일)

3 한국고용정보원, 2022,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지역산업과 고용』 Vol.3 지방소멸 특집호.

4 허경재·박관아, 2022, 「수원시 인구·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5 실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장 후보였을 때 수원시 인구 감소 현상에 대하여 “수원시 인구가 125만까지 갔다가 118만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위기 속에 대기업과 첨단기업 유치를 통해 밖으로 나갔던 인구가 다시 돌아와야 인구 유출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부일보』 2022년 5월 20일)

수원의 도시개발은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수원시의 물리적 개발 여력은 과거 영통의 신도시 조성을 통해 많은 인구 유입을 이끌었으나 광교 신도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해 종지부를 찍어가고 있다고 평가된다. 이제 권역별 소규모의 도시개발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큰 규모의 인구 유입을 이끄는 신도시 개발의 동력은 크게 저하되었다. 사실 도시의 면적이 제한된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인구 120만을 넘어가며 인구 증가의 정체 및 인구 유출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수원시가 이제 인구수용에 있어서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도시개발을 통하여 인구 규모를 확장하는 접근에서 탈피하여 시민들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제고시켜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시 인구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절대적인 인구의 이동 수준이 높은 것은 도시의 역동성과 성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지만 최근 수원시에 인접한 도시들의 인구 성장세가 가파른 추세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용인시와 화성시는 수원시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개발의 여지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수원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도시개발에 따른 물리적 팽창이 거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이다. 따라서 언젠가 수원시의 지역 경제가 쇠락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면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상 초유의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는 국가 단위는 물론 도시 단위의 인구 감소를 촉진하였고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인구 유입을 이끄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⁶ 하지만 새로운 인구 유입은 생각보다 매우 도전적 과제이며 도시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성취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이다. 따라서 좀 더 보수적으로 도시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인구의 유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계속 머물러 살고자 하는 정주의향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이 현재 사는 도시에 정주하겠다는 의향이 약하면 실제 다른 도시로의 이주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적자원이 유출되는 결과는

6 최성락, 2012, 「한국 기초 지자체 인구 이동에서의 티부 가설 검증」, 『한국공공관리학회』 26(4), 한국공공관리학회.

낳는다.⁷ 아울러 도시 공동체에 일원임으로 자각하는 소속감의 배양은 이러한 시민의 정주 의지와 결합해 공고한 시민적 연대의 틀을 다져나가는 자양분이 된다. 또한 시민의 정주의향을 제고하고 소속감을 증대시켜야만 도시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을 울산광역시보다도 인구가 많고 기초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실질적인 특례시 대표주자인 수원시를 분석함으로써 특례시 주민들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최근 창원시의 인구 유출 사례는 물론 수원시도 역시 후술하다시피 예상치 못한 인구 유출을 수년간 경험했다는 점에서 특례시에서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시민을 계층 정체성에 따라 상위 계층을 포함한 중산층 집단과 하위 계층으로 자각하는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들을 비교하려는 전략을 사용하였다.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분석하면 포착할 수 없는 계층 정체성에 따른 결정요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일부 선행 연구들이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소속감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소속감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따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시민들이 갖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정주의향과 연계되어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을 이끄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⁸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서로 비교 및 분석하여 두 가지 도시 성장의 열쇠를 동시에 견인하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2), 57~86쪽.

8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쪽.

2. 이론적 배경

1) 정주의향과 소속감

사람은 누구나 지역의 생활환경을 기반으로 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키려 노력한다.⁹ 우리의 삶이 지역에 동화되어 안정된 거주 상태를 영위하는 것을 정주라고 정의할 때,¹⁰ 이러한 정주를 지향하려는 의지, 의도, 혹은 인식을 간단히 정주의향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관련 연구들은 이를 정주의향, 정주의지, 정주의식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합의된 개념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¹¹ 물론 각 용어대로 의미상 미세한 차이는 존재할 수 있으나 지역이라는 공간적 기반에 근거하여 정주를 원하는 의식과 실천적 의지를 공통으로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¹²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용어 중 현재 머무르는 지역에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거주하려는 생각이라는 포괄적 뉘앙스를 가장 잘 살린 정주의향의 용어를 대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정주의향은 좀 더 세련되게 정의한다면 특정 도시에 거주하며 만들어진 정주를 위한 신념이나 태도가 실제 정주를 결심하는 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런데 정주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이끄는 바탕은 시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친밀감과 스스로 구성원으로 느끼는 소속감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따라서 지역에 대한 소속감

9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쪽.

10 김종재·신남수, 1991, 「도시민의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Community 의식과 정주의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261~269쪽.

11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2), 57~86쪽.

12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쪽;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쪽.

13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2), 57~86쪽.

14 박해경,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226쪽.

은 정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 소속감이 거주의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는 일부 여론조사의 결과도 흥미롭다.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거주 의향과 지역 소속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거주자의 경우 소속감이 있는 사람 중 51%가 정주의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소속감이 없는 사람 중 39%만이 정주의향을 갖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¹⁵ 이는 상당수 도시가 직면한 인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지역 소속감과 정주의향을 동시에 제고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이나 가구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원인이 있다. 먼저 긍정적 측면에서는 기존 거주 지역에 대한 불만 요소들을 제거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과 거주 환경으로 이동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는 기존 거주 지역에 살고 싶지만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부득이하게 원치 않은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한다. 모두 개인의 차원에서는 나름의 합리적 의사결정이지만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하다. 특히 인구 유출이 심하면 도시의 성장 동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근린 지역을 비롯한 소지역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빈번한 주거 이동이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¹⁶

지역을 떠나려는 의지를 갖는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참여 수준이 떨어지고 소속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애착심을 갖기 어려워진다. 반대로 비교적 강한 거주 의향을 갖고 더 오래 지역에 거주할수록 공동체에 대한 애착은 더 강해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도 커진다.¹⁷ 높은 정주의지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주거 이동이 안정적이면 주민의 건강한 생활수준이 유지되고 다양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정주의향의 제고를 통해 달성되는 주거 안정성의 순기능은 비공식적 사회

15 이 수치는 비수도권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지역 소속감이 있는 사람의 44%, 소속감이 없는 사람의 22%가 정주의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4월 22~25일 조사(<https://hrcopinon.co.kr/archives/22840>)).

16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6), 35-43쪽.

17 Gilleard, C., Hyde, M., and P. Higgs., 2007, "The Impact of Age Place, aging in place, and attachment to place on the well-being of the over 50s in England", *Research on Aging*, 29(6), pp.590-605.

통제를 활성화하는 근린 단위 거주민의 사회적 결속과 상호지지를 강화하는 소위 집합적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¹⁸ 따라서 거주민들이 현재 사는 지역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정주의향이 높다는 것은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정체성을 갖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⁹ 지역 주민의 정주 의지가 향상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은 물론 지역적 측면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정주의지가 높아지면 주거 안정성의 개선과 삶의 질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고,²⁰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안정적 성장과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고전적 공공선택이론 접근을 도시정부 간 경쟁 및 주민들의 선호에 기초한 도시의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 제공 수준에 적용한 티부모형(Tiebout Model)은 정주의향의 결정요인을 파악하는 단서를 제공한다.²¹ 도시 간 자유로운 이동 및 경쟁하는 복수 도시의 존재가 전제될 때 주민은 소위 'voting with their feet'라는 이동을 통한 투표로 선호를 표출하며 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 머무르게 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적 가설은 실제 우리나라 수도권 기초자치체들의 인구이동에 보육, 복지, 교육 서비스 등 지역 공공서비스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²² 따라서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소로 지역의 생활SOC 요소들은 여러 연구에서 중

18 Sampson, R. J.,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pp.918~924.

19 최지연·홍은영, 2016,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7(1), 89~122쪽.

20 이경환, 2008,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3(5), 23~33쪽; 박관태·이경영, 2023, 「전라북도 젊은 층 인구의 정주의향 영향요인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21쪽.

21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2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송용찬·김민곤,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151~179쪽.

요한 결정요인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도시 공공서비스에는 물리적 시설물은 물론 복지, 의료, 교육 등 무형의 서비스도 포함된다.

한편 정주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에 대한 결정요인들은 주로 소득이나 지가와 같은 경제적 요인의 차이에 주목하였다.²³ 하지만 최근의 정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요소들을 살펴보는 연구들은 다분히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사회경제적 환경 여건인 사회 안전, 사회적 자본, 지역 소속감 등에 초점을 맞춘다.²⁴ 따라서 정주의향과 소속감의 결정요인은 주거생활과 주거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적 요소는 물론 공동체 네트워크와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는 요소들을 모두 포괄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표 1>은 주 영향 요인을 범주화하고 각 내용을 다룬 국내 선행 연구를 연계해 정리하였다. 이때 영향 요인이 정주의향을 높이면 플러스(+로) 반대로 낮추면 마이너스(-)로 표시하였고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로 표시를 하였다.

우선 생활만족 요인과 관련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가장 많은 연구들을 통해 지지되었다.²⁵ 특히 교통편의 인프라,²⁶ 주택, 문화, 여가 인프라,²⁷ 공원녹지 및 거리 청결²⁸은 모두 정주의향에 긍정

23 홍성호·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쪽.

24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쪽; 이경영·정문기·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쪽.

25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6), 35~43쪽; 임미화, 2015,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의식에 관하여: 생활환경만족도와 도시위험도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62, 106~120쪽.

26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쪽; 김수영·오찬옥·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쪽.

27 김수영·오찬옥·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쪽; 박해궁,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226쪽.

28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쪽.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요인에 대한 부분은 일부 연구에서는 사회 안전도의 향상이 정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²⁹ 안전 요인의 유의성을 확인하지 못한 사례들도 발견되었다.³⁰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나 애착이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제고된다는 연구,³¹ 네트워크와 신뢰 수준이 올라갈 때 정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³² 참여의 축진이 정주의향을 끌어올린다는 연구³³들도 각각 확인되었다. 아울러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주민 지향적인 자치행정 실시도 정주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⁴ 인구특성 요인과 관련해서는 일부 연구가 나이가 많을수록 정주의향이 높아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³⁵ 1인 가구는 일반적인 다인 가구와 정주의향이 차이가 있으며 그 결정요인의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도 일부 연구에서 도출되었다.³⁶ 그러나 1인 가구이면 이주 의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1인

-
- 29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쪽.
- 30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쪽; 최홍규, 2009,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신뢰, 이주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179~200쪽.
- 31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의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쪽; 이항미, 2019,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의향 간의 내생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8), 610~617쪽.
- 32 이경환, 2008,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3(5), 23~33쪽; 이영원, 2013,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636~662쪽; 이경영·정문기·정예은, 2018, 「지속거주의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쪽.
- 33 이영원, 2013,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636~662쪽; 이미애·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쪽.
- 34 최일진·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쪽.
- 35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6), 35~43쪽;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쪽.
- 36 박해금,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226쪽; 김형준, 2021, 「거주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인 가구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도시연구』 11(1), 23~40쪽;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

가구가 정주의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확인된다.³⁷ 그 밖에 고학력층은 상대적으로 정주의향이 떨어지는 반면에 기혼 인구는 기존 거주지에 안정적으로 주거하려는 경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³⁸

〈표 1〉 국내 관련 선행 연구의 정주의향 결정요인 분석 내용 요약

요인	연구자	결정요인
생활 만족 요인	최열(1999)	교육, 문화, 의료 (+)
	이희창 외(2004); 김수영(2017)	교통편의 (+)
	김영주·유병선(2012); 임미화(2015); 이경영 외(2018); 이지은·이경은(2020); 송두범 외(2015)	주거환경 (+)
	김수영(2017); 박해금(2018)	주택, 문화, 여가 (+)
	이미애·이승종(2016)	공원녹지, 거리청결 (+)
안전 요인	송두범 외(2015)	사회안전 (+)
	이희창 외(2004); 최홍규(2009)	사회안전, 지역안전 (×)
사회 자본 요인	이항미(2019); 오미영(2008)	지역 정체성, 지역 애착 (+)
	이경환(2008); 이영원(2013); 이경영 외(2018)	네트워크, 신뢰 (+)
	이영원(2013); 이미애·이승종(2016)	참여 (+)
	이희창 외(2004); 이미애·이승종(2016)	사회적 자본 (+)
	최일진·남황우(2015)	주민자치 행정 (+)
인구 특성 요인	박해금(2018); 김영주·유병선(2012); 이지은·이경은(2020)	나이 (+)
	박해금(2018); 김형준(2021); 송두범 외(2015)	1인 가구 (+ / -)
	송두범 외(2015)	학력 (-)
	송두범 외(2015)	기혼 (+)

한편 다수 연구에서 지역 소속감이 정주의향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주민들의 정주의향을 고양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³⁹ 따라서 정주의향의

쪽.

37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 분석」, 『도시행정정보』 28(1), 127~146쪽.

38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 분석」, 『도시행정정보』 28(1), 127~146쪽.

39 기영화, 2017,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1(4), 85~110쪽; 이준영·최낙희, 2018,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벨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27~52쪽.

결정요인을 살펴볼 때 예상되는 영향 요소들이 소속감 증대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정책적 시사점을 확인하는 데 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수원시 인구이동 현황 및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 추이

수원시 인구이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시의 최근 5년간 인구이동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⁴⁰ <표 2>에서와 같이 2022년에 전입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반등이 있었으나 2018년부터 내리 4년간 수원시는 인구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아 인구 순유출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이은 인구 순유출의 패턴으로 인하여 수원시 인구수도 2018년 124만 2천 명을 넘겼지만 2022년 122만 5천 명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유입 인구수와 비교해 더 많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는 결정을 한다는 것은 곧 수원시 주민들의 정주의향의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 2> 최근 5년간 수원시 순이동인구 추이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이동인구	-5,758	-11,068	-11,314	-2,097	7,706
인구수	1,242,212	1,235,022	1,221,913	1,216,965	1,225,058

비고 : 순이동인구(단위 : 명)=전입인구-전출인구, 따라서 순이동인구가 +이면 인구의 순유입을 의미하고 -이면 인구의 순유출을 의미

수원시의 4개 행정구를 기준으로 권역별 인구이동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여기에서도 앞에서 같이 음수값은 인구의 순유출 보여주는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연도별 순유출 인구수와 누적 인구수는 권역별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장안구는 3년간 매년 3천 명이 넘는 순유출을 경험했고 누적 순유출 인구수도 가장 많았다. 권선구는 2018년 인구 유입이 더 많았으나 2019년과 2020년

40 <표 2>와 <표 3>의 통계 수치는 수원특례시의 '통계로 보는 수원'과 통계청 KOSIS의 인구 순이동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하여 작성하였다.

순유출의 규모가 커지면서 3년 누적 1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다. 팔달구도 3년에 걸쳐 지속해서 순유출이 발생했으며 3년간 약 5천 명 이상의 인구 유출이 나타났다. 유일하게 영통구만 2020년 순유출이 발생했으나 3년 누적으로 281명의 아주 소폭의 인구 유입이 발생하였다. 결국 전체적으로 3년간 2만 8천 명이 넘는 인구가 수원을 빠져나갔다고 특히 장안구와 권선구 등 구도심의 지역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는 향후 수원시의 권역별 인구이동의 경향과 패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2018~2020년 수원시 권역별 인구 순유출 현황

권역 \ 연도	2018	2019	2020	3년 누적
장안구	-3,668	-4,715	-3,288	-11,671
권선구	805	-6,952	-5,175	-11,322
팔달구	-3,388	-1,957	-83	-5,428
영통구	493	2,556	-2,768	281
합계	-5,758	-11,068	-11,314	-28,140

〈표 4〉 2015~2021년 수원시민 정주의향 추이

구분 \ 연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어느 정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5	9.2	14.9	22.3	32.5	21
2017	7.4	12.5	16	30.8	33.2
2019	3.8	7.2	15.3	38.1	35.6
2021	2.2	8.7	22.3	44.1	22.7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이 어느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객관적인 실태 분석은 본 연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수원시 사회조사」의 결과일 것이다.

지난 2012년 첫 조사가 시행된 이후 두 가지 내용은 모두 2015년 조사부터 조사항목에 포함되어 격년 단위로 실태가 파악되었다.⁴¹ 먼저 수원시에 향후 10년 후에도 계속 정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표 4>와 같이 ‘매우 그렇다’ 혹은 ‘어느 정도 그렇다’라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15년에 긍정적 응답이 53.5%였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66.8%로 상승하여 수원시민의 정주의향이 6년 사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를 합친 부정적 응답 비율은 2015년 24.1%에서 2021년 10.9%로 큰 폭의 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수원시민의 거주지 소속감에 대한 「수원시 사회조사」의 결과는 아래 <표 5>와 같이 ‘조금 있다’와 ‘아주 많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60~70%대를 매년 유지하며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1년 마지막 조사의 경우 2017년과 2019년에 다소 떨어졌던 긍정 응답 비율이 2015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무려 75.5%에 이르러 24.5%의 부정적 응답을 압도하였다.

<표 5> 2015~2021년 수원시민 정주의향 추이

구분 연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조금 있다	아주 많다
2015	2.3	21.8	57.5	18.3
2017	4.0	31.2	52.8	12.0
2019	3.4	27.3	56.0	13.3
2021	2.9	21.6	56.2	19.3

41 「수원시 사회조사」는 격년으로 조사항목의 내용을 달리하여 구분해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묻는 조사 문항은 홀수년도 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4>와 <표 5>의 결과는 2015~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공해 작성하였다.

3. 방법론

1) 자료

본 연구는 수원시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지 중심의 평소 생활과 만족도 및 주관적 인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수원시 사회조사의 2021년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수원시 사회조사는 지난 2012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실시되지 않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되었다. 조사의 설문 작성은 수원시 스마트도시과가 맡았으며 조사 대상은 조사 시점 기준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다.

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 설계의 대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² 먼저 조사모집단은 조사기준시점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이며 표본추출틀은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수원시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를 포함한 총 7,365개의 조사구를 활용하였다. 수원시 사회조사는 신뢰성 높은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모집단을 층화하였다. 우선 행정구별(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로 독립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수원시를 4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조사모집단 분포에서 확인한 변수들에 대하여 가장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변수를 분류지표로 선정하였는데 자가 비율과 대졸 비율의 제33, 66백분위수로 구분점을 결정하였다. 결국 1차는 가구별 주택 유형에 따라 1차 층화를 실시하였고, 2차는 자가 비율, 3차는 대졸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을 층화추출하였다. 모집단의 층화를 바탕으로 1,590가구의 표본을 최종 106개의 조사구(조사구당 15가구)로 분배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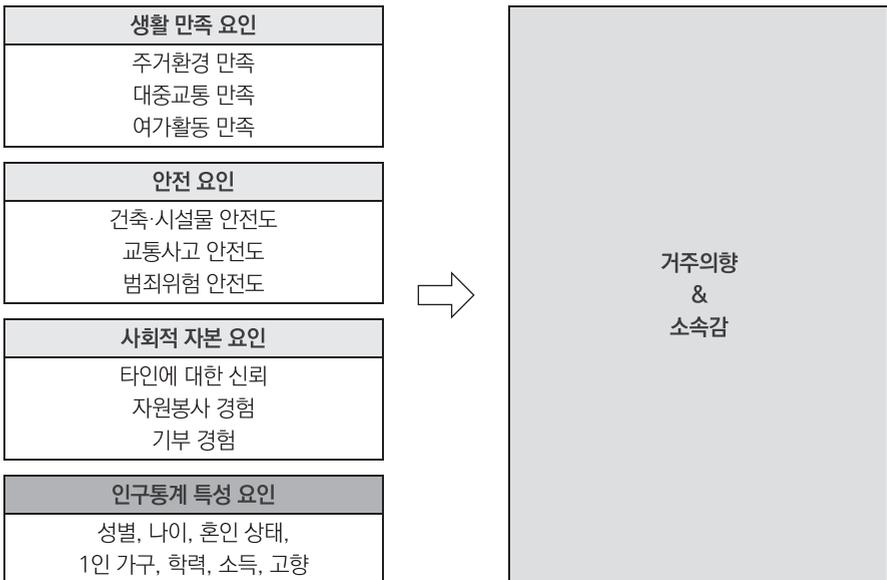
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는 크게 경기도 공통항목으로 9개 부문 42개 항목과 수원시 특성항목 1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통항목의 9개 부문은 ① 가구 관련 사항, ② 개인 관련 사항, ③ 복지, ④ 주거와 교통, ⑤ 문화와 여가, ⑥ 교육, ⑦ 소득과 소비, ⑧ 사회통합과 공동체, ⑨ 일자리와 노동이며 총 42개의 항목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수원시 특성 항목은 여성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이용, 도서관(도시공원,

42 2021 수원시 사회조사의 조사설계, 조사수행 절차, 표본추출 등은 「2021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의료기관, 보건소) 이용과 만족도, 가장 필요한 복지욕구 유형, 복지서비스 지원기관 인식도, 분야별 안전 정도 등이 조사되었다.⁴³ 할당된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에 의한 면접조사 방식과 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총 15일이 소요되었다.

2) 변수와 분석 모형의 설정

앞에서 주민의 정주의향과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토대로 본 연구의 정주의향 및 소속감 결정요인 분석 모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총 4가지의 주요 영향 요인들을 도출하였고 그 아래 3개에서 7개의 하위 요소들이 연계되는 구조이다. 우선 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직접적인 시민의 일상생활 만족 측면이 거주 의향과 소속감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⁴⁴



<그림 1> 거주 의향 및 소속감 결정모형

43 그 밖에 스마트 기기 사용, 희망하는 임대주택 유형, 학교생활 만족도 등도 포함되어 있다.

44 최열, 1999, 「도시내 주거이동 결정요인과 희망 주거지역 분석」, 『국토계획』 34(5), 19~30쪽.

이에 본 연구모형에서는 생활 만족의 요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모형에 변수로 포함하였다. 첫째, 주거환경의 만족 수준은 시민들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자신이 지내는 집과 근린 지역의 환경이야말로 삶의 질에 가장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만약 주거환경의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소속감과 정주의향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실제 여러 관련 연구에서는 주거환경에 대한 높은 만족감이 정주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⁴⁵ 주거환경의 만족 요인은 주택 자체와 주변 인프라, 주거 공간의 주차 만족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변수의 측정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둘째,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도도 생활 만족 요인의 중요한 변수로 보았다. 이를 위하여 대중교통에 대한 만족 요인으로 지하철, 택시, 기차, 버스 등에 대한 서비스 만족 요소들이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문화의 높은 만족 수준이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하여 여가문화 만족 수준이 포함되었고 문화시설에 대한 만족도와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에 미치는 두 번째 영향 요인으로 안전도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였다. 실제 최근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양한 안전사고들은 시민들의 일상 활동을 위축시키고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더라도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은 떨어지게 되며 더 안전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고민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반대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하고 생활 안전의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면 시민들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선행 연구들은 안전 요인을 정주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고려하였다.⁴⁶ 본 연구는 안전 인식 요인으로 3가지 변수를 고려했고 건축 시설물 안전도, 교통사고 안전도, 범죄 안전도가 측정되어 모형에 포함되었다.

아울러 분석 모형에서는 사회적 자본 요인이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물리적인 시설이나 공공서비스 인프라가 시민의 삶에 가시적 영

45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이지은·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 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쪽.

46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쪽.

향을 미친다면 사회적 자본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시민의 행복에 있어 절대적인 요소이다. 공동체성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인 사회 자본의 수립 수준은 거주하는 지역의 관심과 참여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축적된 사회적 자본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면서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⁴⁷ 이를 위해 본 연구모형은 사회적 자본 요인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자원봉사 경험, 기부 경험 세 가지 변수를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차원의 인구통계 특성 요인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수원시는 수도권에 있는 첨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지역색을 갖고 있으며 그 근원은 바로 인구통계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랫동안 거주한 지역 토박이 주민부터 신도시 조성에 따라 새롭게 이주한 시민들까지 나이, 학력, 경제적 수준이 매우 다채롭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할 가능성이 큰 고령층이나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룬 기혼 상태에서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⁴⁸ 반대로 1인 가구 구성원이라면 지역에 대한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주의향과 소속감이 저하될 여지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⁴⁹ 또한 거주 지역이 본인이 태어난 고향의 여부도 정주의향과 소속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클 것이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성별, 나이, 혼인 상태, 1인 가구 여부, 학력, 소득, 고향 여부 변수들이 측정되어 모형에 투입되었다. <표 6>은 위 분석 모형에 입각하여 연구가설을 정리한 것이다.

-
- 47 이희창·박희봉·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쪽.
- 48 김영주·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중심지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6), 35~43쪽; 박해금,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226쪽.
- 49 송두범·임준홍·홍성호,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 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쪽.

〈표 6〉 연구가설 정리

가설1	수원시민의 생활 만족 요인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주거환경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1-2	대중교통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1-3	여가문화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2	수원시민의 안전 인식 요인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건축·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2-2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2-3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3	수원시민의 사회 자본 요인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3-2	자원봉사 경험이 있으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높을 것이다.
3-3	기부 경험이 있으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높을 것이다.
가설4	개인과 인구통계 특성 요인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1	성별에 따라 정주의향과 소속감의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4-2	나이가 많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이다.
4-3	현재 기혼이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높을 것이다.
4-4	1인 가구 구성원이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낮을 것이다.
4-5	대학 이상 여부에 따라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4-6	소득이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달라질 것이다.
4-7	수원이 고향이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더 높을 것이다.

[가설1]은 시민의 생활 만족 요인이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한다.⁵⁰ 세부적으로 우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대중교통의 만족도 역시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고, 여가문화의 높은 만족 수준도 높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이끄는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2]는 시민의 안전 인식 요인이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먼

50 관련 세 가지 변수는 거주지 주거환경, 대중교통, 여가문화에 대한 5점 척도 하위 설문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주거환경은 3개 항목들(주택, 인프라, 주차장), 대중교통은 4개 항목들(지하철, 택시, 기차, 버스), 여가문화는 2개 항목들(문화시설, 여가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측정값 평균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묶임 문항들이 동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측정한 결과, 주거환경은 0.79, 대중교통은 0.76, 여가문화는 0.80으로 각각 나타나 내적 일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저 건축·시설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진다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이어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식할수록 역시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높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결과하는 것으로 보았다. [가설3]은 시민의 사회자본 요인이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울러 자원봉사와 기부 경험이 있으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이 더 높을 것으로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4]는 인구통계 특성 요소들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요소들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성별, 학력, 소득은 구체적으로 정(+)적인 혹은 부(-)적인 영향을 미칠지가 불명확하지만,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와 달리 연령은 나이가 많을수록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진다고 보았고, 배우자와 함께 살고 수원이 고향이면 역시 정주의향과 소속감이 더 높다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한편 정반대로 1인 가구 구성원이면 정주의향과 소속감이 낮아지는지를 가설 검증하고자 하였다.

4. 분석결과

1) 기술통계 요약

〈표 7〉은 중산층 2,057명, 취약계층 1,040명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를 보여 준다.⁵¹ 우선 종속변수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중산층은 각각 3.83과 2.98, 취약계층은

51 본 연구에서는 조사항목에 포함된 계층 정체성 문항을 활용하여 중산층과 취약계층 두 집단을 구분하였다. 사회적 계층 의식을 묻는 문항은 1(상상), 2(상하), 3(중상), 4(중하), 5(하상), 6(하하)의 총 6가지 범주로 구분된 변수이다. 상이나 중으로 시작하는 1~4까지 범주에 속하는 관측치들은 중산층으로 하로 시작하는 5와 6 범주에 속하는 관측치들은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따라서 중산층 집단에는 계층 정체성을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관측치들도 포함되었다. 그런데 실제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케이스는 86개에 불과하여(상상은 8개 상하는 78개임) 해당 집단이 갖는 중산층 정체성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7〉 기술통계 요약

요인	변수	중산층				취약계층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중속 변수	정주의향	3.83	0.97	1	5	3.90	0.93	1	5
	소속감	2.98	0.72	1	4	2.91	0.72	1	4
생활 만족 요인	주거환경 만족	3.44	0.84	1	5	2.97	0.85	1	5
	대중교통 만족	3.29	0.61	1	5	3.20	0.49	1	5
	여가문화 만족	2.94	0.76	1	5	2.63	0.77	1	5
안전 요인	건축·시설물 안전	3.15	0.84	1	5	3.00	0.79	1	5
	교통사고 안전	2.74	0.84	1	5	2.72	0.81	1	5
	범죄 안전	2.62	1.00	1	5	2.41	0.89	1	5
사회 자본 요인	대인 신뢰	3.31	0.84	1	5	2.98	0.88	1	5
	봉사 경험	0.06	0.25	0	1	0.04	0.19	0	1
	기부 경험	0.24	0.43	0	1	0.09	0.29	0	1
인구 통계 학적 요인	남성(더미)	0.50	0.50	0	1	0.46	0.50	0	1
	나이	46.32	17.08	15	85	52.48	18.81	15	85
	기혼(더미)	0.64	0.48	0	1	0.43	0.50	0	1
	1인 가구(더미)	0.14	0.35	0	1	0.27	0.45	0	1
	대학(더미) ⁵²	0.58	0.49	0	1	0.30	0.46	0	1
	소득 ⁵³	6.07	2.27	1	10	4.18	2.01	1	10
	고향(더미)	0.21	0.40	0	1	0.22	0.41	0	1
관측치수		2,057				1,040			

각각 3.90과 2.91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⁵⁴ 인상적인 부분은 소속감을 중산층이 더 높은 데 비하여 정주의향은 취약계층이 더 높았다는 점이다. 이는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은 거주 환경을 찾아서 이동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부

52 대학 변수는 대졸 변수가 아니라 대학 교육을 경험한 여부에 대한 더미변수이다. 본 조사가 만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대졸로 구분을 하면 현재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한 상당수 청년층 응답자의 학력 이 모두 고졸로 처리되는 부분을 고려하였다.

53 소득 변수는 순서적(ordinal)으로 측정된 변수로 월평균 가구소득 기준으로 1(50만 원 미만), 2(50만~100만 원 미만) 등으로 쪽 오름차순으로 올라가 최댓값 10(800만 원 이상)까지 소득 구간별로 측정되었다.

54 두 중속변수는 모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으나 거주의향은 5점, 소속감은 4점 스케일의 구조이다. 거주 의향은 “향후 수원시에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3(보통이다)을 거쳐서 5까지(매우 그렇다) 측정되었다. 이에 비해 소속감은 “현재 거주지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전혀 없다)에서 보통이라는 선택지 없이 4(매우 있다)까지 측정되었다.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 만족 요인의 세 가지 변수 중 중산층은 주거환경 만족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이어서 대중교통 만족과 여가문화 만족 순이었다. 이에 비해 취약계층은 대중교통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주거환경 만족, 여가문화 만족인 점이 차이가 있었다. 두 집단 모두 여가문화 만족도가 확연하게 낮은 점도 확인되었다. 안전 요인은 두 집단 모두 건축 시설물 안전, 교통사고 안전, 범죄 안전 순으로 안전도를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축 시설물 안전과 범죄 안전의 경우 중산층보다 취약계층이 낮은 수준의 안전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자본 요인은 두 집단 모두 봉사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중산층 집단과 비교해 취약계층에서 특히 대인 신뢰나 기부 경험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적 특성의 경우 중산층은 남녀 성비가 거의 같았으며 취약계층은 남성 비율이 46%로 다소 낮았으나 평균 나이는 취약계층이 더 많았다. 중산층은 기혼 비율, 대학 이상 비율, 소득 수준이 더 높았고 취약계층은 1인 가구 비율이 확연하게 중산층 집단보다 높았다. 고향 비율은 양 집단 모두 20%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비슷하였다.

2) 회귀분석 결과

(1) 정주의향 결정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정주의향이 생활만족 요인, 안전인식 요인, 사회자본 요인,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특성까지 포함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모형을 설정하였다.⁵⁵ 이어지는 <표 8>은 중산층 집단과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정주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 준다.⁵⁶ 우선 중산층 모형의 경우 생활

55 본 연구의 회귀분석모형과 같이 종속변수가 5점과 4점의 순서적으로 측정된 경우 OLS추정 방식과 순서 Logit/Probit 방식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이와 관련 신현중·이석환(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OLS와 순서Logit을 비교하여 OLS 추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는데 표본크기가 클수록 두 모형의 p값의 절대치는 작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무려 3,000개 이상의 관측치를 갖는 자료를 사용하는 본 연구에서는 OLS 추정에서 오는 약점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56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에 대한 분산팽창지수(VIF)를 측정한 결과 가장 큰 값이 1.8에 불과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만족 세 가지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모든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서 주거환경, 대중교통, 여가문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안전 인식 요인의 변수들의 모든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해서 시민들의 정주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자본 요인의 경우 봉사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대인 신뢰와 기부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영향력의 방향이 서로 달랐다. 대인 신뢰는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높았으나 기부 경험은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기부 경험이 있으면

〈표 8〉 중산층 및 취약계층의 정주의향 결정요인 모형

요인	변수	중산층		취약계층	
		b계수	β 계수	b계수	β 계수
생활 만족 요인	주거환경 만족	0.130**	0.114	0.079**	0.072
	대중교통 만족	0.173**	0.109	0.046	0.024
	여가문화 만족	0.086**	0.068	-0.024	-0.020
안전 인식 요인	건축·시설물 안전	0.013	0.011	-0.011	-0.009
	교통사고 안전	-0.028	-0.024	0.012	0.015
	범죄 안전	0.029	0.029	-0.010	-0.009
사회 자본 요인	대인 신뢰	0.070**	0.061	0.098**	0.092
	봉사 경험	0.097	0.025	-0.141	-0.028
	기부 경험	-0.140*	-0.061	0.082	0.025
인구 통계학적 요인	남성(더미)	-0.059	-0.030	-0.010	-0.005
	나이	0.016**	0.274	0.013**	0.253
	기혼(더미)	0.063	0.031	-0.016	-0.008
	1인 가구(더미)	-0.037	-0.013	-0.071	-0.034
	대학(더미)	-0.071	-0.036	-0.248**	-0.122
	소득	-0.022*	-0.050	-0.052**	-0.112
	교향(더미)	0.218**	0.091	0.253**	0.111
adj R ²		0.1386		0.1538	
F		21.68		12.80	
N		2,057		1,040	

정주의향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특성 요인에서는 나이와 고향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원이 고향이면 정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비하여 소득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높을수록 중산층의 정주의향은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취약계층 모형의 경우 생활 만족 세 가지 변수 중 주거환경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아울러 방향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줘서 주거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취약계층의 정주의향은 상승하였다. 안전 인식 요인의 경우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자본 요인의 경우 봉사 경험과 기부 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고 대인 신뢰만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특성 요인에서는 중산층 모형 결과와 유사하게 나이와 고향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취약계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원이 고향이면 정주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하여 대학 변수와 소득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 이상 학력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취약계층의 정주의향은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 계수(beta coefficient)를 확인해 본 결과 중산층 모형에서는 나이, 주거환경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고향, 여가문화 만족도, 대인 신뢰, 기부 경험, 소득 순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취약계층 모형에서는 나이, 대학, 소득, 고향, 대인 신뢰, 주거환경 만족 순으로 영향력이 커서 중산층과 취약계층 집단 간 거주 의향에 미치는 변수들의 영향력이 다소 상이하였다. 특히 중산층의 정주의향에는 생활 만족 요인의 영향이 취약계층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하는 차이점이 드러났다.

(2) 소속감 결정요인 분석 결과

수원시민의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표 9>는 중산층 집

단과 취약계층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모형의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우선 중산층 모형의 경우 생활 만족 세 가지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역시 모두 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수원시 중산층 시민들의 주거환경, 대중교통, 여가문화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안전 인식 요인의 변수들의 모든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해서 시민들의 소속감에 안전 인식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사회자본 요인의 경우 대인 신뢰와 봉사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모두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산층의 대인 신뢰가 높고 봉사 경험이 있으면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특성 요인에서는 나이와 고향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중산층 집단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원이 고향일 때 소속감의 수준은 올라갔다. 이에 비하여 1인 가구 변수는 부(-)적으로 유의미해서 중산층 집단이 1인 가구라면 소속감이 하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서 취약계층 모형의 경우 생활 만족 세 가지 변수 중 대중교통 만족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약계층의 대중교통 만족도가 높을수록 소속감은 상승하였다. 안전 인식 요인의 경우 중산층과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어서 안전 인식 요인이 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사회 자본 요인의 경우 대인 신뢰와 기부 경험이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대인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기부 경험이 있으면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인구통계 특성 요인에서는 중산층 모형 결과와 마찬가지로 나이와 고향 변수가 정(+)적으로 유의미해서 취약계층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원이 고향이면 소속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에서 살펴본 정주의향 모형에서 검토했던 것과 같이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표준화계수(beta coefficient)를 소속감 모형에서도 확인해 보았다. 중산층 모형에서는 나이, 고향, 주거환경 만족도, 1인 가구, 대인 신뢰, 여가문화 만족도, 대중교통 만족도, 봉사 경험의 순서로 소속감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취약계층 모형에서는 나이, 고향, 대인 신뢰, 대중교통 만족도, 기부 경험 순서로 소속감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하

였다.

〈표 9〉 중산층 및 주거취약계층의 소속감 결정요인 모형

요인	변수	중산층		취약계층	
		b계수	β 계수	b계수	β 계수
생활 만족 요인	주거환경 만족	0.090**	0.118	-0.007	-0.009
	대중교통 만족	0.130**	0.062	0.134**	0.090
	여가문화 만족	0.060**	0.074	-0.022	-0.024
안전 인식 요인	건축·시설물 안전	0.004	0.003	-0.046	-0.050
	교통사고 안전	0.009	0.008	0.022	0.024
	범죄 안전	-0.023	-0.026	-0.007	-0.010
사회 자본 요인	대인 신뢰	0.066**	0.077	0.102**	0.124
	봉사 경험	0.161**	0.056	0.171	0.045
	기부 경험	0.032	0.026	0.181*	0.073
인구 통계학적 요인	남성(더미)	-0.032	-0.023	0.059	0.041
	나이	0.010**	0.242	0.010**	0.256
	기혼(더미)	-0.016	-0.011	-0.075	-0.051
	1인 가구(더미)	-0.191**	-0.093	-0.114	-0.070
	대학(더미)	0.031	0.021	-0.085	-0.054
	소득	-0.014	-0.044	-0.005	-0.013
	고향(더미)	0.332**	0.187	0.294**	0.168
adj R ²		0.1292		0.0954	
F		20.07		7.848	
N		2,057		1,040	

(3) 연구가설 검증 결과

일련의 수원시민의 정주의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앞 장에서 제시했던 연구가설들의 기각 여부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전체 연구가설 중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모두 가설이 두 집단 모두 채택된 변수는 주거환경 만족, 대인 신뢰, 나이, 소득, 고향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한 집단에서만 부분적으로 연구가설이 채택된 변수는 대중교통 만족, 여가문화 만족, 자원봉사 경험, 대학 이상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정주의향에 미치는 안전 인식 요인의 영향력은 본 연구 결

과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0〉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종속변수 : 정주의향)

연번	독립변수	종속변수: 정주의향			판정
		예상	결과(중산)	결과(취약)	
가설1	생활 만족 요인				
1-1	주거환경 만족	+	+	+	채택
1-2	대중교통 만족	+	+	·	부분채택
1-3	여가문화 만족	+	+	·	부분채택
가설2	안전 인식 요인				
2-1	건축·시설물 안전도	+	·	·	기각
2-2	교통사고 안전도	+	·	·	기각
2-3	범죄 안전도	+	·	·	기각
가설3	사회 자본 요인				
3-1	대인 신뢰	+	+	+	채택
3-2	자원봉사 경험	+	+	·	부분채택
3-3	기부 경험	+	-	·	기각
가설4	인구통계 요인				
4-1	남성	△	·	·	기각
4-2	나이	+	+	+	채택
4-3	기혼	+	·	·	기각
4-4	1인 가구 구성원	-	·	·	기각
4-5	대학 이상	△	·	-	부분채택
4-6	소득	△	-	-	채택
4-7	수원 고향	+	+	+	채택

〈표 11〉은 수원시민의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 분석의 결과를 통해 연구 가설의 기각 여부를 정리한 것이다. 전체 연구가설 중 중산층과 취약계층에 대해 모두 가설이 두 집단 모두 채택된 변수는 대중교통 만족, 대인 신뢰, 나이, 고향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한 집단에서만 부분적으로 연구가설이 채택된 변수는 주거환경 만족, 여가문화 만족, 자원봉사 경험, 기부 경험, 1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환경과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간 신뢰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나이가 젊은 청년층과 수원이 고향이 아닌 타지 출신 시민들이 수원에 대한 애착심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략이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연구가설 검증 결과 요약(종속변수 : 소속감)

연번	독립변수	종속변수: 소속감			판정
		예상	결과(중산)	결과(취약)	
가설1	생활 만족 요인				
1-1	주거환경 만족	+	+	·	부분채택
1-2	대중교통 만족	+	+	+	채택
1-3	여가문화 만족	+	+	·	부분채택
가설2	안전 인식 요인				
2-1	건축·시설물 안전도	+	·	·	기각
2-2	교통사고 안전도	+	·	·	기각
2-3	범죄 안전도	+	·	·	기각
가설3	사회 자본 요인				
3-1	대인 신뢰	+	+	+	채택
3-2	자원봉사 경험	+	+	·	부분채택
3-3	기부 경험	+	·	+	부분채택
가설4	인구통계 요인				
4-1	남성	△	·	·	기각
4-2	나이	+	+	+	채택
4-3	기혼	+	·	·	기각
4-4	1인 가구 구성원	-	-	·	부분채택
4-5	대졸	△	·	·	기각
4-6	소득	△	·	·	기각
4-7	수원 고향	+	+	+	채택

5. 결어와 함의

수원시는 특례시 지정과 함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상황이

다. 이미 문화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을 통해 수도권의 대표적 역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디지털 첨단산업의 중추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민선 시정을 거치면서 주민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의 모범으로 자치분권의 선두주자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우리는 이런 외향적 도시 발전 및 수준 높은 협치의 결실이 시민이 수원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갖고 계속 도시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매우 암울하고 급박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극단적 저출산과 초고령화의 진전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3년 전부터 시작되었다.⁵⁷ 아무리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인구이동의 제로섬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아울러 노후 도심 지역의 쇠퇴는 수도권 도시들에도 예외가 아니라서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고 편리하고 깨끗한 도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를 향한 인구이동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도시 규모와 구조가 불과 몇 년 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시민의 지역 소속감과 지속적인 거주 의지를 증대시키기 위한 도시의 이해관계 주체들의 노력과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도시 성장과 인구 유입의 정체 현상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지역 소속감과 거주 의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계층 정체성을 기준으로 중산층 이상과 하위 계층을 구분하여 영향 요인들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우선 주거환경, 대중교통, 여가문화를 망라한 생활 만족 요인은 중산층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 증대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취약계층 시민에게 역시 주거환경 만족 요인은 정주의향에 대중교통 만족 요인이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으나 중산층 집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생활 만족 요인의 중요성이 떨어졌다. 사회자본 요인의 경우 높은 대인 신뢰나 자원봉사 경험은 중산층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도 대인 신뢰는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주었고 기부 경험은 소속감 향상을 이끄는 것을 확인하였다. 두 집단 모두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수원이 고향일 때 정주의향과 소속감은 높아졌다. 이

57 「망국의 길 들어선 한국… 3년 내내 인구 자연 감소했다」, 『매일경제』 2023년 3월 23일.

에 비해 중산층 시민의 경우 소득이 올라가면 정주의향이 1인 가구이면 소속감이 각각 떨어졌다. 아울러 취약계층 시민의 경우 소득과 학력이 높을수록 정주의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함의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시민이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주거, 교통, 여가, 문화의 인프라 조성과 원활한 서비스 제공은 정주의향과 소속감을 제고시키는 핵심적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SOC 및 이와 연계된 서비스는 다분히 지역 기반의 맥락을 갖고 소지역 간 제법 큰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수원시의 경우 도시 내 소지역 간 대중교통(특히 버스 노선)의 불편함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을 시민이 인식하는 수준도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수원시는 영통과 광교로 이어지는 신도시 권역과 팔달문과 장안문으로 이어지는 구도심 생활권 간 사회경제적 계층 분리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역 간 도시 공공서비스의 접근 및 향유 정도의 차이가 사회경제적 계층 간 차이로 연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실패하면 적정 수준의 생활 만족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소지역의 시민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를 더 나아가 도시를 떠나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미시적 수준에서 생활 SOC 및 도시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 및 분석하고 부족한 요인들을 파악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주의향과 소속감 제고까지 이끄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 지역과 자신을 하나의 몸통으로 인식하고 시민 정체성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민은 현재 사는 동네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계속 정주해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기본적으로 공동체, 지역사회,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싹튼다. 이를 위하여 주민들이 서로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접촉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코로나 시국에서 대부분의 시민 행사는 취소되었고 시민 참여 및 봉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그 공백만큼 지역 공동체의 유대와 연대의 고리는 끊어졌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몰이해는 더욱 만연한 상황이다. 일부에서 수원시의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재정지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과거 대두되기도 하였다.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유형

의 자산만으로는 결코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시민이 자신이 사는 곳이 정말 살 만한 동네라고 인식하는 데 서로 간의 신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무형의 자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와 이벤트를 복원시키고 도시 사회계층 간 조화와 협력을 이끄는 봉사과 기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산층 1인 가구의 소속감 저하도 확인되었다는 점에서도 도시 내 다양한 인구 집단이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수원을 본인이 직접 태어난 출생지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주인임을 자각하고 이 도시를 진정한 ‘고향’이고 ‘홈타운’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 시민이 수원을 고향이라고 인식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소속감이 제고되고 정주의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외부의 시각에서 세련되고 팬시한 도시 슬로건이나 도시 로고의 변경 수준이 아닌 도시브랜드가 거주하는 시민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고취하고 ‘고향’의 이미지를 전달해 주는 접근이 요청된다.⁵⁸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수원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여러 근원적인 한계점을 갖고 있다. 우선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가지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인 구성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속감 결정요인의 경우 모형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와서 모형에서 중요한 독립변수를 놓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는 방법론상 소위 누락변수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회귀모형의 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수원시의 갖는 도시 특성을 반영한 영향 요인을 변수화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가 기존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아쉬운 부분이다. 물론 본 연구는 수원시 사례를 통해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해 객관적이고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하는 데 더 큰 목표가 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58 마침 수원시는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2022년 11월 ‘수원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도시 브랜드 전략과 실행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올해 그 결과에 기초해서 관련 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경기뉴스미디어』 2022년 11월 18일(<http://m.ggmedianews.com/8156>)

갖는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었다면 훨씬 더 유용하고 다채로운 논의를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향후 후속 연구는 본 연구가 갖는 여러 한계를 고려하여 사례 연구로서의 차별성과 이론적 일반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3년 4월 30일 심사일 2023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30일

참고문헌

- 기영화, 2017, 「지방자치단체 문화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행정연구』 31(4), 85~110쪽.
- 김수영 · 오찬옥 · 문경주, 2017, 「거주지역의 물리적 환경특성에 대한 인식이 고령자의 정주 의식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8(3), 35~43쪽.
- 김영주 · 유병선, 2012, 「주거환경만족도와 커뮤니티 의식이 도시 거주자의 이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8(6), 35~43쪽.
- 김종재 · 신남수, 1991, 「도시민의 주거환경 의식에 관한 연구: Community 의식과 정주의식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261~269쪽.
- 김형준, 2021, 「거주지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1인 가구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주택도시연구』 11(1), 23~40쪽.
- 박관태 · 이경영, 2023, 「전라북도 젊은 층 인구의 정주의향 영향요인 분석: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24(4), 1~21쪽.
- 박해궁, 2018,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9(2), 163~226쪽.
- 송두범 · 임준홍 · 홍성효, 2015, 「충남 도민의 이주의향에 있어서 계층 간 차이: 충남 사회조사를 이용한 실증분석」, 『도시행정학보』 28(1), 127~146쪽.
- 송용찬 · 김민근, 2016,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30(3), 151~179쪽.
- 신현중 · 이석환, 2019, 「서열중속변수모형의 통상최소제곱(OLS) 추정은 적절한가?」, 『현대사회와 행정』 29(2), 1~35쪽.
- 오미영, 2008, 「지방자치단체-지역주민 관계가 지역민의 지역사회 유대, 지역사회 만족 그리고 거주이향에 미치는 영향」,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327~350쪽.
- 이경영 · 정문기 · 정예은, 2018, 「지속거주이향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5대 생활권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27(2), 179~210쪽.
- 이경환, 2008, 「지역주민들의 사회적 관계가 주거이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12개 행정동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43(5), 23~33쪽.
- 이미애 · 이승중, 2016,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커뮤니티웰빙과의 관계」, 『한국정책학회보』 25(2), 1~28쪽.

- 이영원, 2013, 「지역정체성과 사회자본 구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중매체와 SNS이용 및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6), 636~662쪽.
- 이준영 · 최낙혁, 2018, 「커뮤니티 소속감에 대한 영향요인으로서 커뮤니티웰빙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2(1), 27~52쪽.
- 이지은 · 이경은, 2020, 「주거환경만족도와 지역주민의 정주의도: 연령집단 간 비교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2), 57~86쪽.
- 이향미, 2019, 「도농복합시 거주민의 거주의향 결정요인과 그 시사점: 지역정체성과 거주 의향 간의 내생성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8), 610~617쪽.
- 이희창 · 박희봉 · 정우일, 2004,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147~167쪽.
- 임미화, 2015, 「서울시 도시지표와 서울시민의 정주의식에 관하여: 생활환경만족도와 도시 위험도를 중심으로」, 『부동산학보』 62, 106~120쪽.
- 최 열, 1999, 「도시내 주거이동 결정요인과 희망 주거지역 분석」, 『국토계획』 34(5), 19~30쪽.
- 최일진 · 남황우, 2015,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전북 고창 군을 중심으로」, 『도시행정학보』 28(3), 1~30쪽.
- 최지연 · 홍은영, 2016,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변수가 정주의식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7(1), 89~122쪽.
- 최홍규, 2009, 「지방정부 운영에 대한 정책적 함의: 공공서비스 만족도와 신뢰, 이주의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23(1), 179~200쪽.
- 한국고용정보원, 2022, 「행정통계로 본 지역고용」, 『지역산업과 고용』 Vol.3 지방소멸 특집호.
- 허경재 · 박관아, 2022, 「수원시 인구 · 가구 이동특성 및 영향요인 분석」, 수원시정연구원.
- 홍성효 · 유수영, 2012, 「세대별 시군구 간 인구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서울도시연구』 13(1), 1~19쪽.
- Florida, R., 2018, *The New Urban Crisis*, Basic Books: New York.
- Gilleard, C., Hyde, M., and P. Higgs., 2007, "The Impact of Age Place, aging in place, and attachment to place on the well-being of the over 50s in England", *Research on Aging*, 29(6), pp.590~605.
- Sampson, R. J.,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pp.918~924.
- Tiebout, C. M., 1956,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4(5), pp.416~424.

요 약

본 연구는 특례시 지정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수원시를 사례로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와 달리 사회계층 간 결정요인의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본 연구는 수원시민을 중산층과 취약계층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결정요인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독립변인을 크게 생활만족 요인, 안전 요인, 사회자본 요인, 인구통계 특성의 4가지 범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주거환경, 대중교통, 여가문화를 망라한 생활 만족 요인은 중산층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 증대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거환경과 대중교통도 취약계층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대인 신뢰와 자원봉사 경험은 중산층 시민의 정주의향과 소속감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취약계층 시민에게도 대인 신뢰와 기부 경험이 영향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일련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주의향, 소속감, 결정요인, 수원시

ABSTRACT

Why do people choose to live in Suwon?

: Determinants of Suwon citizens' willingness to settle down and their sense of belonging

Yoonhwan, Park

This study analyzed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citizens' willingness to settle down and their sense of belonging by using Suwon City, which is facing a turning point of a new leap forward along with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case city. Unlike previous studies, the present research attempted to compare determinants by dividing Suwon citizens into two groups: the middle class and the vulnerable class, focusing on th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between social classes. In addition, this study used the raw data of the 2021 Suwon Social Survey and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by largely dividing independent variables into four categories: life satisfaction factors, safety factors, social capital factor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a series of results, life satisfaction factors, including the residential environment, public transportation, and leisure culture,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in increasing the willingness to settle down and sense of belonging to middle-class citizens. In additi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ublic transportation also affected the willingness to settle down and sense of belonging to vulnerable citizens. Regarding social capital factors, interpersonal trust and volunteer experience positively influenced middle-class citizens' willingness to settle and sense of belonging, and interpersonal trust and donation experience were also identified as influencing factors for vulnerable citizens. Finally, various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through analysis.

Key words : willingness to settle down, sense of belonging, determinants, Suwon city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 영향요인

: 지역사회 환경을 중심으로

조한라*

- 1. 서론
- 2. 문헌검토
- 3. 연구방법
- 4. 실증분석 결과
- 5. 결론 및 함의

1. 서론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1980년 4.8%, 1990년 9.0%, 2020년 15.5%, 2010년 23.9%, 2020년 31.7%로 급증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1인 가구 비중 역시 2015년 26.72%에서 2020년 31.45%로 증가하였다.¹ 이렇게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혼인을 감소, 만혼의 증가, 이혼, 별거, 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² 앞으로 1인 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1980년대에 이미 전 세계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20~30%를 차지하면서, 선진국에서는 1인 가구 정

*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Suwon University), E-mail : jhalla_c@daum.net, Tel : 010-7512-4152

1 KOSIS, 2022(<https://kosis.kr>).

2 홍승아·성민정·최진희·김진욱·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³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정책에 대한 논의가 미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추진한 1인 가구 정책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복지 정책이 주가 되었다.⁴ 따라서 독거노인을 제외한 1인 가구에 대한 중앙 및 지역차원의 정책은 1인 가구가 겪고 있는 문제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 내에서도 성별, 세대별 특성⁵ 및 생활방식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⁶ 그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가 상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공통적인 욕구와 차별적 욕구를 반영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⁷

한편, 개인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인생 최대의 목표이며 살아가는 의미가 된다.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생활영역의 복잡성과 중층성을 반영하면서도 총체적인 삶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생활만족도(Life-Satisfaction)를 복지(Well-Being) 개념을 측정하는 기초지표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⁸ 지역 차원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통해 느끼는 삶의 만족(삶의 질)은 그 지역에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인하고,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⁹ 즉,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은 지역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 향상을 공공정책(서비스)의 최종적인 성과목표로 인식하기도 한다.¹⁰

-
- 3 한성민·이숙중, 2018, 「청년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1), 60~85쪽.
 - 4 장임숙, 2022,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373~397쪽.
 - 5 장임숙, 2022,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373~397쪽.
 - 6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eseoph Rowntree Foundation.
 - 7 조용준·조한라, 2022, 「수원특례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 『이슈매거진』, 수원시정연구원.
 - 8 서지원·이수진, 2021,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87~99쪽.
 - 9 Glaser, M. A., & Bardo, J. W., 1991, "The Impact of Quality of Life on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Key Personnel",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1), pp.57~72.
 - 10 Glaser, M. A., Aristigueta, M. P., & Payton, S., 2000, "Harnessing the Resources of Community: The Ultimate Performance Agend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3(4), pp.428~448.

이에 1인 가구의 삶의 만족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지역 차원 등 다양한 관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성별, 건강상태, 경제활동 유무 등 개인적 차원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¹¹ 사회적 차원을 살펴본 연구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 소속감, 사회자본,¹² 사회적 관계망¹³ 등 정서적이면서 질적인 측면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지만 1인 가구의 주택 및 주거문제,¹⁴ 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한 경제적 문제,¹⁵ 문화·여가활동의 낮은 참여율¹⁶과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거지를 선택한다는¹⁷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환경요소와 삶의 만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에는 2021년 기준 약 10만 명 이상의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¹⁸ 하지만 수원시 1인 가구 관련 연구는 ‘수원시 1인 청년가구 특성을 고려한 주거정책 방향 연구’,¹⁹ ‘수원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²⁰ ‘수원특례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²¹이 진행되었을 뿐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살

-
- 11 이종남, 2020,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여가 참여의 조절효과: 중고령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연구』 28(4), 230~236쪽; 최성현, 2020,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쪽.
- 12 한성민·이숙종, 2018, 「청년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1), 60~85쪽
- 13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 14 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의 지역별 차이분석」, 『국토계획』 57(1), 115~127쪽; 박진슬·김석경·이승희, 2022, 「지원적 디자인 이론 기반 중년 1인 가구 주거 요구 분석 및 실태조사-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1), 61~64쪽.
- 15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24(4), 1~28쪽.
- 16 최셋별, 2014,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쪽.
- 17 김동협·김진태, 2019, 「연령대별 월세 1인 가구 거주지와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4, 437~440쪽; 배민철·안정근, 2021,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주거임지 특성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9(1), 75~88쪽.
- 18 노경혜·노혜진·정혜원·유혜인, 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19 김리영, 2018, 「수원시 1인 청년가구」, 수원시정연구원.
- 20 이영안·송화성, 2018, 「수원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21 조용준·조한라, 2022, 「수원특례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 『이슈매거진』, 수원시정연구원.

폐본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원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마련에 기여하기 위해 수원시 1인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지역사회의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문헌검토

1) 1인 가구

일반적으로 1인 가구란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로 정의된다.²² 하지만 단독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의 용어와 혼용되고 있으며,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1인 가구는 독신가구(미혼, 이혼, 사별)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음에도 동거를 하지 않는 주말부부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배우자와 자녀를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뒷바라지하는 기러기 가족 등도 포함되어 있다.²³

1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특성은 2020년 기준 전국 20대 1인 가구의 비율이 74.8%로 가장 높고, 80대 이상 46.4%, 30대 35.7%, 70대 33.9% 순서로 나타나²⁴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1인 가구와 다인가구의 특성을 비교한 반정호의 연구²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의 연구에서는 여성, 청년층, 노년층, 저학력층에서 1인 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세부적으로는 청년층은 고학력층의 비중이 높고, 노년층에서는 저학력층(중졸이하) 비중이 높았다.

또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노동시장 참여율 약 56%로 낮고, 임시·일용

22 한영민·정재훈·남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의 지역별 차이분석」, 『국토계획』 57(1), 115~127쪽.

23 김재남, 2021, 「1인가구의 세대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중단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6(8), 187~196쪽.

24 통계청 인구총조사, 2020.

25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 55~67쪽.

직의 비중이 높으며, 저숙련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²⁶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실업, 취업 준비, 생계형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 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노동시장에 진입과 이탈 반복한다는 특징이 있다.²⁷ 이러한 점은 1인 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중 청년층의 빈곤률은 2011년 12%에서 2014년 21.2%로 증가하고 있고, 노년층의 빈곤문제 또한 심화되고 있다.²⁸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는 다인가구에 비해 낮으며,²⁹ 대체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청·장년층에서는 주거불안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확인되고 있다.³⁰ 또한,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만성질환율, 우울, 자살생각 등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¹ 이처럼 1인 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인 가구는 세대별 가구 형성 배경과 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계층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하며 지역 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즉,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1인 가구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군집분석을 통해 어떻게 다르게 묶이는지, 또한 다르게 묶인 군집들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다.

26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 55~67쪽.

27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4), 1~28쪽.

28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4), 1~28쪽.

29 최섯별, 2014,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쪽.

30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 55~67쪽; 한영민·정재훈 남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의 지역별 차이분석」, 『국토계획』 57(1), 115~127쪽.

31 서지원·이수진, 2021,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87~99쪽.

32 김미숙·김안나, 2020,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1), 15~31쪽; 이현민·최미선, 2022,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89쪽.

2) 삶의 만족

삶의 만족(Life-Satisfaction)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대체로 삶의 질(Quality of Life), 행복(Happiness), 안녕감(Well-Bing),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의 개념과 혼용되고 있다.³³ Johnson et al의 연구³⁴는 삶의 만족을 자신이 처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스스로 경험을 통해 얻은 주관적인 만족이라고 정의하였고, 김희란의 연구³⁵는 자신이 세운 주관적 기대목표와 달성목표가 객관적으로 일치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감정 상태이자 자신의 현재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고 하였다. 즉, 삶의 만족은 개인의 인지적 판단과정으로 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삶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다.³⁶ 이때, 삶의 만족은 물질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 외 개인의 삶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³⁷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삶의 만족을 확산이론을 통해 설명한다.³⁸ 확산이론은 <그림 1>과 같이 상향확산이론(Bottom-Up Spillover Theory)과 하향확산이론(Top-Down Spillover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향확산이론은 외재적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강조하며, 삶의 영역에서의 경험이 삶의 만족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이

33 최성현, 2020,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쪽; 김희란, 2021,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장년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보름·김민수, 2022, 「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9(2), 71~99쪽.

34 Johnson, F., Cloyd, C., and Wer, J. A., 1982, "Life satisfaction of poor urban black age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4(3), pp.27-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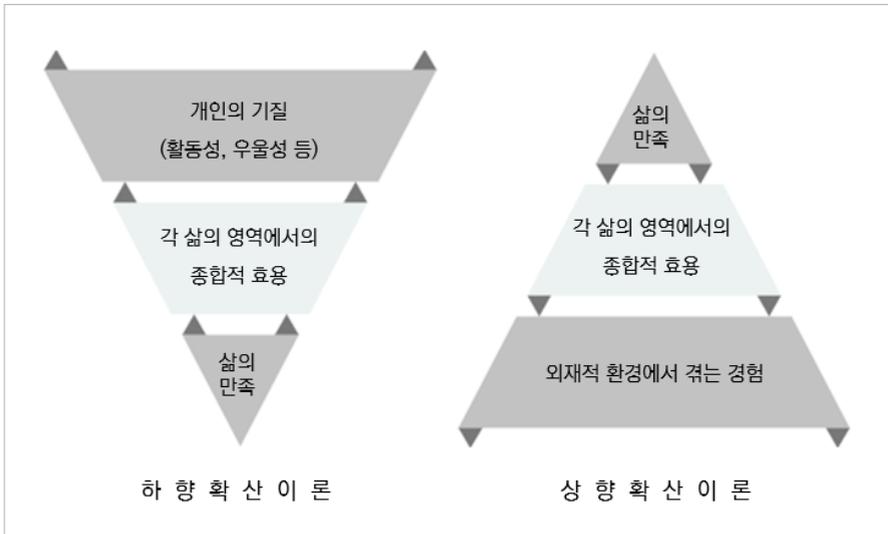
35 김희란, 2021,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장년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6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pp. 475~492; 김민선, 202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9, 159~188쪽.

37 Havighurst, 1968

38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47(2), 1~30쪽;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이미진,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이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은기·박소연, 2022, 「세대·계층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과 도시경쟁력 발전을 위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2(4), 23~53쪽.

다.³⁹ 반면, 하향확산이론은 개인의 내재적 성향을 강조하는 이론으로,⁴⁰ 개인이 고유하게 갖는 활동성이나 우울성과 같은 기질에 의해 삶의 만족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 있다.⁴¹



〈그림 1〉 하향확산이론과 상향확산이론(고명철, 2013; 이미진, 2021)

개인의 기질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충분히 진행되었고, 본 연구는 지역사회 환경적 요소를 중심으로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따라서 상향확산이론을 근거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39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40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47(2), 1~30쪽.

41 이미진,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이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선행연구 검토

인간의 삶은 대인관계, 자기개발, 경제조건, 가족관계, 지역사회 등과 같은 다양한 삶의 영역(Life Domains)을 구성되며, 삶의 만족(질)은 각 삶의 영역에서의 효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이다.⁴² 그 중 지역사회의 환경은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⁴³

삶의 만족과 유사한 개념인 삶의 질 지수화 방안을 연구한 박대식과 마상진의 연구⁴⁴는 편리한 삶을 위한 주택이 삶의 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으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선태원과 김양이 연구⁴⁵도 주거환경 만족도가 노인의 삶(생활)의 만족에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임선미와 이보영의 연구⁴⁶에서도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민과 최미선의 연구⁴⁷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와 대중교통의 빈도 및 노선에 대한 만족도가 노인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성남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조사한 이영균과 김동규의 연구⁴⁸는 거주지역의 자연환경 및 교통여건이 삶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박대식과 마상진의 연구⁴⁹도 대중교통 여건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

42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Plenum Press;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43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쪽; 변미라, 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정책리포트』 202, 1~17쪽;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이현민·최미선, 2022,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89쪽.

44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쪽.

45 선태원·김양이, 2021, 「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연구』 9(1), 52~86쪽.

46 이보영 (2016)

47 이현민·최미선, 2022,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89쪽.

48 이영균·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11(4), 223~250쪽.

49 박대식·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쪽.

났다.

여가활동과 관련해서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이윤경의 연구는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종남의 연구⁵⁰에서는 1인 가구의 문화·여가 활동 참여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권경득, 임정빈, 김덕준의 연구⁵¹에서도 교육·체육·문화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역생활여건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세대별로 비교한 강영웅의 연구⁵²는 '지역 내 일자리 수'와 같은 지역경제 여건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년세대와 노년세대의 경우 '지역 내 일자리 수'와 같은 지역경제 여건이 주민들의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³ 마지막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성별,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등)이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⁵⁴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1인 가구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고,

50 이종남, 2020,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여가 참여의 조절효과: 중고령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연구』 28(4), 230~2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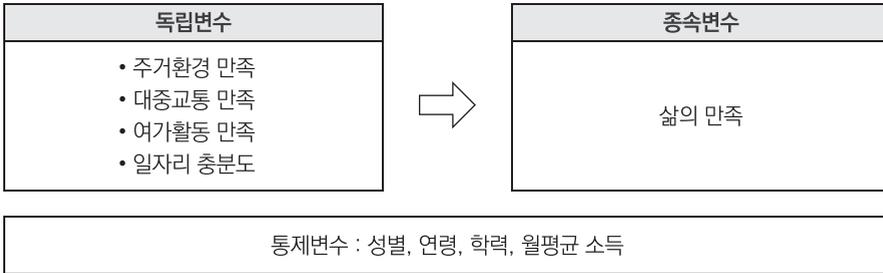
51 권경득·임정빈·김덕준,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207~230쪽.

52 강영웅, 2020, 「사회적 관계 요인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65~100쪽.

53 강영웅, 2020, 「사회적 관계 요인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65~100쪽.

54 강영웅, 2020, 「사회적 관계 요인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65~100쪽; 최성현, 2020,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쪽; 이미진,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이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수원시 1인 가구의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원시 거주기간에 따른 군집유형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군집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 대중교통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 삶의 만족의 차이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수원시 1인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를 통해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원자료(Raw Data)를 다운로드 받아 수원시 1인 가구만을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경기도 사회조사는 주거지 중심의 평소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도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장·단기적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조사한다.⁵⁵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의 조사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조사원에 의한 가

55 경기도, 2021, 『2021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구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였다.

3) 측정도구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은 '지역에서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 '전혀 만족하지 않음'(0점)부터 '매우 만족'(10점)까지 10점 Likert 척도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독립변수 중 주거환경 만족은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주거지역 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3가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잘 모름'이라고 응답한 일부 사례는 평균값으로 대체하였다. 주거환경 만족 3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86$ 으로 확인되었다.

대중교통 만족은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으로 5가지 교통수단(지하철·경전철, 택시, 기차, 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변수는 조사대상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평균 만족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활용하였다. 대중교통 만족 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5$ 로 확인되었다.

여가활동 만족은 '지역 내에서 여가활동 여건(접근성 및 충분성)과 현재의 여가활동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으로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Likert 척도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가활동 만족 5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1$ 로 신뢰도가 높게 확인되었다.

일자리 충분도는 '지역(시군) 내에서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충분한지'에 대한 1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범주는 '매우 불충분'(1점)부터 '매우 충분'(5점)까지이다.

통제변수의 측정은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모델에 투입하였고, 연령은 만 나이를 연속변수로 그대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육정도는 무학부터 대학원(박사)까지 8개 구간으로 측정하였고, 월 평균 소득은 50만 원 미만부터 800만 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측정하여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표 1〉 측정도구 요약

변수		측정내용
종속변수	삶의 만족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⑩ 매우 만족)
독립변수	주거환경 만족 (3문항)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 주택(시설, 면적, 구조 등) - 상하수도, 도시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 주거지역내 주차장 이용(공간, 시설, 접근성 등) (① 매우 불만족~⑤ 매우 만족)
	대중교통 만족 (5문항)	교통수단의 쾌적성, 정시성, 친절함 등을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의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 - 지하철 경전철 - 택시 - 기차 - 시내, 마을버스 - 시외, 고속버스 (① 매우 불만족~⑤ 매우 만족)
	여가활동 만족 (2문항)	지역 내 여가활동 여건과 현재의 여가활동 생활에 대한 만족 - 문화여가시설(접근성과 충분정도) - 전반적인 여가활동 (① 매우 불만족~⑤ 매우 만족)
	일자리 충분도 (1문항)	지역 내 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기회의 충분성 (① 매우 불충분~⑤ 매우 충분)
통제변수	성별	더미변수(여자=0, 남자=1)
	연령	연속변수(만 나이)
	교육정도	연속변수(① 무학/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4년제 미만)/ ⑥ 학교(4년제 이상)/⑦ 대학원(석사)/ ⑧ 대학원(박사))
	월평균 가구소득	연속변수(① 50만 원 미만/ ② 50만~100만 원 미만/ ③ 100만~200만 원 미만/ ④ 200만~300만 원 미만/ ⑤ 300만~400만 원 미만/ ⑥ 400만~500만 원 미만/ ⑦ 500만~600만 원 미만/ ⑧ 600만~700만 원 미만/ ⑨ 800만 원 이상)

4) 분석방법

분석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였으며, 2021년 수원시 사회조사 자료에서 1인 가구를 추출한 후 일부 문항에서 확인된 결측은 평균값으로 대체한 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수원시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군집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Hair & Black(2000)가 제시한 2단계 방법(Wards 방법을 활용한 계층적 군집분석-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수원시 1인 가구 군집유형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차이분석(T-test, Anova)을 실시하였다. 넷째,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독립변수의 허용오차(Tolerance) 범위는 .741~.947로 기준값 1을 넘지 않았으며, 분산팽창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 역시 1.031~1.349로 기준값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4. 실증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조사대상자 543명 중 남자는 279명(51.4%), 여자는 264명(48.6%)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20대 이하가 102명(18.8%)로 가장 많았고, 50대 96명(17.7%), 60대 79명(14.5%), 70대 72명(13.3%), 40대 70명(12.9%), 30대 67명(12.3%), 80대 이상 57명(10.5%) 순서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2.13세로 확인 되었다. 이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수원시 1인가구의 연령분포 중 20대와 60대 이상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⁵⁶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등학교가 170명(31.3%)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학(4년제 이상) 138명(25.4%), 초등학교 70명(12.9%), 대학(4년제 미만) 61명(11.2%) 순서로 나타났다.

56 KOSIS, 2022(<https://kosis.kr>).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35명(24.9%),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24명(22.8%),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23명(22.7%),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75명(13.8%) 순서로 확인되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543)

변수		N	%
성별	남자	279	51.4
	여자	264	48.6
연령대 (M= 52.13, S.D=19.46)	20대 이하	102	18.8
	30대	67	12.3
	40대	70	12.9
	50대	96	17.7
	60대	79	14.5
	70대	72	13.3
	80대 이상	57	10.5
학력	무학	31	5.7
	초등학교	70	12.9
	중학교	42	7.7
	고등학교	170	31.3
	대학(4년제 미만)	61	11.2
	대학(4년제 이상)	138	25.4
	대학원(석사)	22	4.1
	대학원(박사)	9	1.7
소득	50만 원 미만	45	8.3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123	22.7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	124	22.8
	2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135	24.9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75	13.8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22	4.1
	500만 원 이상~600만 원 미만	8	1.5
	600만 원 이상~700만 원 미만	5	.9
	700만 원 이상~800만 원 미만	3	.6
	800만 원 이상	3	.6

2) 군집유형 분류

군집분석은 데이터의 유사성을 파악하여 집단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K-mean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수원시 1인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나이, 학력, 월평균 소득, 수원시 거주기간 변수를 통해 몇 개의 군집 수를 설정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계층적 군집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해 K-mean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3개의 군집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각 군집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먼저, 군집 1은 평균연령이 70.97세이며, 학력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값으로 나타나 저학력이라고 볼 수 있다. 월 평균 소득은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에 가깝게 나타났다. 2021년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연 2,409만 원(월 소득 약 200만 원)인 1인 가구 소득⁵⁷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수원시 평균 거주기간은 33.29년으로 확인되었다. 즉, 군집 1은 노인층, 저학력, 저소득이면서 수원시에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사람들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군집 2는 평균연령이 50.70세이며, 학력은 대학(4년제 미만)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3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수원시 평균 거주기간은 26.56년으로 확인되었다. 즉, 군집 2는 중장년층, 고소득이면서 수원시에 25년 이상 오래 거주한 사람들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군집 3은 평균연령이 35.57세이며, 학력은 대학(4년제 미만)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10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었으며, 수원시 평균 거주기간은 6.50년으로 확인되었다. 즉, 군집 3은 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이면서 수원시에 6년 반 정도 거주한 사람들로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57 KOSIS, 2022(<https://kosis.kr>).

〈표 3〉 군집유형의 특성(N=543)

구분	군집	N	M	S.D	F
연령	군집1(노인층)	213	70.97	10.17	578.68*** 노인층<중장년층>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50.70	12.14	
	군집 3(청년층)	234	35.57	11.21	
	전체	543	52.13	19.46	
학력	군집1(노인층)	213	2.84	1.28	270.53*** 노인층<중장년층,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5.30	1.11	
	군집 3(청년층)	234	5.23	1.11	
	전체	543	4.30	1.66	
월평균 소득	군집1(노인층)	213	2.32	.93	284.79*** 노인층<중장년층>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5.53	1.53	
	군집 3(청년층)	234	3.57	1.02	
	전체	543	3.43	1.57	
수원시 거주기간	군집1(노인층)	213	33.29	21.04	176.56*** 노인층<중장년층>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26.56	15.57	
	군집 3(청년층)	234	6.50	7.12	
	전체	543	20.56	19.82	

* p<.05, ** p<.01, *** p<.001

3) 군집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

군집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거환경 만족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3.20점(S.D=.87)으로 보통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군집유형별 차이는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3.33점(S.D=.88),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3.19점(S.D=1.01),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 평균 3.07점(S.D=.87)으로 확인되었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의 주거환경 만족이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의 주거환경 만족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F=5.041,p<.01). 대중교통 만족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3.40점(S.D=.71)으로 보통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대중교통 만족의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가활동 만족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2.87점(S.D=.79)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게

〈표 4〉 군집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N=543)

구분	군집	N	M	S.D	F
주거환경 만족	군집1(노인층)	213	3.33	.88	5.041** 노인층<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3.19	1.01	
	군집 3(청년층)	234	3.07	.78	
	전체	543	3.20	.87	
대중교통 만족	군집1(노인층)	213	3.40	.71	.082
	군집 2(중장년층)	96	3.37	.80	
	군집 3(청년층)	234	3.40	.67	
	전체	543	3.40	.71	
여가활동 만족	군집1(노인층)	213	2.69	.80	9.972*** 노인층<중장년층, 청년층
	군집 2(중장년층)	96	3.00	.84	
	군집 3(청년층)	234	2.99	.71	
	전체	543	2.87	.79	
일자리 충분도	군집1(노인층)	213	2.64	.871	3.156*
	군집 2(중장년층)	96	2.72	.777	
	군집 3(청년층)	234	2.83	.748	
	전체	543	2.74	.807	
삶의 만 족	군집1(노인층)	213	5.53	1.907	1.722
	군집 2(중장년층)	96	5.97	2.090	
	군집 3(청년층)	234	5.68	1.867	
	전체	543	5.67	1.926	

* p<.05, ** p<.01, *** p<.001

나타났다. 군집유형별 차이는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3.00점(S.D=.84),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 평균 2.99점(S.D=.71)으로 나타났고,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2.69점(S.D=.80)으로 다른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F=9.972, p<.001)

일자리 충분도에 대한 인식은 조사대상자 전체 평균 2.74점(S.D=.80)으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유형별 차이는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 평균 2.83점(S.D=.74),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2.72점(S.D=.77),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2.64점

(S.D=.87)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3.156, p<.05$). 그러나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삶의 만족은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가 평균 5.97점(S.D=2.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 평균 5.68점(S.D=1.867),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 평균 5.53점(S.D=1.907) 순서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연구모형 분석

수원시 1인 가구 유형별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별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거주)은 대중교통 만족($\beta=.221, p<.01$), 주거환경 만족($\beta=.234, p<.001$), 일자리충분도($\beta=.155, p<.05$)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beta=-.168, p<.05$)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25.5%로 확인되었으며, 통계모형은 유의하였다($F=9.398, p<.001$).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는 여가활동 만족($\beta=.332, p<.01$), 주거환경 만족($\beta=.321, p<.01$)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제변수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1.9%로 확인되었으며, 통계모형은 유의하였다($F=3.702, p<.01$).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은 여가활동 만족($\beta=.386, p<.001$), 일자리충분도($\beta=.189, p<.01$), 주거환경 만족($\beta=.126, p<.05$)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제변수 중에는 성별($\beta=-.140, p<.01$)과 나이($\beta=-.046, p<.01$)가 삶의 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의 경우 남자보다 여자가 수원시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나이가 어릴수록 수원시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의 설명력은 28.8%로 확인되었으며, 통계모형은 유의하였다($F=12.324, p<.001$).

조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델은 대중교통 만족($\beta=.156, p<.001$), 주거환경 만족($\beta=.206, p<.001$), 여가활동 만족($\beta=.250, p<.001$), 일자리충분도($\beta=.191, p<.001$) 모

두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중교통, 주거환경, 여가활동에 만족할수록 그리고 지역 내 일자리가 충분하다고 느낄수록 수원시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5〉 연구모형 분석(N=543)

변수	군집 1(노인층)		군집 2(중장년층)		군집 3(청년층)		전체	
	B	β	B	β	B	β	B	β
상수	-1.081		-.836		.441		.020	
성별 (기준변수: 여자)	-.710	-.168*	-.286	-.068	-.464	-.118*	-.534	-.140**
나이	.017	.089	-.003	-.017	-.020	-.120*	-.004	-.046
교육정도	-.017	-.011	.139	.077	-.012	-.007	-.012	-.010
월평균소득	.229	.112	-.062	-.049	.060	.033	.092	.075
대중교통 만족	.589	.221**	.169	.067	.259	.095	.418	.156***
주거환경 만족	.506	.234***	.708	.321**	.295	.126*	.459	.206***
여가활동 만족	.198	.084	.821	.332**	.998	.386***	.607	.250***
일자리충분도	.338	.155*	.486	.185	.480	.189**	.454	.191***
Adjusted R2	.255		.219		.288		.251	
F	9.398***		3.702**		12.324***		21.869***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수원시 1인 가구의 유형을 분류한 후 각 유형의 특성을 확인하고,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자료 중 수원시 1인 가구 543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1인 가구의 연령, 학력, 월평균 소득, 수원시 거주 기간에 따른 군집 유형은 3가지로 분류되었다. 먼저, 군집 1은 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라는 특징이 나타났으며, 군집 2는 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라는 특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군집 3은 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이면서 수원시에 6년

반 정도 거주한 집단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로 구분된 집단의 경우, 1인 가구를 저소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으로 설명하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다르게 고소득으로 확인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의 경우에는 선행연구에서 묘사하는 1인 가구의 특성을 모두 보이고 있다.

둘째, 군집 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만족, 대중교통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 삶의 만족의 차이는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의 경우 주거환경 만족이 다른 집단보다 높았고, 여가활동 만족과 일자리 충분도는 다른 집단보다 낮았다. 주거환경 만족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많은 수의 1인 가구 노인층의 경우 분류된 특성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아파트 등에 거주할 확률이 높고,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가 다른 군집 유형에 비해 높기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가활동 만족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수원시에 노인 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6곳이나 있지만,⁵⁸ 많은 노인을 수용하기 어렵거나⁵⁹ 제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리고 일자리 충분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저소득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초노령연금 외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활동을 통한 추가 수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는 여가활동 만족이 3개 집단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경우 같은 연령대의 다인가구보다 가족으로 인한 시간적, 금전적 제약을 덜 받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은 주거환경 만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았다.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의 주거환경 만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청년들의 경우 생애주기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고 자산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원시의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료 수준이 부담이 된다는 김리영의 연구⁶⁰ 결과

58 한연주·이영안·이혜연·조한라, 2021b,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59 2019년 기준 노인 천 명당 노인여가복지시설 수가 경기도는 7.12개였으나 수원시는 4.31개였다(한연주·이영안·이혜연·조한라, 2021b,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60 김리영, 2018, 『수원시 1인 청년가구』, 수원시정연구원.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대중교통 만족, 주거환경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군집별로는 군집 1(노인층, 저학력, 저소득, 수원시 오래 거주)의 경우 지역사회 환경 중 대중교통 만족, 주거환경 만족, 일자리 충분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군집 2(중장년층, 고소득, 수원시 오래거주)는 여가활동 만족과 주거환경 만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고소득에 속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여건 보다는 여가활동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동안 여가활동 정책은 대부분 여유시간이 많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관련 연구 또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들이 많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수원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여가활동 만족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활동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군집 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은 지역사회 환경 중 주거환경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중장년층 모델과 마찬가지로 모델에 투입된 전체 변수 중 여가활동 만족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자료가 코로나19가 한참이었던 2021년에 조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 상업시설을 통한 여가활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공원과 같은 실외에서의 활동을 주로 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를 들어, 수원화성⁶¹과 같은 문화유산이나 총 339개의 공원⁶²은 해당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만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일자리 충분도 역시 삶의 만족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수원시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⁶³ 「수도권정비

61 수원화성은 2021년~2022년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되었으며(뉴스핌, 2021.01.28.),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관광이 제한된 상태에서 국내여행지로 관심이 높았다.

62 수원에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총 339개소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숲속놀이터, 생태나들이 등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수원시, 「2021 수원시정백서」, 2022)

63 조용준, 2020, 「2019 수원시 고용동향 분석」, SRI 정책리포트, 수원시정연구원.

계획법』에서 지정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기술집약형 업종 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⁶⁴ 따라서 기술집약형 업종의 유치와 양성을 위해 수원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환경 만족은 앞서 논의한 군집3(청년층, 평균 정도의 소득)의 주거환경 만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결과와 종합해보면, 그동안 수원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정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만족 향상을 공공정책(서비스)의 최종적인 성과목표로 인식하는⁶⁵ 상황에서 수원시 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원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건강상태(신체, 정신) 등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요인들과 지역사회 요인들을 모델에 포함하지 못하여 분석의 틀이 단조롭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3년 4월 30일 심사일 2023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30일

64 조용준·정가형·김현아·이미진·이상훈·조한라, 2022, 『2022 상반기 수원시정연구원 정책현안TF 정책보고서』, 수원시정연구원.

65 Glaser, M. A., Aristigueta, M. P., & Payton, S., 2000, "Harnessing the Resources of Community: The Ultimate Performance Agend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3(4), pp.428-448.

참고문헌

- 강영웅, 2020, 「사회적 관계 요인이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세대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0(4), 65~100쪽.
- 강은나 · 이민홍, 2018,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보건사회연구』 38(4), 196~226쪽.
- 강은택 · 강정구 · 마강래, 2016, 「1인 가구의 주관적 삶의 만족감에 관한 연구: 미혼 1인 가구와 기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7(1), 3~23쪽.
- 경기도, 2021, 『2021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 경기도 인구정책담당관.
- 고명철, 2013, 「공공서비스 만족도, 정부성과, 그리고 삶의 질 간의 영향관계 분석」, 『한국행정학회』 47(2), 1~30쪽.
- 권경득 · 임정빈 · 김덕준, 2011,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이 지역정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3(4), 207~230쪽.
- 권중돈 · 조주연, 2000, 「노년기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쪽.
- 김경아 · 조원지, 2021, 「1인 가구 중년여성의 시간 사용 인지에 따른 생활시간 실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7), 601~608쪽.
- 김기태 · 박봉길, 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지지망」, 『한국노년학』 20(1), 153~168쪽.
- 김도희, 2021, 「1인가구 시대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의 과제: 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연구』 24(4), 1~28쪽.
- 김동협 · 김진태, 2019, 「연령대별 월세 1인 가구 거주지와 대중교통 접근성 분석 연구-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ITS학회 학술대회』 4, 437~440쪽.
- 김리영, 2018, 「수원시 1인 청년가구」, 수원시정연구원.
- 김미숙 · 김안나, 2020, 「1인가구의 세대별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비교 연구」, 『한국학교 · 지역보건교육학회지』 21(1), 15~31쪽.
- 김민선, 2021,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 상관관계 메타분석」, 『기독교교육정보』 69, 159~188쪽.
- 김보름 · 김민수, 2022, 「청년의 삶의 만족에 대한 기본소득의 영향에 관한 연구-성남시 청년배당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9(2), 71~99쪽.
- 김재남, 2021, 「1인가구의 세대별 생활만족도에 관한 중단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26(8), 187~196쪽.
- 김혜미 · 백승영, 2021, 「청년1인 가구의 특성이 가족관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인문사회21』 12(6), 845~856쪽.
- 김혜영, 2008, 「한국가족의 다양성 증가와 그 이중적 함의」, 『아시아여성연구』 47(2), 7~37쪽.
- 김혜정 · 이민영 · 김유나 · 윤민화, 2022, 「TPA를 이용한 아동돌봄기관의 안전문화 촉진요소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4(1), 1~30쪽.
- 김희란, 2021, 『주관적 건강상태가 중장년 일인가구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경혜 · 노혜진 · 정혜원 · 유혜인, 2022, 『경기도 1인가구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대구광역시, 2018, 『2017년 대구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보고서』.
- 박대식 ·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농촌경제』 30(4), 31~55쪽.
- 박상문 · 김기중 · 현병환, 2021, 「베이비부머의 근로기대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2), 340~349쪽.
- 박진슬 · 김석경 · 이승희, 2022, 「지원적 디자인 이론 기반 중년 1인 가구 주거 요구 분석 및 실태조사 -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4(1), 61~64쪽.
- 반정호, 2012, 「1인 가구의 사회 · 경제적 특성과 변화」, 『노동리뷰』 85, 55~67쪽.
- 배다영 · 박은빈, 2022, 「1인가구 중고령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IADL) 및 우울감의 변화계적과 삶의 만족도: 병렬과정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가정과삶의질학회』 40(1), 11~25쪽.
- 배민철 · 안정근, 2021, 「지방 중소도시 1인 가구 주거입지 특성 연구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주거환경』 19(1), 75~88쪽.
- 변미리, 2008, 『서울의 1인 가구 증가와 도시정책 수요연구』,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 변미리, 2015, 「서울시민의 행복 체감도와 행복지표 활용방안」, 『정책리포트』 202, 1~17쪽.
- 서지원 · 이수진, 2021, 「중년 무배우남성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의 효과 분석: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5(4), 87~99쪽.

- 선태원 · 김양이, 2021, 「노인의 주거환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주거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장기요양연구』 9(1), 52~86쪽.
- 윤은기 · 박소연, 2022, 「세대 · 계층별에 따른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과 도시경쟁력 발전을 위한 연구: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32(4), 23~53쪽.
- 이미진,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이 노인 삶의 만족도 변화회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균 · 김동규, 2007,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회보』 11(4), 223~250쪽.
- 이영안 · 송화성, 2018, 「수원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수원시정연구원.
- 이윤경, 2018, 「삶의 질 영향요인 추세분석: 상향확산이론의 적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4(2), 35~72쪽.
- 이종남, 2020,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 · 여가 참여의 조절효과: 중고령장애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 『스트레스 연구』 28(4), 230~236쪽.
- 이현민 · 최미선, 2022,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고령친화 지역사회환경 요인」, 『보건사회연구』 42(2), 262~289쪽.
- 이현정 · 최재요, 2022, 「월세 거주 청년층 1인 가구의 지역별 주거실태 및 주거비 차이 비교」, 『GRI연구논총』 24(2), 31~64쪽.
- 이희연 · 노승철 · 최은영, 2011, 「1인 가구의 인구 · 경제 ·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4), 480~500쪽.
- 임선미 · 이보영, 2016, 「중장년층의 주거환경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1), 49~63쪽.
- 장임숙, 2022, 「1인가구의 젠더 특성과 정책방안」, 『지방정부연구』 24(1), 373~397쪽.
- 조용준, 2020, 『2019 수원시 고용동향 분석』, SRI 정책리포트, 수원시정연구원.
- 조용준 · 정가형 · 김현아 · 이미진 · 이상훈 · 조한라, 2022, 『2022 상반기 수원시정연구원 정책현안TF 정책보고서』, 수원시정연구원.
- 조용준 · 조한라, 2022, 「수원특례시 1인 가구의 사회보장 욕구 분석」, 『이슈매거진』, 수원시정연구원.
- 최성현, 2020, 「도시 거주 노인1인가구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연구: 성별 및 경제활동 유무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40(2), 244~282쪽.
- 최셋별, 2014, 「1인 가구의 문화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다인 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여가학연구』 12(2), 1~24쪽.
- 한성민 · 이숙중, 2018, 「청년1인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효과

- 를 중심으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2(1), 60~85쪽.
- 한연주 · 조한라, 2021a, 『수원시 사회복지 민간위탁시설 성과평가 지표 개발』, 수원시정연구원.
- 한연주 · 이영안 · 이해연 · 조한라, 2021b, 『제5기 수원시지역사회보장조사』,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한영민 · 정재훈 · 남진, 2022, 「서울시 1인 가구 주거이동량과 소형주택 재고량의 지역별 차이분석」, 『국토계획』 57(1), 115~127쪽.
- 홍성희, 2016, 「노인의 삶의 질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 89~108쪽.
- 홍승아 · 성민정 · 최진희 · 김진옥 · 김수진, 2017,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Plenum Press.
-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Forwards*, Jeseoph Rowntree Foundation.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Recent patterns and trends*, New York: McGrawHill.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 pp.1149~1160.
- Glaser, M. A., Aristigueta, M. P., & Payton, S., 2000, "Harnessing the Resources of Community: The Ultimate Performance Agenda",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3(4), pp.428~448.
- Glaser, M. A., & Bardo, J. W., 1991, "The Impact of Quality of Life on Recruitment and Retention of Key Personnel", *The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1(1), pp.57~72.
- Havighurst, R. J., 1968, "A social-psychological perspective on aging", *The Gerontologist*, 8(2), pp.67~71.
- KOSIS, 2022(<https://kosis.kr>).
- Johnson, F., Cloyd, C., and Wer, J. A., 1982, "Life satisfaction of poor urban black aged", *Advances in Nursing Science*, 4(3), pp.27~34.
- Lucas, R. E. & Diener, E., 2008, *Subjective well-being, handbook of emotions*, 3rd, edited by Michel Lewis, Jeannette M. Haviland-Jones, and Lisa Feldman Barrett. The

Guilford Press.

Martilla, J. A., & James, J. C., 1977,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Journal of Marketing*, 41(1), pp.77~79.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4), pp. 475~492.

『뉴스핌』 2021년 1월 28일(<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128001141>).

『2021 수원시정백서』, 2022년 1월 7일(http://news.suwon.go.kr/ebook/home/view.php?host=main&site=20220107_022655&listPageNow=0&list2PageNow=0&code=1310&code2=0&code3=0&optionlisttype=L&listcount=10&searchcode=0&searchcode2=0&searchdate=0&searchkey=&searchval=&searchandor=&dumy=&&orders=).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1인 가구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원시 1인 가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1년 경기도 사회조사 자료 중 수원시 1인 가구 543명의 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1인 가구의 유형은 3가지 군집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군집 1의 특성은 노인층 저학력 저소득이며 수원시에 오래 거주한 유형이었다. 군집 2의 특성은 중장년층 고소득이며 수원시에 오래 거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군집 3은 평균 정도의 소득을 가진 청년층으로 수원시에 7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군집유형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 삶의 만족에서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삶의 만족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군집 1과 군집 2는 대중교통 만족, 주거환경 만족, 여가활동 만족, 일자리 충분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군집 3은 여가활동 만족과 일자리 충분도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1인 가구, 삶의 만족, 유형화, 지역사회 환경

ABSTRACT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 Focusing on the Community Environment

Cho, Hall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an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Through this, I would like to suggest a policy for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To this end, among the 2021 Gyeonggi-do social survey data, data from 543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were extracted and analyzed.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Suwon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clusters.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 1 were the elderly, low-education, low-income, and long-term residents of Suwon. The characteristics of cluster 2 were middle-aged, high-income, long-term residents of Suwon. Cluster 3 is a young adult with an average income and has been confirmed to have lived in Suwon for about 7 years. Second, the differences in key variables according to the cluster type were examin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group differences in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job sufficiency, and life satisfaction. Thirdly, the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were examined. As a result, for clusters 1 and 2, it was confirmed that satisfaction with public transportation,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ith leisure activities, and job sufficiency had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nd cluster 3 showed that leisure activity satisfaction and job sufficiency had an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present policy.

Key words : Single-Person Households, Life Satisfaction, Categorization Community Environment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권리보장에 관한 질적 연구 :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을 중심으로

전경숙*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연구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는 주체로 보아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보호의 권리(right to protection),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아동·청소년의 성장환경 및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아동·청소년 삶의 질과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정책적 대응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계층화 문제의 심화, 4차 산업혁명과 얼마 전까지 지속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반면, 아동·청소년 인권에 취약한

*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Child & Youth Education & Counseling, Pywongtaek University), E-mail: ksjun@ptu.ac.kr, Tel: 031-659-8242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학교 밖 청소년, 학교 폭력 피해자, 인터넷 중독 등 보호·복지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학대 및 가정해체 등 다양한 사유로 매년 발생하는 보호 대상 아동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수,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한부모, 조손, 다문화 가정 등 가족 형태의 다양성 증가, 학교 폭력·소년범죄·스마트폰 중독위험의 저연령화 추세, 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곤 가구의 증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 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 환경은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7년째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대학입시 위주의 경쟁적 교육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 여가문화 결핍, 아동학대와 방임, 폭력, 가출, 학업 중단 등 다양한 위기청소년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인 한국 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이러한 아동·청소년 위기 문제의 해결과 개선을 권고받고 있다.¹

202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지도는 20.1%, 인권 교육 경험률은 48.0%로 낮은 편이며,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이 어려운 이유로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살 생각과 학업 중단 생각 등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학업 부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 상황이 열악한 경향이다.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 노력 정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는 5점 만점에 평균 2.3점으로 낮게 나타나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미흡함을 시사했다.²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아동의 4대 권리와 관련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권리교육 및 인권 교육의 보장,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이 교육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는 것,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며, 복

1 정익중, 2020, 「코로나19 전후 일상 변화와 아동 행복」,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행복포럼자료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2 김영자·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장 제한을 시행하고 있는 것, 온라인 폭력 및 학교 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가정 내 재학대의 높은 발생률 및 재범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의 부재,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이라는 점,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이주 아동 및 미등록 아동의 제한적인 교육 서비스 접근성, 온라인 아동 성매매와 그루밍의 증가를 포함하여 성폭력 및 성적 학대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된다.³ 2017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수원시는 2016년부터 매년 아동 권리 관점에서 아동친화예산을 수립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동친화 영역별로 가정환경 영역에 아동친화 예산의 50%가 집중되어 있고, 참여와 시민의식(0.2%) 및 안전과 보호(1.2%) 영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아동의 참여권과 보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⁴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4대 기본권인 생존의 권리(right to survival), 발달의 권리(right to development), 참여의 권리(right to participation)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누리는 존재로 보고 있다.⁵ 아동의 성장 과정에서 4대 기본권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큰데, 아동 생존의 권리는 적절한 생활 수준과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예방접종, 영양개선 등이 관련된다. 아동 보호의 권리는 아동이 학대와 방임, 그 외에 여러 가지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써 대표적으로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서비스가 해당되며, 아동 발달의 권리는 적절한 교육과 여가, 문화생활을 통한 잠재 능력의 발휘를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학원, 여가, 종교활동 등을 포함한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스스로 의견을 말하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다. 이처럼 아동의 4대 권리는 아동을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 권리 행사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의의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아동인권 문제가 국제적 아젠다로 대두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사회적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

3 보건복지부,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4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5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로 확대되는 추세이다.⁶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2019년에 18.2%로 전국 평균 16.8% 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6년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아동권리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여 2017년 전국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친화도시의 확산과 아동권리 및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⁷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정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가 매년 진행되었을 뿐,⁸ 학계에서의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연구 대상도 학업 중단 혹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청소년의 노동인권,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권 등 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주를 이루며, 이들의 사회적 배제나 불평등 관점에서 다룬 연구가 대부분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을 포괄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과 보편적인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수원시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연구의 경우도 아동친화도시 관련 연구⁹와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¹⁰가 진행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삶의 질 전반에 걸쳐 권리와 인권 보장을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부재한 상황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어떠한지 심층적인 조망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원시의 일반가정과 취약계층 가정을 모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와 일상적 삶의 취

-
- 6 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12(2), 한국지방정부학회, 383-407쪽.
 - 7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8 김신영,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 보고서, 학교인권 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자·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자·유설희·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자·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9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10 이영안·한연주·김은정·박범준, 2019,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2023)」, 수원시정연구원.

약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유엔아동특별총회도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아동·청소년을 개발 아젠다의 핵심에 둘 것을 강조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빈곤, 결핍, 소외, 불평등 의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와 지역 수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¹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의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일반 청소년 외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인권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아동·청소년이 경험한 인권상황을 탐색하여 경험적 의미를 발견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인권상황(인권 의식 및 태도, 인권 감수성)은 어떠한가?
2. 수원시 아동·청소년이 학교나 사회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은 무엇인가?
3. 일상생활에서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대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및 태도와 인권 감수성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은 이들의 지닌 인권 의식 및 태도, 인권 감수성과 인권침해

11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 경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먼저, 인권 의식 및 태도는 아동·청소년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 사회참여 필요성,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자치 조직 등 청소년 참여 관련 인식이나 태도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2/3 이상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은 아직 어리지만, 성인의 생각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다는 것에 69.5%가 동의하고 있고, 청소년도 사회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85.7%가 생각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86.0%가 동의하고 있어 인권 의식과 태도는 상당 수준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참여의 필요성이나 인식과는 달리 실제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나 활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정책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활동 경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11.0%만이 알고 있었고, 그 중 1.9%만 참여기구 활동 경험이 있어 인식과 실천에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²

학교의 인권 환경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학교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¹³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한 변화나 정책 효과는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 조례 시행을 통해 학생 인권 보장과 인권 감수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며, 조례제정과 함께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 변화와 학교 폭력 등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하고, 조례 시행은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를 모두 보여주었으며, 조례 시행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제도화 중심의 논의를 경계해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아동·청소년이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아

12 김명자·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4쪽, 110쪽.

13 박환보·주경,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 분석보고서-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쪽.

동·청소년이 1/3에 달하며(30.1%), 연 1~2회 정도 신체적 체벌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23.1%에 달하며, 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교사로부터의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도 각각 10.9%, 3.5%로 나타나 가정과 학교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가정 내 방임 수준은 매우 높아 초등 4~6학년 학생이 야간시간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있었던 경험은 거의 절반(49.4%)에 가까웠으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 경험률은 욕설 및 모욕 18.8%, 사생활 침해 4.5%, 성희롱 3.6%, 협박 3.1%, 따돌림 2.0%의 순으로 비교적 높았다.¹⁴

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주체적 의사결정 능력과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인권 의식 및 태도 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실제 참여기에 대한 인지도나 활동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아 인식과 실천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인권 신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 모색에 주력해야 한다. 한편,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고, 가정에서의 돌봄 공백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경험도 상당수에 달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정부 정책의 최근 동향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2년 후인 1991년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당사국의 의무를 지닌다. 이에 따라 전 부처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시행성과를 분석하고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을 비롯하여 시민사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는 절차가 진행된다.¹⁵ 협약 이행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입법·사법·행정부

14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6쪽, 130쪽, 131쪽, 134쪽, 138쪽, 147쪽.

15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유기적인 협력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일관된 체계 하에 비로소 실현되므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⁶ 2019년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받은 우리나라는 2024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 대한 후속조치 정보를 담은 제7차 국가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일반원칙으로 제시한 협약 제2조(비차별), 제3조 제1항(아동 최상의 이익), 제6조(생명, 생존 및 발달), 제12조(아동참여와 견해 존중)를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약이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미흡함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비차별(협약 제2조)과 관련하여 지난 2021년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은 10만 명의 국민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법사위원회가 청원의 심사기한은 21대 국회 임기 말인 2024년 5월로 연기됨으로써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아동을 ‘덜 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미숙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취약하고 소외된 집단으로 차별하여 법과 정책의 대상에서 누락되고 자원의 우선적인 배분에서 배제되는 현실이다. 사회 곳곳에 만연 한 아동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과 취약하고 소외된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 방지 및 근절을 강조한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아동 최상의 이익(협약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점검하는 하나의 척도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2021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하여 제도적 안착을 도모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¹⁷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추진, 평가수행 기관별 DB 구축 및 영향평가 관련 자료 통합 관리를 통해 평가수행 기관의 업무 효율성 증대, 나아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사업추진 현황 공유 및 제도 관련 소통창구 운영을 목표로 2021년에는 아동정책영향평가가 온라인 플랫폼

16 김희진·김상원, 2020,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413~457쪽.

17 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년 12월 2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아동정책영향평가 첫 1년(<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5&bbsId=1022&nttSn=3150&cataGori=&tabName=>)-2022년 9월 1일 인출.

지킴(GCIM: Global Child Impact assessMent system) 시스템¹⁸이 구축되었다.

생명, 생존 및 발달(협약 제6조) 관련하여서는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이들의 상황을 고려한 특화된 국가 대책이 매우 미흡하였다.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컸으며,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조손 가정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의 아동·청소년에게 미친 차별, 배제, 무관심의 타격은 더욱 컸다. 학교 폐쇄와 비대면 수업에서 가정 내 적절한 교육환경이 구축되지 않아 발생하는 교육 격차 문제와 가정 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 등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가장 크게 직면하여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아동 참여와 견해 존중(협약 제12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약한 영역으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확대를 위해 법적·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사소송법」개정안은 기존에 '부모'를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소송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개정 방향으로 하여,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에서 모든 연령대의 미성년 자녀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며,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사소송 절차 전반에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¹⁹ 「민법」과 「입양특례법」에서는 아동의 동의나 의견청취 연령을 13세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특정 주제나 조건적인 상황에서 참여의 기회 정도만 제공될 뿐 협약 제12조의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 현실에서, 「가사소송법」개정안은 아동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서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고, 그 견해에 정당한 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협약 제12조의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18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child.ncrc.or.kr/>).

19 법무부, 보도자료(2022년 5월 3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https://www.moj.go.kr/bbs/moj/182/558819/artclView.do>)-2022년 9월 1일 인출.

3) 권리 관점에서 본 아동·청소년 성장환경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 4대 권리 관점에서 살펴본 아동·청소년 성장환경은 긍정적이지 않다. 정부에서 매년 혹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나 생활실태조사 결과는 아동·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이 정책적 노력이 더욱 집약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련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는 22.4%, 국가인권위원회는 22.7%, 심지어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0%만 이름을 들어 봤고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고 하여 인지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²⁰ 고등학생 응답률의 경우 11.6%로 중학생(7.7%)과 초등학생(5.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7개 지역이지만,²¹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극소수만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낮은 인권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아동·청소년의 차별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외모·신체 조건으로 인한 가·피해 경험이 가장 많았다.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은 외모·신체조건과 나이가 각각 21.6%의 응답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별 21.3%, 학업성적 20.6%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의 경우 외모·신체조건(9.9%), 학업성적(8.2%), 나이(8.1%), 성별(7.7%) 순으로 높게 나타나 피해 경험 응답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다.²²

아동·청소년의 발달권 측면에서 학교와 교육환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기의 학교는 진로 개발 및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받는 공간이자, 또래 간의 관계 형성 및 교사와 분리될 수 없는 수준

20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8쪽.

21 김영지·유설화·최홍일·이민화·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2쪽;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교육청은 경기도(2010년), 광주광역시(2011년), 서울특별시(2012년), 전라북도(2013년), 충청남도(2020년), 제주도(2021년), 인천광역시(2021년) 등 7개 지역이다.

22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곳이다.²³ 그러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상당 수준에 달하며, 급기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수도 매년 증가하는 현실이다. 학업중단으로 진로 설정과 입시를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성인기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놓여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정규교육 수준과 성인기 노동시장 결과물과의 상관이 높은 경우,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학업 중단과 일탈 및 범죄행위와의 관련성 역시 이미 많은 연구에서 입증된 바, 특히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또래 집단으로부터 얻는 소속감과 동일시에 필요한 준거를 잃게 하고 소외감과 좌절감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²⁴

아동·청소년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참여권은 주체적 의사 결정권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11.0% 정도이고, 참여 활동 경험은 1.9%로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²⁵ 참여 활동이 어려운 이유로 시간 부족(31.7%)과 정보 부족(23.2%),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11.9%) 이외에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라는 응답도 29.6%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동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주체적 의사 결정권자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전환도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수원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로 2019년

23 김신영,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 보고서, 학교인권 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 전혜숙, 2022,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청소년 문화연구소, 139~170쪽; 이래혁,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4(4), 한국보건복지학회, 83~102쪽.

25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1~113쪽.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18.2%에 달하여 전국 평균 16.8%보다 높은 수준이다. 2015년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2017년 전국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아 아동의 권리와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²⁶ 수원시의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의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교육법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담당하는 국공립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비율은 각각 98%와 89.3%인 반면, 국공립 유치원은 48.4%, 국공립 고등학교는 70.5%로 나타나 의무교육을 제외한 교육 부문에 있어서 사립 교육기관의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²⁷ 학교 밖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시설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기 쉼터, 미인가 대안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아동 관련 복지생활시설로 공동생활가정이 13개소로 구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 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아동양육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복지이용시설로 초등돌봄교실이 230개소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63개소를 운영 중이다. 또한 수원시는 2016년부터 매년 아동권리 관점에서 재원과 사업을 분석하는 아동친화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년 수원시 아동 관련 사업은 총 475개, 예산은 5,650억 원 규모로 수원시 연간 예산 대비 23.7%를 점유하고 있다. 아동친화 영역별로는 가정환경에 아동친화 예산의 50%가 편중되어 있으며, 참여와 시민의식(0.2%), 안전과 보호(1.2%) 영역은 현저히 낮게 나타나, 아동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²⁸

3.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수원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19세 미만 아동·청소년 17명으로 하고, 초등학

26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27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베이스」.

28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생의 경우 심층 인터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비교적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 고학년으로 선정하였다.²⁹ 특히, 아동·청소년 인권에 취약할 가능성 큰 저소득 맞벌이, 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자녀를 비롯하여 교육환경 및 서비스 격차가 큰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이들의 인권상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표집은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수집을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유의 표집(purposive sampling)과 눈덩이 표집(snowballing sampling) 방식을 혼용하였다. 학교, 방과 후 돌봄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구참여자의 소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참여자를 섭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적합자를 선정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가정 아동·청소년 외에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다. 각 집단별 면접 참여자의 주요 특성과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청소년 집단인 경우 중고생 연령대의 경기도 내 청소년 참여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에서 활동 중인 청소년을 선별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중·고생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 대입 준비 중이거나 고졸 검정고시 학력 취득 준비 혹은 취업 준비 중인 15~20세 청소년이다. 두 집단 모두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활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데 익숙하였다.³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동으로 선정하였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수급자 혹은 차상위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저소득층 자녀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대상으로 보았다. 자신의 의견을 표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등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현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지역사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국제결혼 혹은 외국인 근로자 가정 청소년들로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 되기 쉬운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인

29 본 조사대상자의 일부는 연구자가 「경기도민 인권(차별) 실태조사 연구」(송영호 외, 2021)의 일환으로 실시한 아동·청소년 심층 면접조사 대상자를 포함하고 있다.

30 청소년 참여기구나 협의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각 집단의 청소년을 대표하여 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활동을 다양하게 하므로 각 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았고, 질적 연구에서 중요한 경험적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보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인권 의식이나 인권침해 경험 등 인권 감수성은 개인의 경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청소년 참여기구의 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만을 선정한 것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계점으로 밝힌다.

권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출신 국적, 연령, 한국 거주기간(입국 초기 2년차~10년차) 등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구체적인 면접 참여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청소년 심층 면접 참여자 현황

ID	구분	성별	학교급(연령)	개인별 특성
A01	일반 청소년	여	고2(18세)	일반고 / 맞벌이 가정
A02		여	중3(16세)	중학생 / 다자녀 가구
A03		여	고1(17세)	일반고 / 청소년의회 활동
A04		여	고2(18세)	특성학교 / 맞벌이 가정
A05		여	고2(18세)	일반고 / 학생 임원활동
A06	학교 밖 청소년	여	- (19세)	학업중단 시기(중2) / 자격증 취득/대입 준비 병행
A07		여	- (19세)	학업중단 시기(고1) / 대입 준비
A08		여	- (20세)	학업중단 시기(고1) / 자격증 취득/대입 준비 병행
A09		남	- (15세)	학업중단 시기(중2) / 고졸 검정고시 준비
A10		여	- (17세)	학업중단 시기(중2) / 고졸 검정고시 준비
A11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남	초6(13세)	지역아동센터 / 한부모 가정
A12		여	초6(13세)	지역아동센터 / 맞벌이 가정
A13		여	초6(13세)	지역아동센터 / 맞벌이 가정
A14	다문화 청소년	남	중1(14세)	조선족 / 지역아동센터
A15		여	중3(16세)	카자흐스탄 / 입국 2년차
A16		여	고1(17세)	중국 / 입국 10년차
A17		여	고2(17세)	고려인 / 입국 5년차

2)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 17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연구참여자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뷰 내용의 유목화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질문지에 인터뷰 진행 중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및 태도,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인권 감수성 등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 상황을 파악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

고, 이 외에 건강, 교육 및 진로, 안전, 여가 활동, 사회적 관계 등 일상적 삶의 질을 알아보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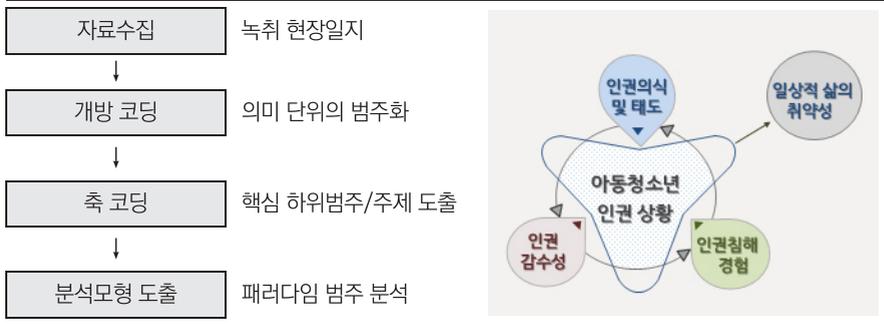
인터뷰 장소는 학교 및 각 기관의 상담실이나 회의실 등 연구참여자에게 익숙한 장소를 사전 협의하여 정함으로써 낯설지 않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자와 대상자의 일대일 방식으로 1회당 최소한 시간으로 정하여 진행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전화 혹은 온라인 면담을 진행하여 추가 정보를 획득하였다. 면담자료를 포화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 대한 심층 인터뷰뿐만 아니라 별도의 추가 면접을 통해 자료를 보완함으로써 질적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료수집 과정에서 일부 인터뷰 대상자의 경우 필요에 따라 2~3회에 걸친 면접과 전화 인터뷰, 결과 분석 후에도 의도한 바대로 구술한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연구 결과에 대하여 유관 기관의 기관장, 대학 교수,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관 실무자 등 3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 간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여 분석 결과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지오르기(Giorgi)가 제안한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4단계를 활용하였다.³¹ 먼저, 전사된 원자료를 숙독하며 모호하거나 정보가 더 필요한 부분은 2차 추가 면접을 통해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치고(1단계, 전체의 인식), 다음으로 의미의 전환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현상에 초점을 두어 텍스트를 의미 단위로 구성하였으며(2단계, 의미 단위 구분), 그다음 단계에서는 구분한 모든 의미 단위를 검토하여 적합한 학문 용어로 변형하였다(3단계, 학문적 용어로 전환). 마지막 4단계에서는 기술된 의미 단위에서 하위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일관성 있는 구조로 통합하여(4단계, 변형된 의미 단위의 구조적 통합) 최종적으로 분석을 종료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은 <그림 1>과 같이 개방 코딩과 축 코딩 방법을 통해 의미 단위 → 핵심 하위범주 → 범주로 체계화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에서 총 15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7개 주제로 정리하여 분류한 후 <표 2>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침해 경험과 일상적 삶의

31 전경숙, 2021, 「이주민 집중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9, 인천발전연구원, 309-368쪽.

취약성의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림 1〉 자료 분석과정 및 연구 분석모형

연구 윤리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적인 의견과 정보를 다루는 질적 연구에서 윤리적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점을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연구자는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결과 활용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면담내용은 녹음됨을 고지하고 인터뷰 도중이나 종료 후 분석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인터뷰 중단과 수락 철회가 가능함을 안내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고, 익명성과 연구종료 후 폐기 등을 약속하여 연구의 엄정성 확보와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노력하였다.

4. 연구결과

면접에 참여한 17명의 연구대상자는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인권 침해 및 차별 경험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교육 및 진로 준비 상황, 각종 폭력 등 위기 경험 및 사회적 관계망과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침해 경험 및 일상적 삶의 취약성을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뷰 내용의 유목화 작업

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에 반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질문지에 인터뷰 진행 중 개방형 질문을 추가하면서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집된 자료에서 총 15개 의미 단위를 도출하고, 이를 7개 주제로 정리하여 분류한 후 <표 2>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침해 경험과 일상적 삶의 취약성의 2개 범주로 구분하였다. 조사내용을 보고서에 인용할 때는 부여된 고유 숫자를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념하였다(예시 : A01, A04 등).

<표 2>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의 범주화

범주	주제	의미 단위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 및 인권침해 경험	인권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하여는 회의적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도 매우 엄격한 태도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
	인권 감수성 정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보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학교나 사회에서 직·간접적 인권침해 및 피해 경험 다수 학생 소지품 두발 검사 및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한 의견 차이
일상적 삶의 취약성 실태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에 기인한 신체 성장의 문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
	교육 및 진로 준비 상황	사회적 계층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 등 교육 격차 발생 진로 준비의 장벽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더 크게 직면
	각종 폭력 등 위기 경험	사이버폭력,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직·간접 경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체계 미흡
	참여 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활동 기회 부족 고민을 공유할 친한 친구의 부재

1) 아동·청소년 인권 의식 및 인권침해 경험

(1) 인권에 관한 인식 및 태도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하여는 회의적>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소 회의적이었다. 과거보다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

으로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다.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를 들며, 지역사회보다 가정과 학교 내에서 오히려 더 많은 차별과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청소년 의견이 기관 운영에 전적으로 반영되는 등 청소년 인권이 존중되는 측면이 있지만,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문제를 들었다. 교사도 학생의 이미지로 학생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있고, 학교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만으로 친구들이 뒷담화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로 저소득층 자녀로 구성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집단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은 응답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동·청소년 인권이 잘 존중받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이 태어나거나 거주했던 모국과 비교하여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은 잘 존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인권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현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경우 저연령층의 아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나 인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거나 깊이 생각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아직은 학교에서나 또는 가족에서. 가족은 가족이니까 존중을 받지만, 학교에서는 사회에서는 아직 인권 존중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물론 좋으신 분들 많지만 그중 몇몇 분들은 이 학생이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차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A03/여/고1/일반청소년)

한국이 더 존중. 한국 선생님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외국인이든 한국인 학생들이든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친절해요. 밥을 먹었나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학교를 어떻게 왔냐. 그런 거...(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훈육을 위한 체벌에 대하여도 매우 엄격한 태도〉

부모나 교사가 자식이나 학생의 훈육이나 지도를 위해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체벌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부모

나 교사는 학생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이지 그 과정에서 폭력이 행사되고 그 자체가 훈육과 지도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설령 체벌이 단기간 내에 훈육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청소년에게 평생에 걸쳐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체벌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반항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학생들한테 되게 엄청 거의 트라우마 수준으로 기억에 남는구나 싫어서 이게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체벌이라는 게...(A05/여/고2/일반청소년)

당장은 잘 따라올 수 있더라도 어디까지나 공포에서 비롯된 통솔이고 학생에게 평생 다음으로 남을 수 있는 지도는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A10/여/17/학교 밖 청소년)

체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인터뷰 참여자의 상당수에 달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부모의 체벌은 일부 허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부모의 경우 학원을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손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며, 맞을 만한 행동에 대하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체벌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그리고 저연령층 집단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오히려 허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³² 가족에 의한 체벌에 대하여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의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험이 많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체벌과 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무의식적으

32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상당수가 훈육을 위한 체벌에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 일반청소년의 경우도 여쩔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손지검을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는 해석임을 밝힌다.

로 차별에 허용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은 이 아이가 말을 해도 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손이 나가는 경우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차별하신다는 건 가족도 아니고 엄연히 따지면 남인데 남이 저를 때린다는 거는 기분도 안 좋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A03/여/고1/일반 청소년)

일단은 차별은 부모님은 조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은 차별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A11/남/초6/저소득층 아동)

부모님이 자녀를 차별하는 경우는 맞을 만한 행동을 했으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A16/여/고1/다문화 청소년)

부모님은 제가 잘못했을 경우 그걸 고쳐주려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생님은 자기가 그냥 화날 때 막 그럴 수 있어서 선생님이 때리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A13/여/초6/저소득층 아동)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각종 법이나 제도 등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나 인권 보장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인권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였다. 청소년 참여나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단편적으로 들어보긴 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대답이 대다수였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인지도(22.4%)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학생인권조례의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8.0%만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 인권 의식 수준이 매우 낮았던 것과 일치한다.³³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33 김영자·유설희·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2쪽.

사실 여기저기서 주위 들어보긴 했는데. 그대로 막 알아보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A05/여/고2/일반청소년)

유엔 그거 뭐라죠? 아동 권리 협약. 그거는 그냥 센터. 벽이 있길래 가끔씩 읽어보는데. 네. 그래서 알고 있긴 해요.(A11/여/초6/저소득층 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내용은 몰라요.(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2) 인권 감수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청소년 자신이 직접 경험한 불평등 사례와 평소 생각해 오던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피력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실제 취업 장벽이 너무 높고, 학교 밖에서 배우고 얻는 것들도 많은데 이것은 모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 현실은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나 전시회 등에 참여하려고 시도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경험은 사회적 차별이고 불평등이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었다. 한편, 각종 청소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했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불공평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었고 향후 개선점에 대하여도 의견을 제시했다. 학교 내 장애를 지닌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있으며, 고령화 시대에 노인 인권보장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취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학교 밖에서 배우고 얻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서 평등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A10/여/17/학교 밖 청소년)

사회에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전시회라던지 공모전 같은거 참여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데 학교 밖 청소년은 지원 못하게 하는 그런 대회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A08/여/19/학교 밖 청소년)

학교에 몇몇 정신적 장애를 지닌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나가면서 어떤 친구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를 받은 친구가 인상을 찌푸리면서 바로 앞에서 욕을 하면서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A05/여/고2/일반 청소년)

한편, 우리 사회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거의 모든 청소년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제노포비아)를 예로 들며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 삼았으며,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남녀 차별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배려 부족 사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수업이나 수행평가 과정에서 교사는 힘이 세고 체력이 좋은 남학생에게 여학생보다 더 큰 성과를 기대하고, 영어로 빼곡하게 작성된 카페의 메뉴판이나 출입 시 QR코드를 찍는 방법 등 영어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실이 바로 사회적 차별이라는 의견이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은 잘 보장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종에 같은 계급이어도 돈이 돈을 훨씬 적게 주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A08/여/19/학교 밖 청소년)

저는 그냥 뭔가 조금 국적이 다르거나. 그러면은 진짜 차별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게 아니어서 권리가 거의 다 동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A13/여/초6/저소득층 아동)

한편, 일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만이 가질 수 있는 혜택이 있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느낀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는데, 그 예시로

영화관 할인이나 청소년 멘토링 등을 들었다. 이는 자신이 성장한 나라 혹은 모국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나라의 제도나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인권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나온 견해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러 가지 혜택이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예를 들면 이제 영화관 가면 그 할인 해줘요, 청소년들한테. 약간 좀. 공부가 좀 빠세긴 하는데 그거만 빼면 괜찮은 것 같아요.(A16/여/고1/다문화 청소년)

우리 멘토링했어요. 한국어 멘토링. 멘토, 멘티.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한국어 교실도 하고, 이런 거 청소년만 되는 거니까 청소년들 혜택이 많다고 생각해요.(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보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명제가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대다수 청소년은 부정적 의견이다. 학교에서 출신 지역이나 외모로 인한 교사 혹은 친구의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에서 노인분들에 대한 배려 없는 행동, 길거리 노숙자들이 행인에게 차별받는 모습, 사회에서도 출신 지역이나 직업,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외모로 순위를 매기는 행태를 경험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커다란 충격으로 남은 경우가 있었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경험하는 인간의 평등권과 존엄성에 대한 청소년의 불신은 우리 사회에 대한 불합리와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방이냐 아니면 이 학생이 어느 나라 어느 나라인지 이 학생이 어디에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서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살짝 선생님들도 대하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A03/여/고1/일반 청소년)

저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의 나이, 직업, 지역 출신 외모 빈부 격차로 인해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나이에서는 노인들을 늙었다는 이유로 무시한다던가, 배려해주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공공장소에서 목격했구요. 그리고 직업과 학벌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모습도 여러 매체에서 목격했어요.(A02/여/중3/일반 청소년)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빈부격차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도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크다. 청소년들은 대학 입시 제도의 경우도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며 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 위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고, 가난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행을 사례로 들며 상실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 경험이 많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모든 인간이 갖는 평등권에 대한 공감도가 매우 낮았으며, 국적이나 피부색에 따른 차별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도 아직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있겠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돈이 많으면 뭔가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A06/여/19/학교 밖 청소년)

가슴에 와닿을 정도로 빈부 격차가 너무나도 심하다고 생각이 들었고...(A07/여/19/학교 밖 청소년)

빈부 격차에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깨달을 것 같아요. 진짜. 특히 이거 제 생각인데 지금 학생들의 입시 제도나 그런 것들이 다 거의 강남 위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사는 학생들 위주가 돼 있다고 느끼기도 했고...(A10/여/17/학교 밖 청소년)

(3)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

〈학교나 사회에서 직·간접적 인권침해 및 피해 경험 다수〉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겪고 있는 직·간접적인 차별이나 인권침해 사례는 다양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거나 외모나 장애로 인한 편견이나 놀림 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를 언급하였다. 문제는 장애 혹은 질병을 지닌 학급 동료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로 평가하는 투표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학생의 경우 외모나 몸매 등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가치가 매겨지는 분위기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또래 관계에서 소외당하지 않기 위해 혹은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하기 위해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년에 1회 이상 차별받은 경험 중 외모나 신체 조건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21.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³⁴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소년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심적인 혼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저는 차별을 받은 기억은 없고 본 적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소아병 이런 거 있는 학생이 있었는데, 장애라기보다는 소아 질병. 그 친구한테 남자애들이 장난으로 고백하거나 “야, 니 여자친구 해라.” 하고 욕하고 놀리는 애들이 있어서 그런 거 되게 보기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교 때. (A04/여/고2/일반 청소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반 내에서 친구들이 외모로 순위를 매겨서 투표를 하는 걸 목격했어요. 실제로 제가 그 대상이기도 했었고 바로 눈앞에서 봤었

34 김영자·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중략) 막상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겠고 한심하기도 하고...(A05/여/고2/일반 청소년)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차별과 인권침해를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과 무력감, 억울함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취업 준비과정에서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면접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공모전 참여대상에서 자격이 제한되고, 각종 요금 할인 시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낮에 학교에 있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유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모욕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이들의 정서를 피폐하게 하고 있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파트타임 알바를 할 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과 피해 경험을 토로하였다. 이 외에 재난지원금이나 백신 접종 등에서 외국인은 배제된다거나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놀림이나 무시, 차별을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낮에 전철을 타고 가는데 한 어른께서 너는 학교 안 가냐고 해서 제가 학교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이제 친구가 없을 텐데.. 하면서 앞으로 사회생활도 못 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가지고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A09/남/15/학교 밖 청소년)

애들한테 친하게 다가가려고 했는데 애들이 오히려 일방적으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전학 왔을 때는 신기하다고 했는데. 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왕따가 되어서 좀 놀림을 받았어요. 더럽다고 불으면 병균 같은 거 옮는다 하고, 그냥 부모님께 말씀 안 드리고 집에서 숨다시피 가만히 있었어요.(A16/여/중3/다문화 청소년)

〈학생 소지품 · 두발검사 및 교내 휴대폰 수거에 대한 의견 차이〉

학생 소지품 검사와 휴대폰 수거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닌 양면성이 있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취하기 어렵고, 두발 검

사에 대하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개인의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지품 검사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라이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므로 정기적인 소지품 검사가 아닌 특수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는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휴대폰을 수거하는 것도 교내에서 휴대폰 사용 시간이 줄어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활용하여 과제를 수행할 경우, 자료 검색을 하지 않고 SNS를 하는 등 팀 활동에 방해가 되어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휴대폰 사용을 교내에서 제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내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무조건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교사에게 요청하면 잠시 사용은 허락되므로 이 사안을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 폭력 발생이나 증거가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수거로 인해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들며, 휴대폰 수거의 부정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도 어려운 단어나 교사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 휴대폰으로 검색할 수 없는 상황이 불편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는 부정행위를 막아 주거나 또 어떤 학생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을 때, 라이터가 가방에 있는지 확인하는 이런 절차는 전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인권침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A01/여/고2/일반 청소년)

번역기를 쓰기를 위한 것이고 제가 그 번역기를 비교해서 이용하는 거죠. 하지만 수업하면서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A15/여/고2/다문화 청소년)

2) 일상적 삶의 취약성 실태

(1)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에 기인한 신체 성장의 문제〉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인지,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는지, 아픈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거의 모든 청소년이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아침 식사를 안 하거나 병원 진료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일부 있었는데, 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컸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늦잠을 자서 시간에 쫓기거나 입맛이 없어서 등을 언급하고 있어 경제적인 이유는 아니었지만, 부모가 일찍 일하러 가서 혼자 아침을 챙겨야 하는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부모의 돌봄 공백으로 생존권이 침해되는 상황이고, 특히 식생활은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는 잠은 잘 자는데 아침 식사는 좀 거른 적이 많은 것 같아요. 늦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입맛이 없을 때가 많아서 아침 식사를 안 먹은 적이 좀 많은 것 같아요.(A13/여/초6/저소득층 아동)

잠도 늦잠이지만 부모님이 일찍 출근하거나 이러면 챙겨주지 못하고 출근 하셔서 못 먹을 때도 있어요.(A11/남/초6/저소득층 아동)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어 진료를 미루거나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수술해야 하거나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비용 부담으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지인에게 약을 받아서 복용하도록 하는 등 의사의 진료와 소견 없는 심각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정착이 안정적인지 못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기본적인 생존권에 해당하는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크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엄마가 되게 많이 아프서 가지고 병원비가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봐 그러면 엄마가 병원 가지 못할 것 같아서 잘 안 가기도 해요.(A15/여/중3/다문화 청소년)

원래 여기 이가 아팠는데 그런 거예요, 무서워서. 옛날에 아파서 학교를 못 왔어요. 근데 병원도 안 갔어요. 왜냐면 의료보험 보험료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병원 가면 너무 비싸게 나오잖아요, 비용이. 그래서 못 갔던 거예요. 그냥 아는 지인들, 친척들이나 아는 사람들 이렇게 약을 받아서...(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하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스트레스의 경우는 중고생의 경우 거의 모든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은 집단별로 상이했다. 일반청소년의 경우는 주로 학업 성적과 진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고, 다문화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는 학업이나 성적 이외에 게임, 교우관계, 형제관계에서 의견 충돌, 가정 내 문제, 부모와의 갈등 등 다양했다. 학교급에 따른 응답의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초등학교생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다는 경우도 절반 정도로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와 가정, 개인 생활 영역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제 진로 고민 때문에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스트레스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중3인데 고등학교에 가서 수시로 원서를 쓰기 위해서는 고1 때부터 이제 진로를 정하고 세특이라든가 이런 걸 진로 관련해서 채워야 하는데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저 자신이 너무 빨리 정해야 되는데 하면서 압박감에 약간 시달리는 것 같은 거예요.(A02/여/중3/일반 청소년)

네. 일단 어 스트레스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또 예를

들어 팀원이 잘 못하거나 아니면 모트를 하는 경우는 진짜 짜증나요 그럴 때는. 그때는 스트레스가 많이 돼서 욕도 조금 하는 것 같고...(A14/남/중1/다문화 청소년)

스트레스를 경험하다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행복하지 않고 평소 우울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고 심경을 밝히고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을 지닌 청소년의 경우 일상적으로 우울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 속으로 내면화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하면서 버티는 것이다.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가까운 친구도 없고, 부모님은 늘 힘들게 일하고 귀가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 줄 상황이 아니거나 고민을 상의할 정도로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았다. 외부 상담기관이나 교내 상담 교사를 찾아가 보려는 생각도 하였지만,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담임 교사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쉽게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고 익명 보장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교내의 상담 기관이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낮설었고 제가 좀 성격이 소심한 편이어서 약간 친구들이랑 잘 못 어울려 다녔거든요. 혼자 있다 보니까 그거 좀 생각도 했어 가지고 우울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 때 그냥 평소대로 지내는 것처럼 엄마가 오면 웃어야 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범해 지냈어요.(A15/여/중3/다문화 청소년)

얘기할 사람이 있어도 얘기를 안 해요. 뭔가 솔직한 감정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요. 심리 상담 대화를 했는데 어떻게 제가 예를 들어서 자해를 했다. 자살 시도를 했다 이런 거를 했다 쳐요 그러면 그걸 무조건 다 저희 담임선생님께 알려 바쳐가지고. 그 얘기가 할머니 귀에도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담받는 것도 싫어하고 솔직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폭로해 버릴까 봐...(A16/여/고1/다문화 청소년)

(2) 교육 및 진로 준비 상황

〈사회적 계층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 등 교육 격차 발생〉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와 진로 준비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현재 사교육을 받고 있는지와 장래 희망하는 직업 및 진로 준비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사교육은 학교급 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상당수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국·영·수를 비롯하여 예체능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다만,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 집단의 경우 대부분 사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으며,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으나 비용 부담 때문에 부모에게 말을 못 하거나 부모가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여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로 학원은 안 다니고 다니고 싶은 학원은, 미술 학원이요, 엄마는 거기로 가는 것을 돈도 못 번다고 해가지고 아직은, 나중에 한번 해보라고 해 가지고...(A11/남/초6/저소득층 아동)

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혼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집에서 추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얘기를 안 해요. 학원 다니고 싶다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너무 비싸요.(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진로 준비의 장벽은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이 더 크게 직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미래와 진로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대다수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로 인해 조급함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그나마 교내 진로 상담 교사와 담임 교사의 도움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한국어에 어려움을 지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 준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 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대학 진학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는 진로에 대하여는 무방비 상태인 듯 보였다. 미래와 진로 준비도 다문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더 큰 장

벽으로 다가와 있었다.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학업 중단으로 진로 설정과 입시를 위한 정보와 기회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성인기 노동시장 진입에서의 불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장기간의 실업 상태에 놓여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³⁵ 특히 한국 사회와 같이 개인의 교육적 성취 수준과 성인기 노동시장 진입의 상관관계가 높은 경우, 청소년기 학업 중단이 성인기 이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저는 아직도 몰라요. 계속 고민중이에요. 저는 이게 스트레스예요. 진로 고민은 담임 선생님? 상담사? 엄마랑은 또 많이 상담 해봤죠, 아빠도. 근데 뭐 그래도 마지막 저의 결정이잖아요. 제가. 근데 아직 저는 몰라요.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중략)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한국말을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원어민처럼. 저는 그게 아직 조금 고민이 되고 못할 것 같다, 약간 그런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A17/여/고2/다문화 청소년)

(3) 각종 폭력 등 위기 경험

〈사이버폭력,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직·간접 경험〉

학교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폭력, 성희롱, 성추행, 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가장 많은 청소년이 언급한 것은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 이었고, 가정폭력의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 경험을 얘기한 경우가 있었으나 소수에 불과했고, 성추행 경험과 아동학대의 간접 경험 등 다양했다. 특히 SNS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외모를 보고 평가하여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공격하고, 단톡방에 특정인을 초대해서 비난과 욕설을 한 다음 초대된 특정인만 남겨 두고 모두 퇴장해 버린다거나 치마를 입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35 전혜숙, 2022,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청소년 문화연구소, 139~170쪽.

희롱이 담긴 심한 언어폭력 행사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 경험을 토로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도 여학생들은 언급하고 있었는데, 교사로부터 경험한 성추행과 성희롱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거나 혹은 심각한 수준에 비해 경미한 조치로 끝나버리는 사건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제기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부모님께 전하여 학부모가 개입해야 학교는 교사를 처벌하고 움직인다고 얘기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혹은 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사건에 맞서는 것이 청소년에게는 어려운 일임을 토로하였다.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외에,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발생하는 성추행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지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무방비로 있다가 남학생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당황하는 순간 가해자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여 놀라고 기분이 상했다는 사례를 면담 과정에서 제시했다. 가해자의 얼굴도 몰라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중학교 때 사이버 폭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친구를 카톡방에 초대를 해놓고 다른 친구들이 욕을 한 다음에 그냥 그 친구만 남겨두고 나가요.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A05/여/고2/일반 청소년)

주변에서는 잘 몰라도 저한테는 한 번 성추행 비슷하게 그런 적은 있긴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급식 먹으려고 손 씻으러 가려고 했는데 저희 4학년 층에는 따로 물이 안 나온다고 해서 6학년 층으로 가서 손 닦고 친구랑 손잡고 가려는데 어떤 6학년 남자 애가 와가지고 치마 들추고 그 안에 있는 팬티 쪽까지 그걸 만지고 갑자기 튀었어요. 괴로웠어요.(A16/여/고1/다문화 청소년)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체계 미흡>

각종 폭력 등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거나 받아 본 경험에 대하여는 상당수가 부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지니고 있었다. 폭력 현장을 목격하는 등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에도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는 청소년이 일부 있었고,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가정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결론지어져 도움을 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알코올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식으로 가해자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어 사회에서 약자가 보호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센터는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한 언어폭력이나 성희롱에 대처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방과 후 돌봄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상담하여 학교 폭력 신고 및 학폭위를 개최하도록 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달 전문기관과 함께 모니터링을 하는 등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움을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하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라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했을 때 정말로 경찰이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상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나 그런 것들만 봐도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가정일은 가정에서 해결해라. 왜 경찰에게 얘기하냐 하거나 일과 그냥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가해자를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아직도 사회에서 약자가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A07/여/19/학교 밖 청소년)

반 친구들한테 언어적으로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문자 봤는데 그러니까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채팅창에다가 그 아이를 놓고 했더라고요. 남자 친구들이. 그래서 그거 보고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으로 신고하고 학교에서 이제 학교폭력위원회 열려서 해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A01/여/고2/일반 청소년)

(4) 참여 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참여 활동 기회 부족〉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차세대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에 활동 경험이 있는지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거나 거리 집회 등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매우 극소수만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일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참여기구가 일정 비율 취약계층 청소년을 참여하도록 하는 운영 기준을 두어 그나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청소년 인권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정책 제안서를 작성해 볼 기회를 제공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외, 학교 밖 청소년과 유사하게 사회적 취약집단에 해당 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 참여기구나 사회참여 활동 경험이 거의 없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수원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써, 수원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아동친화 영역별로 가정환경에 아동친화 예산의 50%가 편중되어, 참여와 시민의식(0.2%), 안전과 보호(1.2%) 영역은 현저히 낮은 결과³⁶와 무관하지 않아 아동의 참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법을 어디까지 있는지 파악하고 이제 어떤 법을 개선 아니면 만 들어서 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의견을 모아서 보내는 걸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 밖 친구는 사실 얼마 없었어요. 저랑 제가 같이 가자 해서 간 친구. 그렇게 들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그렇게 법안을 만드는 활동을 해 봤었어요.(A06/여/19/학교 밖 청소년)

거리 집회는 아쉽게도 못 해봤는데 제가 학교 밖 토론 정책 제안서를 제출 해서 인터넷 카페에도 올라오고 실제로 인증한 적이 있었어요. 자발적으로

36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거리 집회나 이런 데 나가본 적은 아쉽게도 없어요.(A10/여/17/학교 밖 청소년)

저는 예전에 촛불집회 한 번 나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가서 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하루만 나가고 그냥 바로 그만뒀었어요.(A03/여/고1/일반 청소년)

〈고민을 공유할 친한 친구의 부재〉

청소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원하고 친구 관계를 중시하는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인터뷰에 응한 청소년 참여자들은 평소 고민거리를 얘기할 친구가 많은지에 대하여 소수만 개인적 고민을 친구와 공유한다고 얘기했고, 고민까지 얘기할 친한 친구는 별로 없거나 극소수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특히 친구를 사귀거나 가까워지는 데 어려움이 많은 다문화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엔 함께 놀거나 다니는 친구는 있지만, 고민을 얘기할 친구는 없다고 한다. 학업이나 진로,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고민과 위기에 직면하는 청소년기에 문제해결의 시발점과 창구라 할 수 있는 친근한 친구의 부재는 향후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사회로의 진입과 적응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일단 친구는 몇 명 있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얘기할 정도의 친구는 없어요.(A14/남/중1/다문화 청소년)

지금은 이사했기 때문에 맞는 카자흐스탄 친구들이랑 이제 소통하기를 멈췄어요. 그래서 지금은 적은 편이에요.(A15/여/중3/다문화 청소년)

5.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 면접에 참여한 17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먼저, 인권 의식 및 태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청소년 인권 존중에 대하

여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훈육을 위한 체벌에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에 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 보장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고, 학교나 사회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상적 삶의 질 수준을 아동 4대 권리의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생존권)은 취약계층의 경우 돌봄 공백에서 비롯된 신체 성장의 문제가 발견되었고,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및 진로 준비 상황(발달권)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사교육의 차이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진로 준비의 장벽에 직면하고 있었다. 각종 폭력 등의 위기 경험(보호권)은 사이버 폭력, 학교 내 성희롱과 성추행의 직·간접적 피해 경험을 호소하고 있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체계가 미흡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참여 활동 및 사회적 관계망(참여권)의 경우 사회참여 활동 기회가 전적으로 부족하며 고민을 공유할 친구가 부재함이 확인되었다.

인터뷰 참여자를 일반청소년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으로 그룹핑하여 집단 간 차별성이 있는 확인한 결과, 집단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인터뷰 내용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배제, 강남 위주로 밀집해 있는 학원가 등 언급)에 대해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 경험이 더 많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돌봄 공백,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료서비스 공백, 사회적 계층에 따른 사교육의 차이로 교육 격차 발생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인권침해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연구가 다양하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논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수원시 아동·청소년 대상 질적 조사 결과는 매년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실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인권 의식이나 차별 경험,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

를 다음과 같이 논의하며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연구 결과에서 밝혀졌듯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사회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인권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정부 차원의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 결과,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이나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이 1/3에 달하고(30.1%), 연 1~2회 정도 신체적 차별을 경험한다는 응답도 23.1%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 피해 경험률은 욕설 및 모욕 18.8%로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³⁷ 교사가 학생의 이미지로 판단하여 차별하는 경우가 있고, 생활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학생들이 뒷담화하거나 무시하는 등 학교에서도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 혹은 질병을 지닌 학급 동료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모로 평가하는 투표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소년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대처 방법을 몰라서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어 효과적인 인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 경험이 더 많았는데,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실제 취업 장벽이 너무 높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공모전이나 전시회 등의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의 경험이 있었다. 각종 요금 할인 시 학생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낮에 학교에 있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니는 이유로 어른들로부터 받는 인격적인 모욕 등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의 인권침해 경험이 있었는데,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외모의 차이로 인한 놀림이나 무시, 차별, 그리고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낮게 주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차별과 피해 경험을 언급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에 참여한 상당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훈육을 위한 체

37 김영자·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0쪽, 131쪽, 138쪽.

별에 대하여 허용적인 태도를 가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대다수가 어떠한 경우도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체벌이 단기간 내에 훈육의 효과가 크다고 해도 청소년에게 평생에 걸쳐 정서적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만, 면접 참여자의 상당수에 달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원을 빠지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경우 부모가 손바닥을 때리는 정도의 체벌은 가능하며, 맞을 만한 행동에 대하여는 감정이 섞이지 않은 체벌은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오히려 허용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문화의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저소득층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 경험이 많은 아동·청소년일수록 체벌과 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어 무의식적으로 체벌에 허용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하여도 불신과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으로 청소년기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출신 지역이나 외모로 인한 교사 혹은 친구의 차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에서도 출신 지역이나 직업,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는 등의 사례를 들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로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불평등과 인권침해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과 혐오,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남녀 차별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노인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사회적 차별을 언급하였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빈부 격차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받는 사회적 차별, 대학 입시 제도의 경우도 부유층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며 학원이 밀집해 있는 강남 위주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사고가 시작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을 반영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보장 수준이 낮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생존권과 발달권 측면에서 살펴보면, 취약계층 자녀의 경우 돌봄 공백에 기인한 신체 성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상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아침 식사를 안 하거나 병원 치료를 하지 않는 청소년이 일부 있었는데, 주로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로 나타나 시사하는 바가 컸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유로 부모가 일찍 일하러 가서 혼자 아침을 챙겨야 하는 돌봄의 공백으로 인한 이유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창궐한 시기의 돌봄 공백으로 인한 생존권의 위협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지역의 돌봄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아동은 식사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여 결식으로 인한 신체 발달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³⁸ 스트레스와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는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감정과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기보다 속으로 내면화하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생활하면서 버티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쉽게 꺼내어 이야기할 수 있고 익명 보장과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교내외 상담 기관 확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동·청소년의 발달권을 대표하는 교육 및 진로 준비 상황도 취약계층 자녀의 경우 격차가 크고 장벽이 높다. 다문화 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사교육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미래와 진로 준비도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저소득층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더 큰 장벽으로 다가와 있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그나마 교내 진로 상담 교사와 담임 교사의 도움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다양한 직업 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과 한국어에 어려움을 지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 준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보호권과 참여권에서도 취약성이 드러난다. 학교 폭력, 가정폭력, 사이버폭력, 성희롱, 성추행, 아동학대 등 각종 폭력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위기 상황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이며,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38 김선숙·조소영·이정애,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동과 권리』 24(3), 409-438쪽.

의견을 개진하는 참여권 보장은 4대 아동 인권 중 가장 취약하다.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 실태조사 결과, 아동총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 정책 참여기구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인지도 및 활동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11.0%만이 알고 있었고, 그 중 1.9%만 참여기구 활동을 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알고 있으나 경험 없음 9.1%) 참여 경험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³⁹

SNS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 내에서 성희롱과 성추행 등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상황에 고충이 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및 지원체계가 미흡하여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센터는 위기 상황이 더욱 악화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학업과 진로 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 시기는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정체감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참여 활동에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므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 관련 인지도는 매우 낮으므로 청소년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나 경기도 인권기본계획, 각종 법이나 제도 등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나 인권 보장에 대하여 거의 모르고 있었으며, 인권에 취약한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에서 인지 수준이 더 낮은 경향이였다. 전국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30.5%, 학생인권조례는 응답자의 51.8%, 국가인권위원회 23.3%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더 낮은 수준 이었다.⁴⁰ 청소년 참여나 권리에 관한 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조차도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나 인권 관련 법이나 제도 등을 단편적으로 들어보긴 했으나 구체

39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10쪽.

40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77쪽.

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교육이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시 청소년의 학업중단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학교 밖 아동 및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한 대안이기도 하다. 학교를 떠났다고 해서 교육이 중단된 것은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생 청소년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양한 교육적 혜택에서 배제되어 교육 양극화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성적에 맞는 학교나 학과를 안내하여 주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대입 상담을 받기가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서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진로와 자립역량 개발을 위한 각종 교육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실제 취업 장벽이 너무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배우고 취득한 성과를 인정받아 원활한 사회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전시회, 각종 지원 사업 응모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인 진로 준비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을 좀 더 체계화하고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그나마 교내 진로 상담 교사와 담임 교사의 도움과 상담을 받기도 하고 여러 직업탐색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 준비가 가능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진로 준비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더욱 견고한 진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의 경우 특화된 청소년시설과 기관이 많은 점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해 볼 수 있다.

둘째,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청소년, 장애 아동, 다문화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수원시에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은 지역,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된 지역 등 지역적 특성이 뚜렷하여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유엔아동권

리위원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이 교육 및 국가가 제공하는 보호 체계 접근에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사회적 약자이면서 동시에 소수자인 중복 차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발달을 위한 치료 환경이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최소한의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전문 돌봄 인력이나 기관이 부족한 현실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경우는 의료보험 가입이 안 되어 진료를 미루거나 못하는 상황, 수술해야 하거나 상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면접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정착이 안정적이지 못한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기본적인 생존권에 해당하는 건강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폭력적 행태와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온라인 폭력 및 학교 폭력을 포함한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 가정 내 재학대의 높은 발생률 및 제법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책의 부재함을 강조하며 대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2017년 아동친화 도시로 인증된 수원시의 경우, 안전과 보호 영역의 예산은 전체 아동 친화 예산 중 1.2%에 불과하여 관련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면접에 참여한 대다수 청소년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괴롭힘, 폭력, 비난과 욕설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대한 기성세대의 관심이 낮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최근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학생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대처가 필요하다. SNS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적인 행태는 매우 심각하여, 외모를 보고 평가하여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공격하고, 단독방에 특정인을 초대해서 성적 비난과 욕설, 조롱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은 심각한 수준임이 면접조사 결과 드러났다. 학교 폭력의 유형과 정도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한 양상으로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취약계층 자녀가 밀집된 지역이 많은 수원시의 경우,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부모 대상 아동 인권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아동 권리교육 및 인권

교육의 보장은 우리나라 제 5, 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하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할 경우 가정에 홀로 남겨진 자녀는 쉽게 방임 상태가 되어 생존권 및 보호권에 위협을 받게 된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과 아동·청소년을 지도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지도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녀를 1차적으로 보호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현실이다. 부모의 돌봄 공백은 방임이 될 수 있고, 방임은 곧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아동 인권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현행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운영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인터뷰에 참여한 모든 청소년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으며, 향후 교육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어 실제 생활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와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 교육, 사이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문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 노동인권 교육 등 사회적 이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성폭력이나 성희롱, 성매매 등의 주제도 인권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주제이고, 양성평등 문제도 결국 인권의 측면에서 다룬다면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집합교육 혹은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에서 쌍방향의 체험식 교육, 즉 관련 영상 관람 후 자유토론 혹은 관련 주제에 대한 그룹 토의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상대방에 대한 공감 능력을 나타내는 인권 감수성은 일방적인 설명 형태의 교육보다는 불편함이나 차별을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식의 교육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수원시 아동·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인권상황을 파악하고 권리증진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원시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도시로서 18세 미만 아동 비율이 전국 평균 보다 높고, 2017년 전국에서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된 수원시의 아동·청소년 권리보장과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국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실

태조사의 주요 결과와 본 연구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 수원시 아동·청소년 대상 질적 조사 결과는 인권 의식이나 차별 경험,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점은 중요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 비중이 높고, 학교 밖 청소년 수가 많으며, 저소득층 자녀가 밀집된 지역이 많은 수원시의 아동·청소년 성장환경을 고려할 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수원시가 그 실천적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 대상을 수원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 17명에 국한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하위집단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심층 면접 참여자의 성비가 여성이 과잉 표집되어 인권 인식과 인권침해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남녀 성비를 균형적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여러 하위집단별 경험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3년 4월 30일 심사일 2023년 6월 15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30일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 2020, 「유엔 인권조약기구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교육부, 질병관리청, 2022, 「제17차(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 세종: 교육부, 질병관리청.
- 김신영,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 학교인권 환경이 학업중단 의사에 미치는 영향 -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최홍일·유성렬·이은주, 2022, 「20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유설희·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1, 「20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황세영·최홍일·이민희·김진호,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지,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김상원, 2020, 「아동권리협약 일반이행조치가 한국 법제에 미친 영향. 범무법인 유한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공동(편.)」,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 413~457쪽.
- 박환보·주경, 2020, 「2020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심화분석보고서-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법무부, 보도자료(2022년 5월 3일),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https://www.moj.go.kr/bbs/moj/182/558819/artclView.do>)-2022년 9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9, 「대한민국 제 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송영호·김기영·김선기·이은아·전경숙·최정규, 2021, 「경기도민 인권(차별) 실태조사 연구」, 경기도.
- 서영미, 2018, 「지방정부의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탐색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12(2), 한국지방정부학회, 383~407쪽.
- 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년 12월 2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하는 아

- 동정책영향평가 첫 1년(<https://www.ncrc.or.kr/ncrc/na/ntt/selectNttInfo.do?mi=1055&bbid=1022&nttSn=3150&cataGori=&tabName=>)-2022년 9월 1일 인출.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영향평가 홈페이지(<https://child.ncrc.or.kr/>).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2006.
- 이래혁, 2022, 「학교 밖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사고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학업중단 기간에 따른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복지』 24(4), 한국보건복지학회, 83~102쪽.
- 이영안·한연주·김은정·박범준, 2019, 「제2기 수원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9~2023)」,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 2020,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2020 수원시 아동친화도 조사」, 수원시정연구원.
- 이영안, 2017, 「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2018-2021)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 전경숙, 2021, 「이주민 집중거주 지역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19, 인천발전연구원, 309~368쪽.
- 전혜숙, 2022, 「학업중단의도를 가진 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청소년문화연구소, 139~170쪽.
- 정익중, 2020, 「코로나19 전후 일상 변화와 아동 행복」,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변화와 아동 행복포럼자료집』,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최승원, 2022, 「아동기본법 제정 기본방향. 제5회: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사회를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방향」, 아동을 권리주체로 존중하는 사회를 위한 기본법 제정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 한국교육개발원, 2019, 『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베이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수원시 아동·청소년의 인권 의식과 태도, 인권 감수성, 인권 침해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수원시 거주 아동·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하여 수집한 자료를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4단계 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일반 아동·청소년 외에 저소득층 자녀,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인권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에 관한 법과 제도 관련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아동·청소년 인권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과 다문화 청소년 집단이 훈육을 위한 체벌에 오히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평등과 인권침해 문제가 만연되어 있는 것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이 높았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및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일상생활에서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 아동 4대 권리가 잘 보장되지 않아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 보장과 사회적 불평등 개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정책적 고려와 지원, 학교폭력 근절과 가해자 처벌 강화, 돌봄 공백 문제 해소를 위한 부모 대상 아동 인권 교육 강화, 현행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운영 방식 혁신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 17명 대상의 심층 면접조사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양적 조사를 통해 여러 하위집단별 인권 의식과 태도, 인권침해 경험과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아동·청소년 인권, 인권 의식과 태도, 인권침해 및 차별, 인권 감수성, 권리보장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Status of Human Rights and the Guarantee of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uwon City

: Focusing on the four basic rights of children in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Jun, Kyung Su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n-depth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s,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human rights infringement experience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Suwon city, to seek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their rights. The data collected by in-depth interviews with 17 children and adolescents living in Suwon city were analyzed using the four-step analysis framework of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particular, policy implications were derived, including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low-income families, out-of-school youth, and multicultural youth in addition to general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awareness related to laws and systems on guaranteeing children and youth rights was very low, and low-income and multicultural youth groups, which may be relatively more vulnerable to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howed a rather acceptable attitude toward physical punishment for discipline. There was a high distrust and negative perception of the widespread inequ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socially vulnerable groups had relatively many experienc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In everyday life, the four major rights of children, such as the right to live, development, protection, and participation, were not well guaranteed, revealing vulnerabilitie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it proposed securing educational rights of out-of-school youth and improving social inequality,

special policy considerations and support f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youth,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nd punishment for perpetrators, strengthening child human rights education for parents.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in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in-depth interviews with 17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future, a follow-up study is needed to analyze human rights awareness and attitudes, human rights violations experiences and actual conditions by various subgroups through quantitative surveys reflecting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Key words :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uman rights consciousness and attitud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discrimination, human rights sensitivity, guarantee of rights

수원시 도시하천의 생태문화적 해석 및 관리방향*

이도이**

1. 서론
2. 연구방법
3. 결과 및 고찰
 - 1) 수원천 2) 서호천 3) 원천리천 4) 황구지천
4. 결론 및 관리방향

1. 서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도시에 있는 하천과 저수지는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형성하며, 지역민의 산책, 운동 등 여가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생태문화적 공간이다. '생태문화'란 생태와 문화의 합성어로, 사전적으로 생태(生態)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이나 상태를 의미하고, 문화(文化)는 사상, 의상, 언어, 종교, 의례, 법이나 도덕 등의 규범, 가치관과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 또는 사회의 개인이나 인간집단이 자연을 변화시켜 온 물질적·정신적 과정의 산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문화는 '자연을 이용하여 살아가는

* 본 연구는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연구논문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논문입니다.

** 수(水)생태문화연구소 대표(CEO, Research Institute of Water Ecological and Culture), E-mail : jledoi0361@gmail.com, Tel : 010-5083-5731

인간의 삶이 만들어내는 유·무형의 생활양식'이다.¹

수원(水原)은 지명에 나타나 있듯이 물의 도시로 광고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모여 만든 크고 작은 하천이 발달되어 있다. 도시의 정체성은 역사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다. 수원시의 도시 정체성은 자연을 이용하여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는 당연히 물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수원시는 수도권 도시로서 산업화와 더불어 도시 공간과 자연환경이 급속하게 바뀐 도시이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하천 유역의 구릉지를 개발하여 도시공간을 확장시켜 옴에 따라 하천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 구조가 변화되었고, 자연하천과 다른 기능과 특성의 도시하천으로 변모하였다.

도시하천은 도시 생물들의 서식처, 도시 열섬 저하 및 바람 통로, 대기 및 수질 오염 정화의 환경적 기능뿐만 아니라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도시민들의 어메니티 기능으로서도 중요한 공간이다.² 도시하천은 생태 기능과 어메니티 기능을 통합한 관리가 필요하며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하천의 이해가 요구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하천의 물리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하천에 대해 문화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과거부터 수계가 발달한 수원을 대상으로 자연하천이 인간의 이용과 개발에 의해 도시하천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와 하천의 생태 변화와의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수원시 도시하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생태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생태문화적 해석의 근거 학문은 경관생태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생태학은 생물공동체와 그것을 둘러싸는 환경조건 사이에 존재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현상을 해명하는 학문³이기 때문이다. 경관생태학의 용어는 1939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www.encykorea.aks.ac.kr/>).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6,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방안/추진전략」.

3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19쪽.

년 독일 생물지리학자 Carl Troll이 아프리카 토지이용과 개발의 문제점을 연구하면서 경관에 대한 항공사진 분석의 무한한 잠재력을 인식하고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이란 용어를 만들었다. 그리고 1963년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식생회의 ‘식물사회학과 경관생태학’의 심포지엄에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이 각각 분석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반대하고 종합적인 접근과 평가 및 해석하고자 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에 의해 발전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경관생태학에 대한 다양한 정의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1980년대는 지역연구, 인간문화, 미학, 토지평가 등이 경관생태학에 통합되었다.⁴

생태문화에 대하여 『경관생태학』(2004)에서 생태학과 문화를 결합하여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융·복합적 의미로 정의하였으며, 생태문화는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바탕으로 문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생태문화적 해석과 관련하여 경관생태학의 이론이 적용된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신영호 등⁵은 외암마을 물길을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능들은 인문적 관점에서 활용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분석의 틀로서 경관생태학에서 제시된 통로(corridor)의 개념을 활용하여 마을 물길을 공급원, 도관, 서식처, 여과대, 장벽, 수용처 등 이동 통로로 추가적인 에너지가 요구되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물길로 해석하였다. 허명진(2019)은 제주 올레길의 생태문화자원에 대해서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자연에 적응해 오면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전통 생활문화에서 유추할 수 있고, 지역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경관생태학(Landscape Ecology) 개념을 도입하여 생태(Ecotope)와 문화(Anthropotope)의 상호관계를 해석하였다. 이상희 등⁶은 북촌지역 바위 글씨에서 내포된 의미와 상징성, 자연관(생태사상)의 문화적 특성과 바위암각이 위치한 장소의 지리·지형적 특징, 주변 자연환경 등 생태적 특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4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경관생태학의 발전」, 『경관생태학』, 보문당, 2004, 23쪽.

5 신영호·채혜성·이은석·이다혜·신필식·양세진, 2011, 「외암마을 물길의 경관생태학적 해석」, 『국토지리학회지』 45(3), 427-4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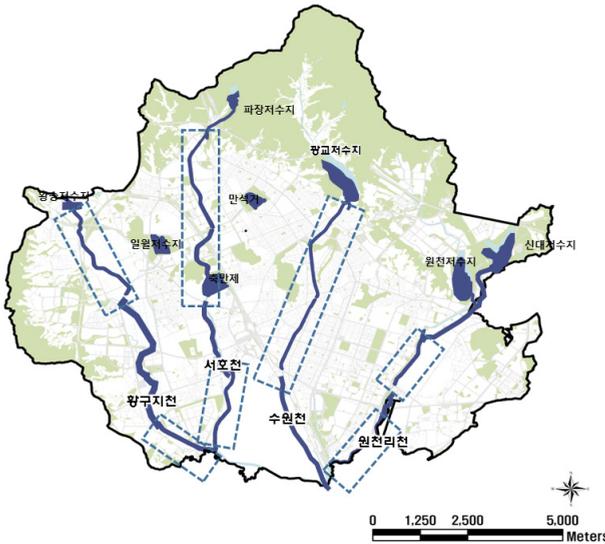
6 이상희·강수학·구분학, 2015, 「북촌지역 바위글씨에 나타난 생태 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78-181쪽.

지역은 문화의 다양함이 공존하는 생태문화 공간으로 지역 공간에 대한 생태문화적 독해는 지역민들이 생태환경과 함께 호흡하면서 오랫동안 생명을 영위해 온 삶의 방식 즉, 생태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을 읽는 방식이며, 지역 공간을 문화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역 공간속에서 구축된 삶의 체계를 통합적으로 읽기 위함이다.⁷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지

연구대상지는 수원시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며 주요 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으로 하였다(그림 1).



〈그림 1〉 연구대상지

7 조명래, 2007, 「생태적 지역발전 페러다임의 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7~106쪽.

2) 조사분석방법

(1) 문화적 특성

문화적 특성 항목은 주변 토지이용, 문화자원, 친수시설로 한정하였다. 주변토지이용은 생태문화적 해석의 중요 요소⁸ 중의 하나로 해당 지역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문화자원은 자연하천을 인간의 이용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므로 문화자원을 통해서 시대적인 도시변화와 하천 변화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친수시설은 도시하천이 생태적으로 복원되면서 어메니티 기능이 하천에 포함되었으며, 도시민들은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토지이용은 수원시 비오톱 유형도(2019)를 토대로 제방으로부터 블록단위(필지단위)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천 주변 토지이용과 과거 하천 유역 시가지 분포를 도시기본도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문화자원은 연구대상지를 대상으로 도시 형성부터 현재까지 인간 이용과 도시 개발로 인해 형성된 유·무형의 역사·인문·경관 등 문헌 연구를 통해 추출하였다. 분석은 문화자원이 도시 변화와 하천 변화에서 미친 영향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친수시설은 비오톱 중에서 산책로, 운동시설, 쉼터 등 하천 내 조성된 친수시설에 대한 면적 및 비율로 분석하였다.

(2) 생태적 특성

생태적 특성 항목은 하천구조 변화, 비오톱, 야생조류로 한정하였다. 하천의 생태성은 제방과 하도의 구조물에 의해 유로와 유속 변화의 영향을 받는다. 보와 낙차공은 유수가 하류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생물의 이동, 물질 자정 기능 등을 방해한다.⁹ 하천 생태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하천구조 변화를 연구항목에 포함하였다.

8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9 『진위천 하천기본계획』, 2014.

비오톱의 개념은 습지, 산림, 초지, 호소 등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경관은 비오톱의 모자이크 모양으로 모인 것¹⁰으로 생물군집의 서식공간, 서식공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며 주변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는 공간으로 하천 공간 연구에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야생조류는 생태계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야생조류 서식에 유리한 생태계일수록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태계이다.¹¹ 야생조류 중 물새류는 하천 식생의 상위 소비자로서 하천에 물새류의 출현은 해당 하천의 생태계 질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하였다.

하천구조 변화는 유로 변화와 하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유로 변화는 항공사진과 제방 축조 현황을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하도 변화는 하도 내에 존재하는 보와 낙차공으로 분석하였다. 하천 제방 조성과 하도 내 보와 낙차공은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stream.go.kr)을 참고하였으며, 항공사진은 국토정보지리원(www.ngii.go.kr)에서 획득하였다.

비오톱 조사는 4개의 하천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장 조사는 2021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하천의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환경이 유사한 것은 대표적인 구간만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1/1,000 축적의 수치화 지도 및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대상지를 정밀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AutoCad map 3D 2018 프로그램과 ArcMap 10.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면화하여 분석하였다. 비오톱 조사의 블록은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수로, 호안, 둔치, 제방을 각각 별도로 구획하였으며, 블록의 최소 면적은 5m²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수원시(2019) 비오톱 유형분류기준을 참고로 하천식생은 목본식생지, 초본식생지, 조성녹지, 수면 및 퇴적지, 시설지의 5개 중분류와 목본식생은 자생목본과 외래 목본식생지로 소분류하였으며, 초본식생은 습지자생초지, 건조자생초지, 외래중초지로 소분류하였다. 조성녹지는 조경수식재지와 원예초본식재지로 소분류하였으며, 시설지는 체육시설, 산책로, 기타 시설지로 총 10개의 소분류하였다. 시설지에서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은 친수시설로 판단하였다.

야생조류 조사는 Line-transect 방법을 이용하여 대상 하천 내 산책로 및 제방 상

10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11 半田眞理子, 1989, 『都市の生態系と線』, 『線と讀本』 10, 3-10.

부를 따라 이동하며, 하천 양쪽 제방을 중심으로 좌우 25m 이내에 출현하는 야생 조류를 육안과 쌍안경으로 관찰하고, 울음소리, 나는 모양 등으로 동정화하였고, 관찰위치를 1/1,000 수치화 지도에 표기하였다. 현장조사는 2021년 5월에 비오톱 조사와 동시에 실시하였으며, 대상 하천 및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야생조류의 종명, 개체수, 출현 위치, 이용대상, 이용형태를 파악하였으며, 현황은 AutoCad map 3D 2018 프로그램과 ArcMap 10.3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도면화하여 분석하였다. 출현 야생조류의 서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조류도감¹²과 한봉호 등¹³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채이 길드는 야생 조류의 먹이자원 이용에 관련된 주요 채이장소, 서식특성, 현존식생 구분에 따라 수면, 물가, 수관, 관목, 인가, 공중으로 구분하였다. 서식 유형은 Res(텃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로 구분하였다.

(3) 생태문화적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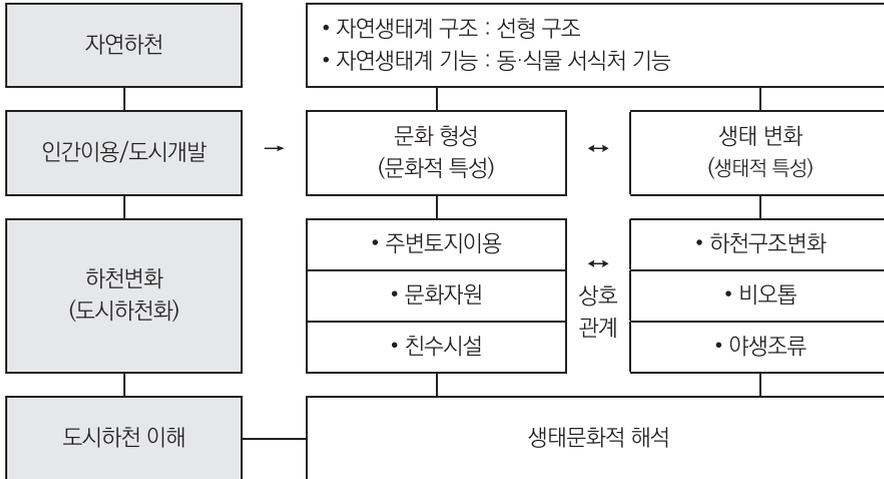
자연하천 형태는 기본적으로 하도(Channel), 홍수터 또는 범람원(Flood -plain), 자연 제방(Natural Levee)과 배후 습지(Swamp/Backmarsh)로 나타나며 자연 하천의 생태적 특성은 하천 동·식물의 서식처 기능, 수질의 자정기능 등이 있다. 하천의 식생은 하천에 서식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의 기반이 된다.¹⁴ 자연하천은 인간의 이용과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하천으로 변화되게 된다. 도시성장은 필연적으로 택지조성이 수반되는데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의 지형과 구조뿐만 아니라 하천 식생, 야생조류 서식환경 등을 변화시켜 도시환경에 적응하는 도시하천 생태계로 변화시킨다.¹⁵ 생태문화적 해석은 자연하천을 인간이용과 도시개발에 의해 도시하천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석틀 <그림 2>을 이용하여 하천 변화에 따라 영향을 주고받은 생태와 문화와의 상호관계를 해석하였다.

12 우한정·윤무부, 1989, 「원색한국조류도감」, 아카데미서적.

13 한봉호·김정호·손병도·이경재, 2005, 「서울시 월드컵공원 야생조류 군집 특성 및 생태적 관리방안」, 『한국조경학회지』 33(5), 43~56쪽.

14 환경부, 201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15 김효중, 2011, 「도시하천의 인위적 경관변화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림 2〉 수원시 도시하천의 생태문화적 해석틀

3.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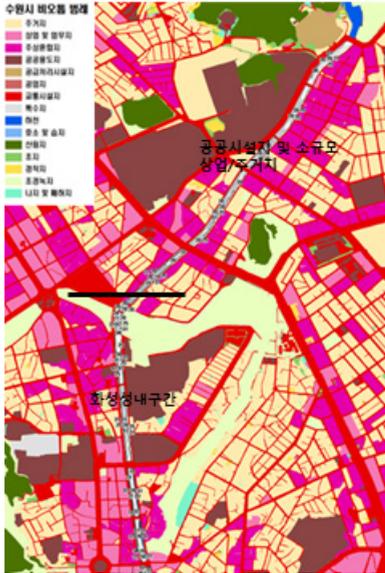
1) 수원천

(1) 문화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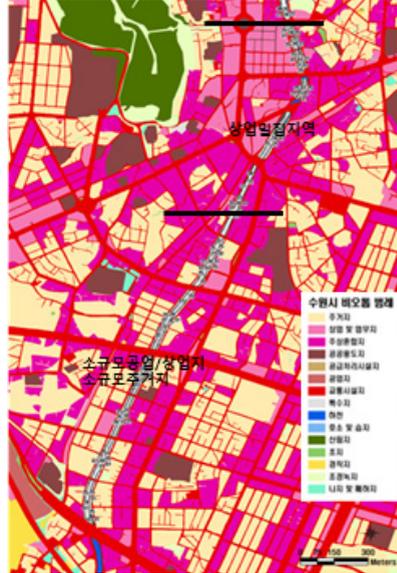
가. 주변 토지이용

수원천은 광고산에서 발원하여 광고 저수지에 합류한 후, 남하하여 대황교동 근처에서 황구지천과 합류한다. 하천연장은 9.45km, 유역면적은 25.37km², 유로연장은 약 15.77km, 유역 평균 폭은 2.24km이다.¹⁶ 광고저수지 하단부터 주변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4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16 수원시, 2012,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림 3〉 수원천 경기교~남수문 주변토지이용



〈그림 4〉 수원천 지동교~세류교 주변토지이용

경기교부터 방화2교 구간은 수원상수도사업소, 수원보훈원의 공공시설과 소규모 상업지 및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북수문부터 남수문 구간은 화성신도시 건설 시 축조된 각종 역사문화유산이 분포하고 있으며, 도시발달과정에서 조성된 화성 박물관, 학교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다. 남수문 직하단부터 매교까지 구간은 상업밀집 지역으로 하천 양안에 전통 상가와 고층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수원천 하류에 해당하는 매교부터 군사 시설지 직전의 세류교까지는 소규모 공업지와 상업지,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다.

하천 주변 토지이용이 구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분석하기 위해 수원시 도시 변화를 나타내는 도시기본도¹⁷를 이용하여 토지 변화를 고찰하였다. 〈그림 5〉는 1914년 지적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원천 주변 시가지는 수원화성 내에 국한되어 있다. 화성 북쪽은 논 경작지가 나타나고 화성 남쪽 남수문 아래에도 논 경작지가 나타난다.

17 수원시, 2000,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



〈그림 5〉 1914년 수원 천변
시가지 분포도



〈그림 6〉 1969년 수원천변
시가지 분포도



〈그림 7〉 1996년 수원 천변
시가지 분포도

하지만 수원시 최초 도시계획이 수립된 1969년 도시기본도(그림 6)를 보면 수원천 주변의 시가지 분포는 화성 성내부터 수원역으로 연결되는 도로 중심으로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였고, 화성 북수문 위쪽 영화동 방향으로도 시가지가 확산되어 있다. 당시 영화동에 수원우시장이 이전하면서 주변에 상업시설이 늘어나던 시기이다.¹⁸ 수원시 도시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1996년 도시기본도(그림 7)에는 광고저수지 하단부터 공군 군사 시설지 직전까지 하천유역 전체에 시가지 면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시기본도를 통해서 수원시의 시가지 면적 확산을 분석해 보면 도시원형 화성내 구간에서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수원역으로 인해 교통 발달과 도로 주변 상가가 형성되면서 지동교-매교 구간으로 시가지가 확산되었다. 도시발달은 시가지 확산

18 정성모, 2014, 『수원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수원시사 6 : 수원산업과 경제성장』,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을 가속화시켰고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다. 하천 주변 토지이용이 구간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개발에 따라 시가지 면적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나. 문화자원

수원천과 관련한 문화자원 중 역사자원¹⁹은 화성의 생활 용·배수 체계인 복지, 남지(상·하), 동지(상·하), 행궁지(상·하), 북은구, 남은구가 있고 치수 관리와 관련된 자원으로 복수문, 남수문, 오교가 있다.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한 자원은 용연과 방화수류정이 있다. 인문자원은 광고저수지와 영동시장, 지동시장, 못골종합시장, 미나리광시장, 팔달문 시장 등의 전통시장²⁰과 하천복개,²¹ 우시장,²² 빨래터, 물놀이터²³가 있다. 자연자원 및 경관으로는 역사 경관과 자연이 어우러져 형성된 수원 팔경으로 전해 내려오는 화홍관창, 남제장류, 용지대월²⁴이 있다.

역사자원은 화성의 생활용수의 이용과 배수, 치수 관리, 친수공간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다. 화성의 생활 용·배수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주었으며, 치수 관리를 위해 복수문과 남수문 사이에 제방을 쌓고 유로를 직선화함에 따라 하천구조와 하천지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자원은 도시성장과정에서 도시개발 및 하천변 인간정주와 관련하여 형성된 것으로 하천변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취수가 용이하고,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부산물의 쓰레기 처리통로로 이용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우시장이 수원천변에 100년 이상 존속되어 온 것도 같은 이유이며, 물놀이 터나 빨래터는 수원천뿐만

19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영증보판』 상·하; 백종철, 2006,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전영욱·이상문, 2008, 「전통도시 화성의 수로조영에 나타난 생태적 계획원리」, 『국토계획』 43(5), 도시계획학회지, 123~143쪽에서 수원천과 관련하여 영향을 주었거나 영향을 받은 문화자원을 주출.

20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성장』; 수원박물관, 2014, 『문밖마을』; 수원박물관, 2016, 『연못마을 : 골목마을 · 벽화마을』.

21 수원시, 2019, 「70,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

22 수원문화원, 2018, 『수원우시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23 현장조사 결과 매교 부근에 형상화한 안내판 확인(2021년 7월).

24 노재현, 2014, 「문화경관으로 보는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아니라 촌락이 있는 하천은 대부분 빨래터와 아이들의 물놀이 터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하천은 오염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태로 훼손되었으며, 복개되었다(표 1).

〈표 1〉 수원천과 관련된 문화자원과 하천 영향

구분		관련 문화자원	기능	하천 영향
전체 면적	화성의 용·배수 체계	북지	• 함양지	수질
		남지	• 저류지	
		동지	• 정화지	
		행궁지		
		북은구	• 도랑물 유입 통로	
		남은구	• 생활오수 배출 통로	
	화성 치수 관리	북수문	• 물길통로, 유량 조절	유로 직선화
		남수문		
		오교	• 하천위 통행교량	
	풍수지리, 친수공간	용연	• 자연 호소	하천지형 변화
방화수류정		• 친수경관 조형		
인문 자원	저수지	광고저수지	• 농업용수	수계 형성
	도시개발	전통시장	• 취수, 오수 처리	하천오염, 훼손, 복개
		복개구간(지동교-매교)	• 주차장, 도로	
		우시장(음식문화)	• 하천 이용 먹이고, 씻기고, 분노 처리	
		빨래터(소통문화)	• 세탁, 소통 공간	
	물놀이터(놀이문화)	• 놀이, 자연학습장		
경관 자원	수원 팔경	화홍관창	• 물과 문화가 결합된 경관	주변 경관
		남제장류		
		용지대월		

다. 친수시설

친수시설은 비오톱 조사 전체 면적의 약 14%(21,548㎡)가 산책로와 쉼터,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지동교부터 매교 구간은 2012년에 복원된 구간으로 친수시설 비율이 24.9%로 가장 높다(표 2). 한편으로 1990년대 복원된 경기교-방화2교 구간은 친수시설 면적 비율이 3.3%로 가장 낮다. 이는 도시하천에 대한 지역민의 친수시설 이용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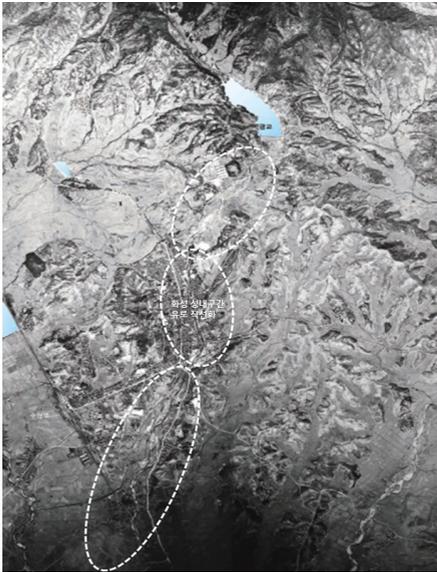
〈표 2〉 수원천 친수시설 면적 비율

(단위 :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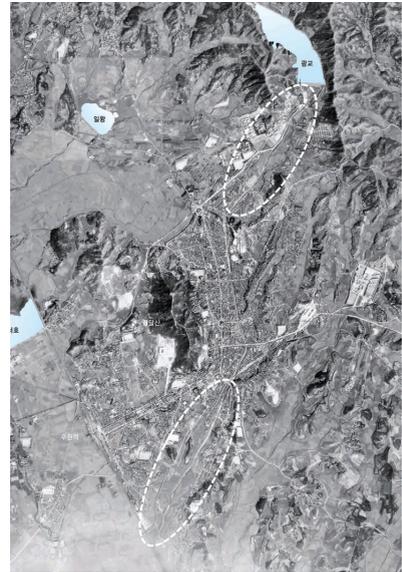
구분	경기교-방화2교		북수문-남수문		지동교-매교		매교-세류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체면적	44,978	100	30,608	100	18,020	100	57,143	100
친수시설	1,486	3.3	4,865	15.9	4,482	24.9	10,715	18.8

(2) 생태적 특성

가. 하천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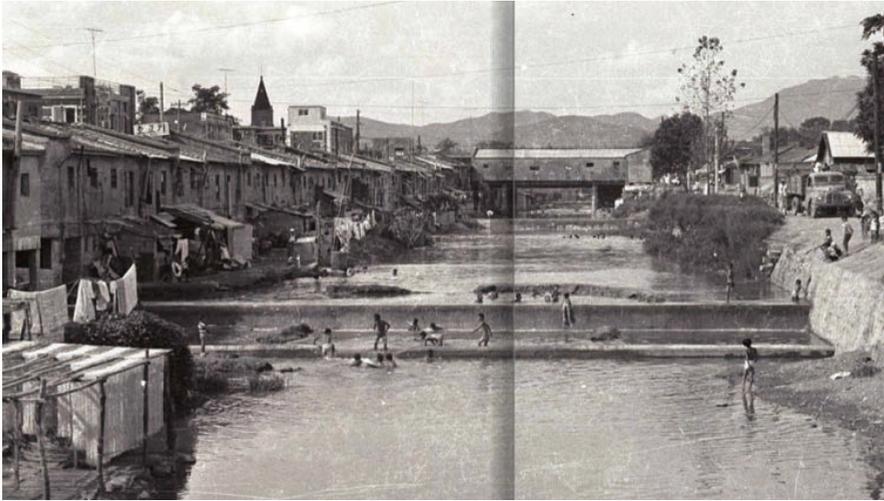
〈그림 8〉 1947년(항공사진) 수원천 유로(화성 성내 구간 직선화)



〈그림 9〉 1966년(항공지도) 수원천 유로 변화

수원천은 화성 건설 시 성내를 관통시킨 이래 도시 성장에 따라 하천유역이 개발되면서 하천 구조가 변화되어 왔다. 해방 후 1947년의 수원시 항공사진(그림 8)을 보면 수원천 상류에 광고저수지 아래로 수계가 뚜렷하다. 화성 성내 구간은 직선 유로를 보이고 남수문부터 하류 구간은 자유 유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66

년 수원천 항공사진(그림 9)을 보면 직선 유로 구간이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천유로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방이다. 제방축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남향제가 1970년, 향수제가 1975년, 세류제가 1985년에 축조²⁵되었다. 나머지 제방은 1970년대 이전에 축조된 것들로 정확한 축조년도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항공사진과 남아 있는 제방축조 기록을 비교했을 때, 1970년대 이후에는 제방 축조로 유로가 직선화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전 구간이 직각옹벽 형태로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 수원천 하도의 보와 낙차공(출처 : 수원박물관)

〈그림 10〉을 통해서 수원천 구간마다 보와 낙차공이 설치되어 물을 가두어 두고 아이들은 떡을 감으며 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의 설치의 일제강점기 저수지 축조 이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하도에 축조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원천 유역은 대부분 시가화되었지만 한 번 설치된 하도 시설물은 하천의 생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수원천은 1995년 후반부터 실시한 하천복원사업 간에 보

25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stream.go.kr); 『진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14.

와 낙차공은 모두 여울형으로 조성되었다. 이로 인해 생물들이 상류와 하류의 자유로운 이동의 종적 연결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수원천의 제방은 전체적으로 직각옹벽 형태로 수서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상호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가 하천구조물로 방해를 받고 있어 횡적 연결성은 좋지 않다.

나. 비오톱

수원천의 비오톱은 조사면적 151,515㎡ 중 초본식생지가 32.4%로 가장 넓게 분포하였고, 수면 및 퇴적지 27%, 조성녹지 23.7%, 시설지 14.7% 순으로 나타났다(표 3). 비오톱 유형 중 초본식생지에서 습지자생초지가 17.5%로 가장 높았고, 외래종초지가 12.9%였으며, 건조자생초지는 2.0%로 분포도가 낮았다.

〈표 3〉 수원천 비오톱 유형별 면적 및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소분류	중분류
목본 식생지	자생목본식생지	01. 버드나무	2,291	1.5	1.5
	외래목본식생지	06. 족제비싸리	310	0.2	0.2
초본 식생지	습지자생초지	07. 갈대	23,651	15.6	17.5
		10. 줄	2,840	1.9	17.5
	건조자생초지	15. 쇠뜨기	1,557	1.0	2.0
		19. 기타 건조자생초지	1,487	1.0	2.0
	외래종초지	20. 큰김의털	18,874	12.5	12.9
		22. 개망초	415	0.3	12.9
		23. 환삼덩굴	294	0.2	12.9
조성 녹지	조경수식재지	24. 자생조경수목식재지	194	0.1	23.7
		25. 기타 조경수식재지	35,665	23.5	23.7
	원예초본식재지	27. 원예초본식재지	760	0.5	0.5
수면 및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40,852	27.0	27.0
시설지	이용 및 시설지	31. 산책로	20,881	13.8	14.2
		32. 운동시설	667	0.4	
	기타 시설지	34. 기타시설	780	0.5	0.5
총합계			151,515	100.0	100.0

이는 도심하천으로 산책로 이용자를 위해 주변 초지를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함으로써 초본식생의 정착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성녹지에서 조경수식재지 분포가 비교적 높은 것은 수원천을 복원하면서 하류구간의 하천변 식재가능 공간에 조경수를 식재하였기 때문이다. 하천의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자생목본식생, 습지자생초지, 건조자생초지, 수면 및 퇴적지는 면적 비율이 48%로 수원천의 생태환경은 보통이다.

다. 야생조류

야생조류 출현종의 채이길드에 따른 종수 및 개체수 현황은 총 10종 104개체가 관찰되었다. 이 중에서 관목종은 멧비둘기와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2종 7개체가, 물가종은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쇠백로 등 3종 12개체가, 수면종에는 흰뺨검둥오리가 21개체 관찰되었다. 인가종으로는 까치와 집비둘기, 참새 등 62개체가 관찰되었다(표 4).

〈표 4〉 수원천 야생조류 출현 현황

채이길드	종명	학명	서식유형	개체수
공중	제비	<i>Hirundo rustica</i>	SV	2
관목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Res	1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a</i>	Res	6
물가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WV	1
	왜가리	<i>Ardea cinerea</i>	SV	2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SV	9
수면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WV	21
인가	까치	<i>Pica pica</i>	Res	1
	집비둘기	<i>Columba livia var. domestica</i>	Res	46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15
총합계				104

* 서식유형은 Res(뒷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

야생조류 종별 출현 현황을 살펴보면 수면종과 인가종이 많이 관찰되었다. 수면종인 왜가리, 쇠백로는 호소나 하천에서 어류나 새우류를 섭취하는 종으로는 수원

천에서 먹이 취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집비둘기 등 인가종은 주변에 상가 및 주거지 밀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천의 생태성을 판단하는 물새류의 개체수가 적지 않고(30%) 전 구간에서 관찰됨에 따라 수원천의 야생조류 서식환경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원천의 문화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은 종합해 보면 하천 구간별 주변토지이용과 문화자원 분포, 친수시설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도시성장에 따라 하천 유역의 도시개발에 의한 것으로 하천 주변 토지이용에 따라 하천 구조가 변화되었으며, 문화자원 형성과 동시에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 환경이 변화되었다. 현재 수원천은 전 구간이 생태적으로 복원되어 비오톱 중에서 생태성 비오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48%로 하천 현존식생과 수면적 등 생태환경은 좋지 않은 편이다.

(3) 생태문화적 해석

가. 화성 신도시 건설과 수원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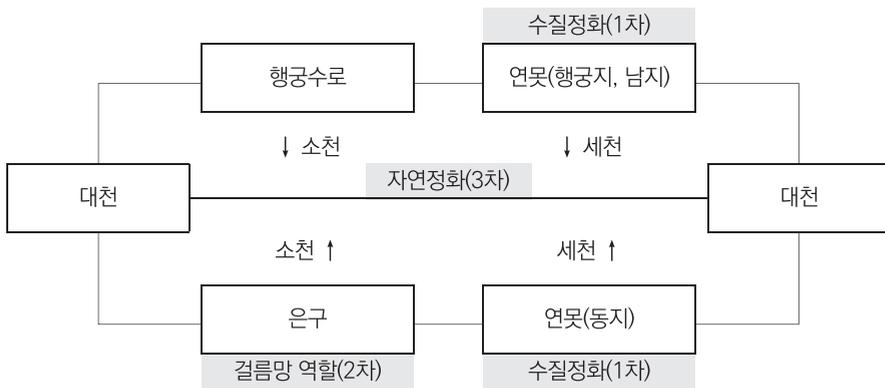
화성 신도시 건설 당시 수원천 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풍수지리적 측면이다. 풍수지리에서 도시입지 형태를 결정하는 요소는 산과 하천²⁶으로 산은 도시의 외곽형태를 결정하며 하천은 시가지를 형성하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화성 건설 시 팔달산과 수원천이 행궁과 도로, 성곽의 동서남북 성문 등 도시입지 형태의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화성성역의궤』에서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한다. 화성의 전체 모습을 기록한 국면(局面)²⁷에서 “동쪽을 향하여 열리었는데, 팔달산이 높이 솟아 후진(後鎭)이 되었다. 일자사(一子砂)는 편편하여 가까이 안산(案山)이 되었는데, 가운데로 대천(수원천)이 남북으로 꿰뚫어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 자연적인 호소인 용연에도 풍수적인 상징성과 의미를 부여하였다. 용연은 “북성 밖에 있는데 모양이 반달처럼 생겼다.”고 하였으며, 바위는 ‘용두(龍頭)’라 하였다. 못의 서쪽에 석각이두(石刻螭頭)를

26 박종필, 2017, 「수원화성의 풍수지리적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7 『화성성역의궤』, 도설.

설치하여 물이 차면 이두를 통해서 화홍문 밖으로 뿔어내게 하였다.²⁸

둘째, 화성 관아와 백성들의 생활용수 및 배수체계로 하천이 이용되었다. 화성의 용·배수체계를 분석해 보면 광고산에서 발원한 대천과 팔달산 및 구릉지에서 발원한 소천과 세천은 화성의 연못과 은구로 연결되어 있다. 연못²⁹은 용수 함양지와 생활용수 정화 및 우수저류 기능의 연못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지는 성 밖 도랑물을 북은구를 통해서 성내로 끌어들이어 저장한 용수 함양지에 해당된다. 생활용수 정화 및 우수 저류 기능의 연못은 행궁지, 남지, 동지이다. 이들은 모두 상·하 2개의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못에는 부름과 연 등의 정화식물을 식재하여 수질 정화, 수량 조절 등의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연못과 연결된 은구는 기둥을 엮비슷하게 세워 겨우 물길만 통과하게 조성됨에 따라 친환경적인 걸름망 역할을 하도록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대천에 흘러들도록 하였다(그림 11). 따라서 화성의 생활용·배수체계는 생태적 자연정화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시만 해도 화성 내 가구수가 1,000가구 미만으로 생활 오수가 하천으로 배출되어도 하천이 수용범위를 초과하지 않아 생태적 처리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화성 생활용·배수 체계도

28 『화성성역의궤』, 권수, 용연.

29 『화성성역의궤』, 도설, 북지, 상동지, 하동지, 상남지, 하남지.

셋째, 농업용수로 하천이 이용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화성유수 조심태는 장계에서 “관개하는 들은 구천 하류에 많이 있는데 대천을 축성 초기에 원래 물길을 뚫고 물줄기를 이어 제방의 언덕을 높였고, 이 물을 구천으로 내보냈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 경제 주체는 농업으로, 화성 밖 남쪽의 평탄한 지형은 대부분 논경작지이다. 성을 빠져나간 물길은 구천 밖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화성 치수 관리를 위해 하천에 제방을 구축하여 유로를 직선화하였다. 화성 축성계획에서 가장 먼저 논의되었던 것이 물길 조성 문제였다.³⁰ 이는 화성 건설시 대천(수원천)이 화성 내를 관통하도록 하여 성곽이 축성됨에 따라 여름철 장마시 수해로부터 화성 신도시를 지키기 위한 치수 관리가 우선 논의 대상이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치수 관리를 위해 성내의 물길 통로를 직선화했으며 제방을 쌓고, 제방에는 버드나무를 식재하여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였다.³¹ 매년 장마가 건히면 준천을 통해 쌓인 토사를 연례행사로 걷어내었다.³² 팔달산과 구릉지, 저습지에서 발원한 소천(小川)과 세천(細川)도 행궁 앞 수로를 조성하여 도랑 관리를 하였다.

따라서 화성의 수체계는 자연하천의 생태적 원리를 이용하여 생활 용·배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업용수 이용과 도시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에 흙을 채워 나무를 식재하는 등 생태적으로 이수 및 치수 관리를 하였으나 유로 직선화로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었다.

치수 관리를 위해 식재한 버드나무와 복수문은 수원팔경 중의 하나인 화홍관창과 남계장류의 문화 경관이 되었다. 이는 하천과 문화자원이 만든 경관으로 문화가 또 다른 경관문화를 형성하였다.

30 『화성성역의궤, 계사, 계축년(1793년) 12월 초6일.

31 『화성성역의궤』 시일, 을묘년(1795) 3월 초1일. 구천방에 흙채우는 공사를 시작하여 3월 29일 구천방에 흙채우는 공사를 마쳤다. 『화성성역의궤, 권6, 재용, 식목 대천양변으로 버드나무를 식재하였다.

32 『화성성역의궤』, 도설, 개울치기.

〈표 5〉 화성신도시 수원천 이용과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경관)	생태 변화
풍수 지리	용연, 남수문, 방화수류정(용지대월)	하천 지형 변화
생활 용수	북은구, 남은구, 북지, 행궁지, 남지, 동지	수질 오염
농업 용수	제방, 하도 보 설치	하천 구조 변화
치수 관리	수문(화홍관창), 제방, 나무식재(남제장류)	유로 직선화

나. 광고저수지 축조와 수계 형성

수원천 상류에 있는 광고저수지는 1943년에 축조한 저수지이다. 저수지는 일제강점기 산미증산정책에 의한 농지개량과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축조되었다. 이때 설치된 저수지로 인해 수원천의 수계가 형성된 것이다. 저수지가 축조됨에 따라 하천은 농업용수 관리를 위해 인공적인 제방을 구축하면서 하천지형 변화를 초래하였다. 하천 주변에 농경지가 있는 곳은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하천 내부 하도에는 보를 막아 물을 가두어야 한다. 1970년대 이후 수원천이 도시 중심 하천으로 하천의 상·하류 구간 대부분이 농경지에서 시가지로 바뀌었지만 한번 설치된 하도의 시설물은 계속 하천 내부에 존재하면서 유속 흐름과 생물 이동을 방해하여 왔다. 따라서 하도 내 시설물 구축의 하천구조 변화는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에 영향을 주면서 하천의 생태성을 악화시켜 왔다.

다. 도시개발과 하천생태성 변화

① 주변 토지이용 변화와 하천구조 변화

수원시의 도시성장에 따라 수원천은 하천 유역이 고밀 개발되면서 주변 토지이용이 변화되었다. 수원시의 도시공간 확산은 도시원형 화성에서 수원천을 따라 하류 방향으로 시가지 면적이 증가하면서 주변토지이용이 달라졌다. 일제강점기 수원역이 개설된 이후 시가지는 하천을 따라 지동교부터 하류 쪽으로 이동하였다. 수원천 주변은 지속적으로 인구유입과 함께 도시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도시화 면적은 점차 확산되어 하류 세류교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세류교 하단에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공군 군사시설지가 있어 시가지는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수원천 주변 시가지의 밀집도가 높아지면서 시가지는 수원천 상류 광고저수지 하단까지 이동하였

다. 주변토지이용을 통해서 도시공간 확산방향을 이해할 수 있으며, 하천유역 개발은 배후시가지의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이 견고하게 축조되면서 하천구조를 변화시켰다. 수원천은 도시의 중심하천으로 다른 하천과 달리 제방상부는 모두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방구조는 직각옹벽 형태를 갖고 있다.

② 하천변 인간 정주와 하천 훼손

수원천의 하천변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조선 후기이다. 화성의 성 안에는 상설시장이 있었다. 정조는 화성 신도시 건설 후 상업을 장려하기 위해 조정에서 돈을 빌려주어 점포를 개설하게 하였다. 상가는 주로 남북대로와 동서대로의 교차점인 종로 사거리를 중심으로 상가가 포진하였고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하지만 성 밖에 거주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북문 밖과 남문 밖에 난전을 운영하고 이용하였다. 서울의 청계천 상업 밀집 지역도 조선시대 한양의 오간수문이 있던 곳으로 주변에 영세민들이 모여 살았으며 근대 이후 상업지대로 변모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천변에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취수가 용이하여 농산물을 다듬거나 부스리기 등 쓰레기 처리 통로로 이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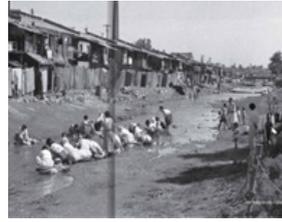
수원우시장도 수원천을 따라 이동하면서 100년간 존속했던 것은 소를 씻기고 먹일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수원갈비라는 음식문화를 파생시켰다. 수원우시장과 빨래터, 물놀이 터는 문화가 하천생태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음식문화, 소통문화 등 문화가 문화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하천변에 있는 상가는 대부분 무허가 건물이었다. 게다가 한국전쟁 피란민들이 수원천변에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무허가 판잣집이 늘어났다. 이후 도시의 빈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난전을 운영하다가 하천변에 판잣집을 짓고 상업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원천변의 무허가 건물이 늘어났다. 수원시에서는 여러 차례 무허가 건물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상가는 민초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므로 철거되면 다시 또 건물을 짓는 것을 반복하여 수원천변의 무허가 건물은 1991년 지동교부터 매교 구간 복개공사를 하기 전까지 존속하였다. 수원천변의 시장과 무허가 건물은 민초들의 삶의 터전이지만 한편으로 하천의 생태 훼손의 주원인이었다.



192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그림 12〉 수원천변 무허가 건물과 하천 훼손(출처 : 수원박물관)

③ 하천 복개와 환경운동 대동

수원천의 지동교-매교 구간은 1990년대 복개된 구간이다. 복개는 수원천만이 갖고 있는 역사이다. 수원천은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 증가와 오·폐수가 흘러들어 하천 오염이 심화되어 왔다. 수원천 중에서 지동교부터 매교 구간은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와 무허가 건물들이 쏟아내는 쓰레기 처리 통로로 이용되면서 악취는 물론이고, 해충이 들끓고 생물이 살 수 없는 하수구로 전락하였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천 오염문제 해결책으로 하천 복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1단계 사업으로 지동교부터 매교 구간 790m를 1991년부터 1994년까지 복개하였다. 하천의 복개는 곧 하천구조를 변화시켜 하천의 식생과 야생조류 서식에 영향을 주었으며, 복개구간뿐만 아니라 미복개구간의 하천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2단계 수원천 복개사업을 위해 매향교부터 지동교구간에 콘크리트 타설을 시행하던 와중에 수원 YMCA를 비롯하여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수원천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수원천 2단계 복개 공사 중지를 위한 환경운동을 대대적

으로 전개하였다.³³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 문화재청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결국 2단계 하천복개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 수원시의 시민들에 의한 환경운동은 수원천 복개로 인해 태동되었고 도시하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하천 복원과 친수시설

하천복개가 한창 추진될 때 수원시에서는 수원천 상류부터 복개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계획³⁴을 갖고 있었다. 1995년 7월부터 경기교부터 영연교 구간이 수원시 최초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사업이 시행된 구간이다. 하천 복원은 하도의 보와 낙차공 제거, 여울 조성, 하천 식생 개선, 친수시설 조성 등의 병행하여 복원을 하였다. 하지만 수원천은 이미 전 구간의 제방이 직각옹벽 형태로 제방 상부는 도로로 이용되어 있어 하천 제방을 원래 자연하천 상태로 복원은 하지 못하였다.

이후 2단계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화성 성내구간, 매교부터 세류교 구간을 차례로 2001년까지 복원하였다. 기존에 복개되었던 지동교부터 매교 구간은 2009~2012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생태적으로 복원하였다. 복원사업은 하천 생태계 복원 및 친수공간 확보, 남수문 복원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이로써 수원천은 군사 시설지를 제외하고 전 구간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었다. 하천 복원시 하천 내부에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등 친수시설이 설치되었다. 친수시설은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하천의 구조와 비오름, 야생조류 서식은 하천 복원 이후 수원천에서 나타난 생태적 결과이다.

〈표 6〉 도시개발과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경관)	생태 변화
유역 개발	주변 토지이용 변화	하천구조 변화
취수, 세탁, 오수처리 통로	전통시장, 민초들의 삶의 터전	하천 오염
도로, 주차장	복개 구간(수원천 역사)	비오름, 야생조류서식 훼손
친수시설	산책로, 힐링, 운동	비오름, 야생조류서식 복원

33 수원시, 2019, 『70,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

34 수원시, 2019, 『70,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

라. 소결론

수원천은 수원시의 도시원형 화성 건설시 이용된 하천이며, 수원시 도시성장파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골격 기준이 되어 온 하천이다. 수원천의 하천 변화는 조선 후기 화성 성내를 관통하게 하여 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치수 관리를 위해 복수문과 남수문 사이를 직선으로 구축하면서부터 하천 지형 변화와 하천 생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광교저수지를 축조하면서 수계가 형성되었고 하천 내부 하도에는 보가 설치되면서 하천구조가 변하였다. 근·현대 산업화 영향으로 도시가 성장하면서 수원시의 도시화는 수원천을 중심으로 유역 변화가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하천변에 인간이 정주하면서 하천을 오염시켰고, 도시 치수 관리를 위해 유로를 직선화하였다.

주변 토지이용을 높이기 위해 제방을 직각옹벽으로 구축하면서 하천구조를 변화시켰다. 유로 직선화와 하천 복개의 하천구조 변화는 하천의 생태적 자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을 악화시켜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였다. 하천이 훼손되고 난 이후 자연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하천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정책 변화로 수원천이 복원되면서 하천 내부에 산책로가 생기고 도시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하천 식생이 되살아나면서 야생조류 서식환경이 되살아났다.

하천은 도시 변화에 따라 이용과 개발로 변화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됨과 동시에 생태에 영향을 주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훼손하는 등 하천생태가 희생되기도 하였으나 현재 수원천은 전 구간이 복원되어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하천으로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생태문화적 해석 결과 수원천은 수원시 도시역사와 함께 변화되어 온 하천으로 수원시 도시 성장과 도시개발 과정에서 도시의 골격 기준이 되어 온 하천이며,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하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수원천은 수원시 중심 하천으로 하천의 생태환경은 보통이지만 복수문부터 남수문 구간은 역사문화경관 특징과 친수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구간은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는 친수 기능을 갖고 있다.

〈표 7〉 수원천 생태문화적 특징 및 기능

구분	역사문화경관 및 친수 기능	친수 기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유산이 분포 • 관광객 방문 및 이용 • 지속적 경관보존/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이 많은 하천 • 하천 생태적 공간 평가결과 생태성 비율이 50% 미만
구간	북수문-남수문	경기교-방화2교, 지동교-세류교
하천 경관	• 북수문 안 	• 삼희교 부근 
	• 남수문 안 	• 세류교 부근 

2) 서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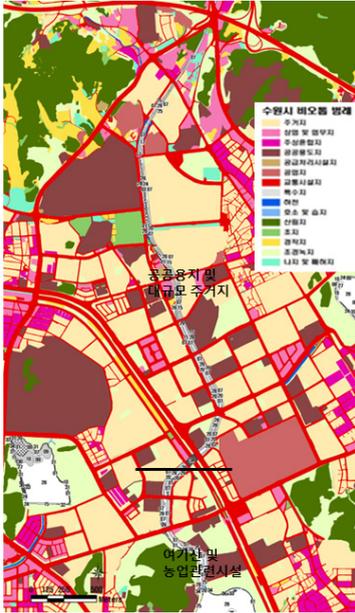
(1) 문화적 특성

가. 주변 토지이용

서호천은 수원시 북쪽 파장동산(367m)에서 발원한 후 이목천이 유입되고 영화천이 합류하여 서호저수지로 유입되었다가 남하하여 장지동에서 황구지천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하천연장 11.5km, 유역면적은 30.50km², 유로연장은 13.20km, 유역 평균 폭은 2.24km이다.³⁵

서호천의 주변 토지이용은 대략 3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상류 파장IC부터 한마루 사거리 구간은 공공용지, 대규모 주거지, 공업지가 분포하고 있다. 한마루사거리

35 수원시, 2012,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림 13〉 서호천 파장IC-축만제 주변 토지이용



〈그림 14〉 서호천 중보교-기안교 주변 토지이용

부터 축만제가 있는 구간은 여기산과 서호공원, 농업역사박물관 등이 있고, 하류는 군사 시설지와 고색산업단지가 있다.

서호천 유역은 조선 후기 화성신도시 건설 이후부터 줄곧 농경지로 활용되어 왔다. 일제강점기에는 축만제 부근에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농업관련 일본기업들이 입지하면서 하천 주변 토지이용이 변화되었으나 시가지가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1969년 도시기본도(그림 15)에서 서호천 유역은 축만제 부근과 평동 부근을 제외하고 주변 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이다. 이 시기 축만제 부근에는 농업진흥청과 국립작물연구소 등의 농업관련 연구기관이 분포하였고 평동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가동되었던 SK(주)의 모체 선경직물이 있었다.³⁶

1977년 도시기본도(그림 16)에서는 서호천 유역 상류와 한마루 사거리 부근 그리고 하류 평동 부근에 공업지가 나타난다. 1970년대 수원시의 도시변화는 서울에

36 이창수, 2014,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그림 15〉 1969년 서호천변
시가지 분포도



〈그림 16〉 1977년 서호천변
시가지 분포도



〈그림 17〉 1996년 서호천
변 시가지 분포도

있는 공업지가 수도권 외곽의 위성도시로 이전을 추진하던 시기로 서호천 상류 지역에 선경합섬, 한일합성 등의 공장이 들어섰고, 한마루 사거리 부근에는 연초제조창이, 서둔동에는 금강(KCC), 하류 평동에는 선경직물 등의 공업지가 있었다.³⁷ 1996년 도시기본도(그림 17)를 보면 서호천 상류와 중류에 시가지 면적이 1977년도에 비해 훨씬 넓게 분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는 직물업의 쇠퇴와 도심에 있는 공업지가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공장이 있던 장소는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되었다. SKC 공장이 아직 서호천 유역에 남아있고, 평동에 선경직물이 있던 자리에는 SK V1모터스로 대체되었으며, 나머지 공업지는 백화점, 대규모 주거지 등으로 개발되었다.

서호천 유역의 주변토지이용은 도시발달에 따라 농경지에서 공업지로, 공업지는 다시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도시개발 초기에는 서호천의 중류인 한마루 사거리-죽만제 구간 유역이 주로 개발되었으며, 도시성장에 따라 상류 유역으로 시

37 이창수, 2014,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가지 면적이 확산되었다. 서호천의 하류인 중보교-기안교 좌안에 공군 군사시설지가 있어 개발은 제한되었고, 우안에는 1996년부터 고색산업단지가 조성되어 2000년대에 완성되었다. 하천 주변 토지이용은 배후시까지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구축으로 하천구조변화 등 하천생태계에 영향을 주어 왔다.

나. 문화자원

서호천과 관련된 문화자원은 역사자원³⁸으로 여기산 선사시대 유적지와 만석거, 영화정, 축만제, 향미정이 있다. 인문자원으로 노송지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가 해방 후 계승된 (구)농촌진흥청, (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그리고 일제강점기 농림학교 입학과의 실습지였던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이 있으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계몽교육을 위해 건립된 농민회관³⁹이 있다. 자연자원으로는 여기산 야생조류 보호구역이 있고, 경관자원으로는 수원팔경중의 5경에 해당되는 북지상련과 6경에 해당되는 서호낙조가 있다.⁴⁰

역사자원은 조선 후기 농업생산시설 조성을 위해 축조한 저수지로 만석거와 축만제가 있으며, 저수지 옆에 친수공간으로 조성한 영화정과 향미정이 있다. 축만제와 만석거는 2016년과 2017년에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저수지 축조는 하천의 지형변화를 초래하므로 조선 후기 자연하천을 막아 만석거와 축만제를 조성하면서부터 서호천의 하천구조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인문자원은 서호천 유역의 농경지와 풍부한 물로 인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농업 관련 시설 입지로 형성된 문화자원으로 농업문화, 임업문화 등이 형성되었으나 하천 주변 토지이용 변화과정에서 하천 구조변화, 훼손, 오염 등 하천 생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표 8).

38 김준혁, 2014, 「화성을 품은 수원」, 『수원시사 16 : 그곳에 가면 화성이 보인다』에서 서호천과 관련한 문화자원 발췌.

39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40 노재현, 2014, 「문화경관으로 보는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표 8〉 서호천과 관련된 문화자원과 하천 영향

구분	관련 문화자원		기능	하천 영향
역사 자원	여기산 선사시대유적지		• 농업문화	-
	화성의 농업 생산 시설	만석거	• 농업용수 저류 • 농업문화	하천지형 변화
		영화정	• 친수공간	
		축만제	• 농업용수 저류 • 농업문화	
항미정	• 친수공간			
인문 자원	근현대 농업 시설	노송지대	• 치수 및 경관	치수 관리
		(구)농촌진흥청	• 농업문화	하천 주변 토지 이용 변화
		(구)서울대학교 농과대학	• 농업문화 • 상록수 정신, 야학 등 정신문화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 임업 문화 • 지하수 함양, 수해 방지 환경적 기능	
농민회관	• 농업 문화			
자연/ 경관	여기산 야생조류 서식지		• 야생조류 서식	야생조류
	수원 팔경	복지상련(수원팔경)	•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경관	주변 경관
		서호낙조(수원팔경)	•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경관	

다. 친수시설

서호천의 친수시설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이목교부터 농대교까지 8.3km 구간에 설치되어 있다. 이 중에서 파장IC-한마루사거리 구간의 친수시설 면적 비율은 11.3%이며, 한마루사거리부터 축만제 구간은 6.2%이다. 중보교부터 기안교 구간으로 미복원되어 친수시설은 없다(표 9).

〈표 9〉 서호천 친수시설 면적 비율

(단위: 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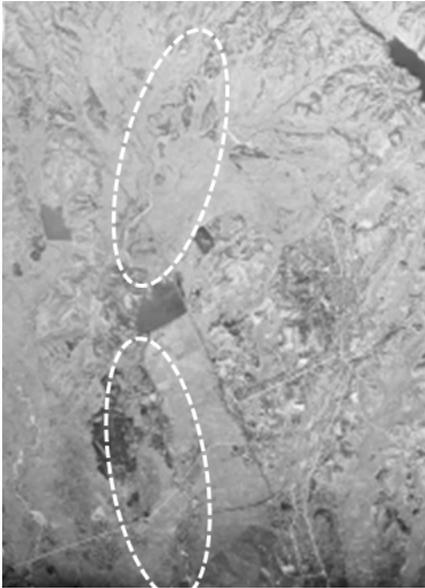
구분	파장IC-한마루사거리		한마루사거리-축만제		중보교-기안교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체면적	108,774	100.0	90,081	100.0	101,471	100.0
친수시설	12,279	11.3	5,615	6.2	-	-

(2) 생태적 특성

가. 하천구조 변화

조선후기 정조는 화성 북쪽 진목천을 막아 만석거를 축조하고, 서호천 본류 물줄기를 막아 축만제를 축조하였다. 이때부터 서호천은 하천 지형 변화와 인간 이용에 의해 하천 생태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해방 후 1947년 항공사진<그림 18>을 분석해 보면 축만제 부근에 시가지 분포가 일부 나타난다. 나머지 구간은 모두 농경지이며, 유로는 자유 유로를 보이고 있다. 1966년 항공사진<그림 19>을 보면 서호천 상류와 하류는 자유 유로를 보이거나 축만제와 인접한 상·하류는 직선 유로를 보인다.



<그림 18> 1947년(항공사진) 서호천 유로 변화



<그림 19> 1966년(항공사진) 서호천 유로 변화

서호천의 제방축조 기록을 보면 1965년에 정자제가, 1977년에 화서제와 천천제가 축조되었다.⁴¹ 서호천 유역의 축만제 부근은 일제강점기부터 도시화가 진행되었

41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stream.go.kr); 진위천 하천정비기본계획(2014).

던 곳으로, 1962년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식량과학원과 농업관련 기관들이 하천 유역에 입지하면서 배후시가지 치수 관리를 위해 하천 구조가 변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는 수원시의 도시변화과정에서 서호천 상류에 공업지가 조성되었던 시기로 배후 시가지의 치수 관리를 위해 인공제방 구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하류는 농경지 경지정리 영향으로 유로가 직선화되었다. 이는 항공사진과 도시기본도의 시가지 분포도, 제방 축조기록을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하였다.

서호천에 보와 낙차공이 설치된 시기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조선 후기 국영농장인 복둔과 서둔을 조성하고 만석거와 축만제를 축조하여 둔전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볼 때, 돌과 나무 등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하여 수중보를 설치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식 수중보는 일제강점기 수리관개를 위해 설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서호천 유역은 197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 농경지였으므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보와 낙차공은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왔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호천은 2000년 이후 하천 복원 간에 보와 낙차공은 모두 제거되고 여울을 조성하였으며 복원하지 않은 구간에는 보 3개, 낙차공 9개가 남아 있다. 서호천의 제방은 전체적으로 사면형으로 수립대가 형성되어 있어 수서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상호 이동할 수 있는 횡적 연결성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미복원된 하류 구간은 하도 구조물로 종적 연결성은 좋지 않다.

나. 비오톱

서호천의 비오톱 현존식생 조사결과 복원된 구간(파장IC-축만제)은 조사 면적 198,855㎡ 중 초본식재지가 58.4%로 가장 넓었고, 수면 및 퇴적지 21.2%, 조성녹지 11.3%, 목본식생지 6.9%, 시설지 2.3% 순으로 나타났다. 비오톱 유형 중 초본식생지는 갈대, 부들 등 습지자생초지가 28.7%로 가장 많았고, 외래종 초지인 큰김의털 등이 19.3%, 건조자생초지는 10.4%였다. 수면 및 퇴적지에서 수면은 20.7%로 넓었으나 모래톱 및 자갈톱의 퇴적지는 거의 없다. 이 구간의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자생목본식생, 습지자생초지, 건조자생초지, 수면적의 비율은 67.2%로 수원천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다. 미복원된 하류(중보교-기안교)는 조사면적 10만 1,471㎡ 중 수면적이 42.9%로 넓고, 초본식생지 30.8%, 목본식생지 23.2%, 시설지

〈표 10〉 서호천 비오톱 유형별 면적 및 비율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	비율(%)	
					소분류	중분류
복원구간 (파장C-축만제)	목본 식생지	자생목 본식생지	01. 버드나무	11,290	5.7	6.9
			03. 참느릅나무	2,361	1.2	
	초본 식생지	습지 자생초지	07. 갈대	56,330	28.3	28.7
			09. 부들	774	0.4	
		건조 자생초지	15. 쇠뜨기	16,231	8.2	10.4
			17. 큰기름새	4,507	2.3	
	외래종 초지	20. 큰김의털	38,306	19.3	19.3	
	조성녹지	조경수 식재지	24. 자생조경수목식재지	8,731	4.4	11.3
			25. 기타 조경수식재지	13,657	6.9	
	수면 및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41,250	20.7	21.2
			29. 모래톱 및 자갈톱	885	0.4	
시설지	기타 시설지	34. 기타시설	4,534	2.3	2.3	
		합계	198,855	100.0	100.0	
미복원구간 (중보교-기안교)	목본 식생지	자생목 본식생지	01. 버드나무	18,103	17.8	21.8
			02. 버드나무-갈대	4,034	4.0	
		외래목 본식생지	04. 아까시나무	1,381	1.4	1.4
	초본 식생지	습지 자생초지	07. 갈대	27,818	27.4	27.4
			외래종 초지	23. 환삼덩굴	3,405	3.4
	수면 및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42,118	41.5	42.9
			29. 모래톱 및 자갈톱	1,444	1.4	
	시설지	기타 시설지	34. 기타시설	3,168	3.1	3.1
			합계	101,471	100.0	100.0

3.1% 순이다. 비오톱 유형별로 고찰해 보면 목본식생지에는 자생목본인 버드나무가 우점이며, 외래목본인 아까시나무가 1.4% 분포하고 있다. 버드나무는 수면과 둔치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하반림으로 판단된다. 초본식생지에는 습지자생초지가 27.4%로 갈대가 우점종이다. 외래종초지는 3.4%이지만 환삼덩굴이 우점하

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였다. 생태성 비오름 비율은 92.1%으로 매우 우수하였다. 이 구간은 수면적이 넓고 수심이 깊으며, 모래톱이 형성되어 있다. 수질이 좋아지고 인간활동이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하천 식생은 자생목본과 습지자생초지가 확산되면서 생태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야생조류

서호천의 야생조류 조사결과 채이길드에 따른 종수 및 개체수 현황은 총 16종 101개체가 관찰되었다. 관목종은 울새와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3종 30개체, 수관종 직박구리와 박새 2종 6개체 관찰되었다. 물가종은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쇠백로, 백백도요, 물총새, 백할미새 등 6종 17개체, 수면종에는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2종 14개체 관찰되었다. 인가종으로는 까치와 집비둘기, 참새 등 3종 34개체가 관찰되었다. 야생조류 출현 현황을 종합해 보면 채이길드별 다양한 종이 관찰

〈표 11〉 서호천 야생조류 출현 현황

채이길드	종명	학명	서식유형	개체수
관목	울새	<i>Enithacus sibilans</i>	PM	3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Res	6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a</i>	Res	21
물가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WV	1
	왜가리	<i>Ardea cinerea</i>	SV	6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SV	5
	백백도요	<i>Tringa ochropus</i>	WV	3
	물총새	<i>Alcedo atthis</i>	SV	1
	백할미새	<i>Motacilla lugens</i>	WV	1
수관	직박구리	<i>Hypsipetes amaurotis</i>	Res	4
	박새	<i>Parus major</i>	Res	2
수면	청둥오리	<i>Anas platyrhynchos</i>	WV	2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WV	12
인가	까치	<i>Pica pica</i>	Res	6
	집비둘기	<i>Columba livia var. domestica</i>	Res	5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23
총합계				101

* 서식유형은 Res(텃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

되었고, 하천의 생태성을 평가하는 수면종과 물기종은 하천 전 구간에 관찰되었다. 이는 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으로 하천식생이 정착되면서 야생조류의 서식환경이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호천의 문화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하천 주변 토지이용, 문화자원, 친수시설 등 구간에 따라 상이하다. 문화자원은 주로 축만제 부근에 분포하고 있고, 친수시설은 복원된 파장IC부터 농대교까지 설치되어 있다. 파장IC부터 축만제 구간의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자생목본식생지 및 자생습지초지, 수면 등의 비율이 67% 이상으로 하천 생태환경은 양호하였으며, 하천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민의 친수시설 이용이 많았다. 미복원된 중보교부터 기안교까지 생태성 비오톱은 92.7%로 매우 우수하였다. 야생조류 중 하천의 생태성과 관련있는 물새류 종수와 개체수도 8종 30개체로 야생조류 서식 환경은 생태적으로 판단되었다.

(3) 생태문화적 해석

가. 자연하천 이용 둔전(屯田) 개발과 치수 관리

서호천에 대한 이용과 개발은 조선 후기 화성신도시의 운영유지를 위한 둔전(屯田) 개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둔전 설치와 만석거 조성은 1794년 전국적으로 흉년을 맞아 곤궁한 백성들을 위한 구황지책(救荒之策)과 화성 운영유지를 위한 농업생산시설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국영농장인 둔전을 조성함에 있어 척박한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였다. 만석거는 둔전에 물을 대기 위해서 조성된 제언으로 광교산 서측에서 발원하여 남하하는 진목천의 물길을 막아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진목천(현 영화천)은 서호천으로 유입되는 지류 중 하나이다.

축만제(祝萬堤)는 화성의 서쪽 여기산 아래 축조한 저수지로 축만 제둔의 관개 시설로 만들어졌다. 정조는 만석거 축조 이후 가뭄에도 농사에 성공하자 저수지를 여러군데 만들었는데, 1789년에는 현릉원 앞에 만년제를 축조하고 1799년에는 축만제를 축조하였다. 만석거가 서호천 지류를 막아 저수지를 축조했다면 축만제는 서호천 본류의 물길을 막아 저수지를 축조함에 따라 화성 주변의 인공저수지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저수지다. 축만제도 만석거와 동일하게 수갑과 수문을 설치하였

다. 만석거와 축만제는 자연하천의 물길을 막아서 독을 쌓고 제방을 쌓음으로써 하천지형이 변화되었으며,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하도에 보를 설치함으로써 하천구조를 변화시켰다. 따라서 만석거와 축만제 축조는 하천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의 하천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정과 향미정은 수경관을 감상하기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것으로 수원 팔경 중의 하나인 복지상련과 서호낙조의 문화경관이 되었다. 노송지대는 조선 후기 정조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소나무와 버드나무 군락지이다. 노송지대는 서호천의 상류 현릉원 가는 길목에 있으며, 적송 500그루, 버드나무 40그루를 식재하였다.⁴² 노송지대에 소나무와 버드나무를 식재한 것은 읍·건릉으로 가는 능행로 상징과 동시에 하천의 범람과 하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버드나무를 식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2〉 조선 후기 서호천 이용과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경관)	생태 변화
농업 용수	만석거(북둔), 축만제(서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지형 변화 • 유속 흐름 방해
환경 및 경관조성	영화정(복지상련), 향미정(서호낙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오톱에 영향 • 친수공간 조성
치수 관리	노송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오톱 영향

나. 일제강점기 농업 관련 시설 입지

쌀은 한국인뿐만 아니라 일본인에게도 중요한 농산물로 일제강점기 전쟁을 하고 있던 일본은 조선을 안정적이 쌀 공급지로 만들고자 농사모범기구를 설치하고자 하였다.⁴³ 권업모범장을 1906년 수원의 축만제 부근에 설립하였다. 권업모범장은 이름 그대로 일본식 농업기술을 ‘모범’이라고 하여 일본식 농업기술을 권장하여 강제적으로 보급하려는 기구이다. 권업모범장은 1929년 농사시험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1944년에는 농업시험장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명칭과 조직

42 백중철, 2006,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43 김도형, 2010, 「권업모범장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9(1), 한국농업사학회, 35~54쪽.

을 개편하면서 산미증식계획 일환으로 주로 벼 품종, 벼 재배법 등 쌀 농사 연구와 시험이 이루어졌다.

1907년에는 서호천 유역에 농림학교가 설립되었다. 원래 농림학교는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한 고종에 의해 농상공업 교육을 위해 1899년 설립되었다. 농과는 상·공업 교육과 특성이 다르고 실습 농장이 별도로 독점에 있던 것을 수원 권업모범장 옆으로 이전한 것이다.⁴⁴ 1910년 한일합방 후 농림학교는 권업모범장의 부속 기관이 되었다. 농림학교는 해방될 때 농림전문학교, 고등농림학교 등 학제와 명칭이 개편되어 오면서 농학 분야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존속하였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수탈을 위해 설치된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는 해방 후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계승되면서 한국의 농업기술과 농학의 발전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농업관련기구는 농업문화를 발전시켰으나 하천 유역의 토지이용 변화, 치수 관리를 위한 시설, 수리관개 시설 설치로 하천구조 변화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하천의 생태성을 훼손시켜 왔다.

〈표 13〉 농업관련 시설 입지와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경관)	생태 변화
농업용수	권업모범장, 농림학교	• 하천구조 변화

다. 도시개발과 하천 생태성 변화

① 주변 토지이용 변화와 하천구조 변화

서호천 유역의 시가지 면적 확산은 수원천에 비해 더디게 추진되었다. 서호천 유역은 조선후기 화성신도시의 생산시설로 개발된 이후 줄곧 농경지로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서호천 유역에 권업모범장과 농림학교, 농업 관련 일본기업들이 축만제 부근에 입지하였으나 나머지 서호천 유역은 대부분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해방 후에도 축만제 부근 평동에 선경직물 등이 그대로 존속하여 1960년대까지 서호천 유역의 시가지는 축만제 부근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 하천 주변 토

44 구자욱, 2010, 「서둔별 근대농학 교육과 과학기술 전개」,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97~135쪽.

지는 전 구간이 시가지로 변화였다.

서호천 유역의 토지이용을 살펴보면 서호천의 상류 파장IC-한마루사거리 구간이 가장 많이 도시화되었다. 이 구간의 유역은 1970년대부터 산업화 영향으로 서호천 상류에 선경합섬, 연초제조창 등의 공업지역으로 변모하였고, 1990년대 들어서 섬유산업이 쇠퇴하자 섬유 공장은 지방 또는 해외로 이전하여 공업지역은 대규모 아파트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림 20〉 1950년대 축만제 습지(출처 : 수원박물관)

서호천 중류의 한마루사거리-축만제 구간은 일제강점기에 하천 주변 토지이용이 많았던 곳으로 해방 후 농업기술연구기관이 그대로 승계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1960년대 농업진흥청 산하에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시험소 등의 농업연구기관이 추가로 입지하면서 한국농업의 메카가 되었다. 〈그림 20〉의 1950년대 축만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데, 경부철도를 기준으로 축만제 서쪽은 넓은 저습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은 대부분 매립되어 서호공원, 꽃피공원, 주거지 등으

로 개발되었다.

서호천 하류는 우안에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위치하고 있으며 좌안에는 1996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고색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서호천 유역의 주변 토지이용은 도시 발달에 따라 농경지에서 공업지로, 공업지는 다시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하였으며, 농업 관련 기관과 기구들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토지이용을 보이고 있다. 도시개발에 따른 하천 주변 토지이용은 하천구조변화와 하천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 등 하천 생태에 영향을 주게 된다.

② 농업 연구 특화지역

농사시험장은 해방 후 중앙농사시험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1947년에는 농사개량원으로 변경하였다가 1949년에는 농업기술원, 1957년에는 중앙농사원, 1962년에는 농촌진흥청으로 개칭되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산하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작물연구소, 국립원예과학원, 잠사연구소 등의 농업 관련 기관들이 서호천 유역에 입지하면서 농업 특화지역이 되었다.

해방 후 농림학교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1992년에는 농생명과학대학으로 개칭하였다. 2003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로 이전하였다. 농촌진흥청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은 서호천 유역에서 통일벼를 비롯하여 수많은 육종연구로 농업기술을 선도하였다.

서호천은 수원이 한국농업의 메카가 되기까지의 역사와 과정을 담고 있는, 농업사와 농학사에서 중요한 하천이다. 하지만 농업문화가 발달할수록 상대적으로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도에 수리관개시설물이 설치되었으며, 영농 기계화를 위해 경지정리사업 간에 하천제방을 구축하면서 유로를 직선화하였다. 이러한 하천구조변화는 유속 흐름 방해, 생물들의 종적 이동 방해, 자정 기능 방해 등 하천의 생태성을 방해해 왔다.

③ 생태하천 복원

서호천은 수원천과 달리 하천 훼손과 오염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서호천 유역에 공업지가 조성되면서 도시화 영향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하천 유역의 도시밀집도가 높아지면서 배후 시가지의 치수 관리를 위한 유로 직선

화와 제방 구축 등의 하천구조 변화에 의한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서호천 유역의 공업시설은 1990년대 지방 또는 해외로 이전하면서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될 때 하천은 친환경적인 공법에 의해 제방이 축조되고 하천 환경이 개선되었으나 하도에 설치된 보와 낙차공 등 수리관개시설은 계속 존속하여 유속흐름 방해, 생물들의 종적 이동을 방해하여 왔다.

서호천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시가지 밀집도가 높지 않았고, 1990년대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과 생태농업문화 발달로 인해 수원천에 비하면 하천 생태성 훼손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호천의 생태하천 복원은 상류 이목교부터 농대교까지 8.3km를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복원하였다. 서호천 생태복원 구간에 하도 내 보와 낙차공을 걷어내고 여울과 소를 조성하였으며, 하천의 비오톱을 전면 개선하였다. 이때 하천내부 친수시설도 같이 설치되어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서호천 수계상에 있는 만석거에는 1998년 만석공원이 조성되었고 축만제는 1996년에 서호공원이 조성되었다. 공원은 저수지 일부를 매립하여 조성하였으며, 지역민에게 공원은 생활문화공간이 되고 있다. 게다가 만석거와 축만제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문화적 가치로도 인정받았다. 서호천도 생태하천 복원으로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이용하게 되면서 생태와 문화가 공존하는 장소가 되었다.

〈표 14〉 도시개발과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경관)	생태 변화
유역 개발	토지이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 변화 -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 훼손
농업연구 특화지역 조성	농업문화, 통일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변화 • 하천 오염
친수시설	산책로, 힐링,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복원 - 하도 내 여울 조성 -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 복원

라. 소결론

서호천은 화성신도시 건설 이후 화성의 운영유지를 위해 국영농장인 둔전 조성 과 함께 저수지 축조로 형성된 수계이다. 서호천의 하천 변화는 조선 후기 화성의

생산시설 조성을 위해 자연하천의 물길을 막아 만석거와 축만제를 축조하면서 하천지형이 변화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풍부한 물과 농경지가 확보된 서호천 유역에 권업보범장과 농림학교가 입지하였으며, 근·현대 도시변화 과정에서 산업화 영향으로 공업지가 조성되면서 배후 도시의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이 축조되었다.

〈표 15〉 서호천 생태문화적 특징 및 기능

구분	생태 및 친수 기능	농업문화역사	생태 기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원된 하천, 생태성 비율 60% 이상 • 이용이 많은 하천 • 생태와 친수 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역사문화자원 분포 • 정체성과 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 • 생태·친수·역사공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생태적 공간 평가결과 생태성 비율 90% 이상
구간	파장IC-한마루사거리	한마루사거리-축만제	중보교-기안교
하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목교부근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만제와 향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보교 뽕뽕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 징검다리여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농업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리교 부근 

도시성장에 따라 하천 유역은 시가지 면적이 점점 높아졌으며, 기존 공업지는 대규모 주거지로 개발되면서 배후 시가지의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은 더욱 견고하게 구축되었으며 소하천은 매립되고 불투수 포장의 증가와 주변토지이용 변화로 하천 생태에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서호천은 1990년대 이후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로 하천유역 개발밀도가 높지 않으며, 주변 토지이용과 하천 사이에 완충지대가 형성되어 있고 하천제방은 수림대가 형성되어 있다. 2000년대 들어서 상류부터 농대교까지 복원되면서 관개시설로 이용되던 보와 낙차공을 제거하고 여울과 소를 조성하여 생물서식처 기능을 회복하였다. 하천 내부 둔치에 산책로를 설치하고 제방 상부에는 자전거도로와 쉼터,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천 복원으로 하천 식생과 야생조류 서식 환경이 복원되고 하천내부 친수시설이 설치되면서 문화와 생태가 융합되어 현재의 서호천이 되었다. 생태문화적 해석 결과 서호천은 한국 농업 발전과 함께 변화되어 온 하천으로 한국농업의 메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서호천은 축만제 기준 상류구간은 비오톱의 생태성이 우수하며 하천 주변에 대규모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어 지역민의 이용이 많은 곳으로 생태 및 친수 기능을 갖고 있다. 축만제 부근은 농업문역사 특징을 갖고 있으며, 하류는 미복원 구간으로 생태 기능을 갖고 있다.

3) 원천리천

(1) 문화적 특성

가. 주변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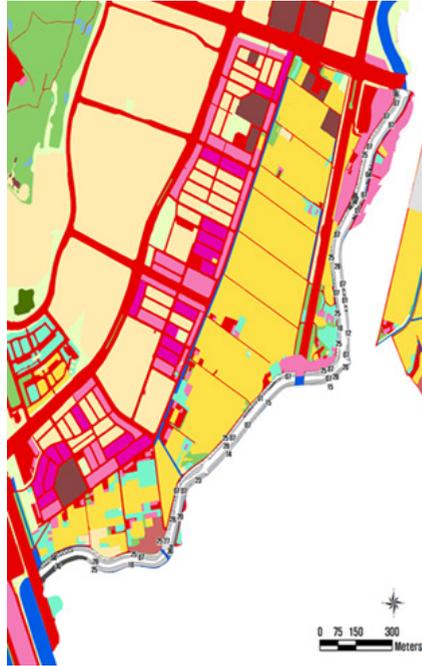
원천리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신대저수지와 원천저수지에서 방류된 물줄기가 합류되면서 원천리천을 이룬다. 원천리천은 하천 연장 9km, 유역 면적은 39.75km², 유로 연장이 14.14km, 유역 평균 폭 3.67km인 지방하천으로 본류인 국가하천 황구지천 유역의 상류부에 위치한다.⁴⁵ 원천리천의 주변 토지이용은 광교신도시 구간을 제외하고 하천 주변 토지이용은 2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상류에는 광교신도시가 있고, 원천2교부터 백년교 구간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공업지가 위치한다. 하류는 망포지구 개발지와 농경지, 건축자재 창고 등이 분포하고 있다. 수원시의 최초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작성된 1969년 도시기본도(그림 23)에서 원천리천 주변 토지이용을 확인해 보면 모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약 7년이 경과한 1977년 도시기본도(그림 24) 토지이용을 확인해 보면 원천리천 중류 부근에 1969년에 이전한 삼성전자(주) 공업지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모두 농경지이다. 대신 농경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 하지만 2015년 도시기본도(그림 25)를 통해서 원천리천 주변의 토지이용을 확인해 보면

45 수원시, 2012,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그림 21〉 원천리천 삼성공업지 주변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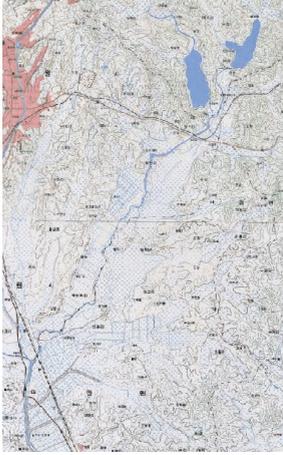


〈그림 22〉 원천리천 하류 주변 토지이용

하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원천저수지 하단부터 유역 대부분이 시가지 면적으로 뒤덮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천리천 주변 토지이용이 상류와 하류로 구분되는 것은 수원시의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다. 1980년대 삼성전자(주) 공업지를 중심으로 맞은편에 매탄지구 택지가 개발되었고 1990년대는 영통 신시가지가 개발되었다.⁴⁶

2005년부터 2012년에는 광고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원천리천 상류는 모두 도시화 되었고, 현재는 하류에 해당되는 곡반정교 부근에는 망포지구 주거지가 개발되고 있다. 머지않아 원천리천 하류의 농경지와 소규모 공업지도 개발되어 곧 시가지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이 많아질수록 배후 시가지의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이 견고해지고 불투수 포장의 증가로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46 이창수, 2014,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그림 23〉 1969년 원천리천변 시가지 분포도



〈그림 24〉 1977년 원천리천변 시가지 분포



〈그림 25〉 2015년 원천리천변 시가지 분포도

나. 문화자원

원천리천의 문화자원은 역사자원은 없고 인문자원으로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광교호수공원)와 도시개발과정에서 입지한 삼성전자(주)의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이노베이션박물관이 있다(표 16).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산미증산대책 일환으로 1929년에 축조되었으며, 1972년에는 유원지로 개발되었다가 2012년 광교신도시 개발시 광교호수공원이 되었다. 삼성디지털시티는 1969년 삼성전자(주) 공장이 원천리천 유역에 입지하면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약 45만 평 부지에 삼성디지털시티를 형성하고 있다. 삼성디지털시티 내에 삼성전자

〈표 16〉 원천리천과 관련된 문화자원과 하천 영향

구분	관련 문화자원	기능	하천 영향	
인문 자원	저수지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광교호수공원)	• 농업 용수 • 친수복합문화공간	• 수계 형성 • 하천지형 변화
	도시 개발	삼성디지털시티	• 수원시 산업화 및 도시화 견인 • 우수 및 오수처리 통로로 하천 이용	• 하천구조 변화 • 주변 토지이용 변화 • 하천 훼손
		삼성이노베이션 박물관	• 하천 유역 산업역사	

산업의 역사와 제품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삼성이노베이션박물관이 있다. 하천 유역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배후시까지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이 구축되면서 하천 구조와 하천생태에 영향을 준다.

다. 친수시설

원천리천은 광교호수공원부터 하천을 따라 내부에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원천2교부터 백년교 구간은 조사면적 7만 4,454㎡ 중 친수시설 면적이 9,445㎡로 비율은 12.7%이다. 하천 내부 둔치에 산책로와 체육시설, 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주변 주거지의 지역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곡반정교부터 대성교 구간은 미복원 상태로 친수시설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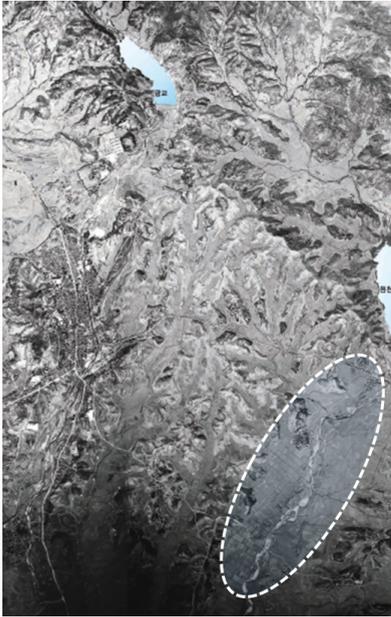
(2) 생태적 특성

가. 하천구조 변화

1929년에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가 축조되었다. 저수지 축조 이후에는 수리 관개를 위해 하천에는 제방이 축조되고 하도에는 보가 설치되었다. 1947년 수원시 항공사진<그림 26>을 보면 원천저수지가 나타나고 저수지 아래로 수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천은 자유 유로를 보이고 있고, 유역은 대부분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1977년 항공사진<그림 27>을 보면 원천리천 중류에 농업지가 나타나고 직선 유로를 보이는 반면, 원천저수지 직하단과 하류에는 모두 곡선 유로를 보인다.

하천유로와 직접적인 제방축조 기록을 확인해 보면 원천제와 신남제가 1965년에 축조되었고, 곡선제가 1973년, 매탄제가 1982년에 축조되었다.⁴⁷ 1980년대 삼성전자 농업지 앞의 매탄지구 개발과 병행하여 제방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하천내부 보와 낙차공은 상류부터 곡반정교까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하도에는 시설물이 없고 곡반정교부터 대성교 구간에는 보 2개, 낙차공 5개가 남아 있어 하천의 생물 이동 통로로서 종적 연결성은 좋지 못하다.

47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stream.go.kr); 『진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14.



〈그림 26〉 1947년(항공지도) 원천리천 유로 변화



〈그림 27〉 1977년(항공사진) 원천리천 유로 변화

나. 비오톱

비오톱 현황은 복원된 구간인 원천2교부터 백년교까지 조사면적 7만 4,454㎡ 중 수면 및 퇴적지가 36.3%, 초본식생지 26.8%, 조성수 식재지 13.8%, 목본식생지 10.4%, 시설지 12.7% 순이다.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수면적이 넓고 퇴적지는 없다. 초본식생지에는 습지자생초지가 14%로 갈대와 물억새가 우점종이다. 둔치에는 건조자생초지가 면적 비율 6.4%로 쭉과 개밀이 우점종이다. 외래종초지 면적 비율은 6.4%이며 큰 김의털이 우점종이다.

자생목본식생지의 면적 비율은 9.1%로 버드나무가 우점종이다. 버드나무는 백년교 부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하반림으로 판단된다. 시설지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다. 이 구간의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자생목본식생, 자생습지초지, 자생건초지, 수면적을 종합해 보면 65.8%로 생태 환경은 양호한 편이다. 미복원 구간인 곡반정교부터 대성교까지 조사 면적 11만 4,076㎡ 중 수면적이 41.8%, 초본식생지 35.4%, 조성녹지 13.8%, 목본식생지 5%, 시설지 4% 순이다. 세부 현황을 고찰해 보면 하천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천 내부는 자연상태로 수면적이 넓고

습지자생초지가 수변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수변에는 초본식생 중 습지자생초지 면적 비율이 25.7%로 갈대가 우점종이다. 자생목본식생지는 버드나무가 우점

〈표 17〉 원천리천 비오톱 유형별 면적 및 비율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	비율(%)	
					소분류	중분류
북원구간 (원천2교 ~백년교)	목본식생지	자생목본식생지	01. 버드나무	6,800	9.1	9.1
			04. 아까시나무	958	1.3	1.3
	초본식생지	습지자생초지	07. 갈대	9,146	12.3	14.0
			11. 물억새	1,282	1.7	
		건조자생초지	14. 쭉	1,780	2.4	6.4
			16. 개밀	2,967	4.0	
		외래종초지	20. 큰김의털	4,610	6.2	6.4
			21. 토끼풀	123	0.2	
	조성녹지	조경수식재지	25. 기타 식재지	10,300	13.8	13.8
	수면 및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27,042	36.3	36.3
시설지	이용 및 시설지	31. 산책로	9,445	12.7	12.7	
합계				74,454	100.0	100.0
미북원구간 (곡반정교 ~대성교)	목본식생지	자생목본식생지	01. 버드나무	2,676	2.3	2.3
			04. 아까시나무	2,777	2.4	2.7
		외래목본식생지	06. 죽제비싸리	258	0.2	
	초본식생지	습지자생초지	07. 갈대	28,326	24.8	25.7
			12. 갈풀	1,027	0.9	
		건조자생초지	14. 쭉	1,773	1.6	7.8
			15. 쇠뜨기	2,495	2.2	
			18. 갈퀴나물	4,578	4.0	
		외래종초지	20. 큰김의털	1,558	1.4	1.9
			23. 환삼덩굴	572	0.5	
	조성녹지	조경수식재지	25. 기타 식재지	15,157	13.3	13.3
		원예초본식재지	27. 원예초본식재지	596	0.5	0.5
	수면 및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47,667	41.8	41.8
	시설지	기타 시설지	30. 경작지	3,363	2.9	2.9
			34. 기타시설	1,253	1.1	1.1
	합계				114,076	100.0

으로 곡반1교 부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존 하반림으로 판단된다. 외래목본식생은 아까시나무가 우점종으로 대성교 부근 도로변에 분포하고 있어 제거가 필요하였다. 이 구간의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수면적, 자생목본식생지, 습지자생초지, 건조자생초지의 면적 비율은 전체면적의 77.6%로 하천 생태환경은 양호하다.

다. 야생조류

원천리천의 야생조류 조사결과 출현종의 종수 및 개체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9종 18개체가 관찰되었다. 채이 길드별 출현종으로 관목종은 울새 1개체가 출현하였고, 물가종은 4종 6개체, 수관종은 박새 1개체가 출현하였다.

수면종은 흰뺨검둥오리가 3개체 출현하였고, 인가종은 까치, 참새 2종 6개체가 출현하였다. 이 중에서 수면종이 14개체로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수면종과 물가종의 물새류가 출현한 지점은 삼성전자 공업지가 있는 종류보다는 친수시설이 없는 하류 낙차공이 있는 곳과 습지자생초지 분포도가 높은 곳이다. 하천식생이 생태적인 곳에 물새류의 출현이 많았으며, 이는 먹이 채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천리천의 문화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주변 토지이용은 삼성전자 공업지가 있는 구간은 하천 복원이 이루어졌으며 곡반정교 아래 하류는 개발지와

〈표 18〉 원천리천 야생조류 출현 현황

채이길드	종명	학명	서식유형	개체수
관목	울새	<i>Enithacus sibilans</i>	PM	1
물가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WV	1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SV	2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SV	1
	개개비	<i>Acrocephalus orientalis</i>	SV	2
수관	박새	<i>Parus major</i>	Res	2
수면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WV	3
인가	까치	<i>Pica pica</i>	Res	2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4
총합계				18

* 서식유형은 Res(텃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

농경지, 소규모 공장이 있으며, 하천은 미복원상태이다. 문화자원과 친수시설은 복원된 구간에 있으며 지역민의 이용이 많다. 복원구간은 비오톱의 생태성 비율은 65.8%이며, 미복원 구간인 하류는 77.6%로 상류보다 생태환경은 양호하였다. 물새류도 전 구간에서 관찰되었으나 하류구간에 더 많이 출현하였다. 이는 도시하천에서 인간 간섭이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18〉 원천리천 야생조류 출현 현황

채이길드	종명	학명	서식유형	개체수
관목	울새	<i>Enithacus sibilans</i>	PM	1
물가	만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WV	1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SV	2
	노랑할미새	<i>Motacilla cinerea</i>	SV	1
	개개비	<i>Acrocephalus orientalis</i>	SV	2
수관	박새	<i>Parus major</i>	Res	2
수면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WV	3
인가	까치	<i>Pica pica</i>	Res	2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4
총합계				18

* 서식유형은 Res(뒷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

(3) 생태문화적 해석

가. 자연하천 이용 농업용수 확보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는 일제강점기에 수릉수리조합을 통해 축조된 저수지이다. 수릉수리조합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과 수지면, 수원군 안룡면과 태장면 일대의 관개(灌溉)를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⁴⁸ 저수지가 축조되므로 인해 원천리천 수계가 형성되었고 인공 제방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원천리천은 수원시의 가장 동측에 있는 하천으로 주변 도시개발은 수원천과 서호천에 비해 늦게 유역이

48 박수현, 2014, 「일제하 수원의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 『수원시사 5 : 수원의 토지소유 구조와 농업경영』, 수원시사편찬위원회.

개발되었다.

원천리천은 수원의 중심인 화성으로부터 거리상으로 이격되어 있어 1970년대 이전까지는 주변이 모두 농경지였고 하천수는 농업용수로 이용되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 하도에는 보, 양수시설 등이 설치되면서 하천구조를 변화시켰다. 하천구조 변화는 궁극에는 유속 방해, 생물 종적 이동 방해, 하천 자정기능 저하 등으로 비오톱에 영향을 미치고, 하천식생의 소비자군에 해당되는 야생조류 서식에 영향을 미친다.

〈표 19〉 저수지 축조와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	생태 변화
저수지 축조 농업용수	원천저수지, 신대저수지	• 하천구조 변화 - 제방, 보, 낙차공

나. 도시개발과 하천 생태성 변화

① 주변 토지이용 변화와 하천구조 변화

원천리천은 1970년대 이전까지는 농업용수로 이용되었던 하천이었으나 1970년 이후 도시개발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현재 수원시의 하천 유역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⁴⁹ 원천리천 주변의 토지는 하류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원천저수지 하단부터 유역 대부분이 시가지화되어 있다. 원천2교-백년교 구간의 주변토지이용은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 공업지의 삼성디지털시티가 있다. 이 구간은 1969년 삼성전자(주)의 입지, 1980년대 삼성전자 공업지 맞은편에 매탄지구 개발 등 도시의 치수 관리를 위해 하천 제방이 인공적으로 구축되면서 하천 구조에 영향으로 주었다. 원천리천의 하류 곡반정교-대성교 구간은 망포지구 개발지, 소규모 공업지,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이 구간은 1970년대 농경지 경지정리로 인공 제방이 축조되면서 유로가 직선화되었다.

원천리천 유역의 도시화는 1969년 삼성전자(주)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에 있는 삼성전자가 원천리천 유역에 위치하게 된 배경은 수원이 수도권

49 『수원시 인구통계연보』(www.suwon.go.kr).

으로 서울과 가깝고 1968년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동수원IC와도 가까워 교통의 편리성, 그리고 산업용수의 확보와 처리문제 또한 고려대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장을 가동시키는 것에는 물이 필요하겠지만, 공장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수를 흘러보내는 오수관과 우수관 역시 고려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원천리천으로 유입되는 산업 처리수 배출량은 삼성전기에서 1일 2,746톤, 삼성전자에서 1일 만 톤을 자체 정화하여 배출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산업처리수 배출구는 원천리천 하류 곡선교 부근에 있다. 또한 삼성전자 공업지와 연해 있는 원천리천 제방에는 우수관로가 하천과 연결되어 있으며, 원천리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삼성전자의 수원 입지는 수원시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삼성전자로 인한 고용 촉진, 인구 증가, 관련 업체의 지역 유치, 사업 관련자 방문 등 파급 효과를 고려한다면 수원 경제를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전자 수원공장은 삼성전자 본사이자 제조 및 연구복합단지로서 ‘삼성디지털시티’라고 이름 붙여 있으며, 원천리천 유역의 1/3에 달하는 산업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하천이 있었기 때문에 원천리천 유역에 삼성전자 공업지가 입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 산업화와 도시화 촉진을 유발하였으며, 치수 관리를 위해 제방이 구축되면서 하천구조가 변화되었다.

② 생태하천 복원

원천리천은 삼성전자 공업지가 조성된 이후 하천 유역은 급속하게 도시화 되면서 하천 생태에 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매탄지구 개발, 1990년대 영통신도시 개발 등으로 배후 도시 치수 관리로 유로가 직선화되었고, 삼성전자(주) 입지 이후 삼성전기, 삼성전자와 관련 업체들이 하천유역에 추가로 입지하면서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쳤다. 하천 오염은 결과적으로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 환경을 훼손시켰다.

훼손된 원천리천의 생태하천 복원은 2000년도부터 2005년에 원천교부터 백년교까지 3.75km에 대하여 하도 내 보와 낙차공 제거 및 여울 조성, 하천식생 개선, 친수시설 설치 등 생태적으로 복원하였다. 또한 광교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원천리천 상류의 지류 하천까지 모두 생태적으로 복원되었다. 원천리천은 광교신도시부터 곡반정교까지는 하천 내부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고 체육시설, 쉼터 등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표 20〉 도시개발과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	생태 변화
유역 개발	토지이용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 변화 •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 훼손
삼성전자 입지	삼성전자 공업지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 변화 •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 훼손
친수 시설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복원 - 하도 내 여울 조성 - 비오톱, 야생조류 서식 복원

다. 소결론

원천리천은 일제강점기에 원천저수지와 신대저수지를 축조하면서 형성된 수계이다. 하천은 수계 형성 이래 오랫동안 주변 농경지의 농업용수로 이용되었다. 원천리천의 하천 변화는 1969년 삼성전자 공장이 입지하면서부터이다. 삼성전자 공장이 입지한 이후 급속하게 하천 유역이 개발되었다.

도시성장에 병행하여 원천리천 유역은 지속적인 개발이 진행되면서 현재 하천 유역은 공업지, 대규모 주거지로 변모하였다.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변 토지이용뿐만 아니라 하천구조 변화, 유역의 소규모 공장과 주거지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로 하천 생태를 훼손시켰다.

원천리천은 서호천보다 하천 복원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 2000년부터 2005년에 원천교부터 백년교까지 3.75km를 복원하였다. 하천 복원 시 하도 시설물 제거, 여울 조성, 하천 식생 복원, 야생조류 서식환경 복원 및 하천 내부 산책로와 쉼터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였다.

하천 복원으로 하천 식생과 야생조류 서식 환경이 복원되었고 친수시설이 함께 설치되어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도시하천으로 지역민의 친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류는 여전히 미복원 상태이며 하천 비오톱의 생태성 비율이 복원된 하천보다 양호하다. 이는 향후 복원 시 참고가 필요하다.

원천리천은 수원시 하천 유역 중 인구분포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도시 환경과 도시민의 여가와 힐링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중요성이 높은 하천이다. 생태문화적 해석 결과 원천리천은 하천 유역의 1/3이 삼성전자 공업지의 산업경관을 갖고 있는 도시하천으로 수원시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견인한 하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원천리천의 특징은 하천 유역 1/3을 공업지가 산업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친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류는 생태 기능을 갖고 있다.

〈표 21〉 원천리천 생태문화적 특징과 기능

구분	산업경관과 친수 기능	생태 기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역 대부분 산업경관 • 생태와 친수 기능 • 지속적 경관보존/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생태적 공간 평가결과 생태성 비율이 70% 이상
구간	구간 I (원천2교-백년교)	구간 II (곡반정교-대성교)
하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전기 공업지앞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곡반정교 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디지털시티와 산책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리천 하류 

4) 황구지천

(1) 문화적 특성

가. 주변 토지이용

황구지천은 의왕시와 수원시 경계에 위치한 왕송저수지에서 남하하면서 금곡천 및 일월천과 합류하여 남쪽으로 흐르다가 서호천과 합류하여 대황교동 지점에서 수원천과 원천리천과 합류한 후, 국가하천인 황구지천으로 유입된다. 황구지천의 하천연장은 13.18km, 유로연장은 약 18.15km, 유역면적은 85.63km², 유역 평균 폭은



〈그림 28〉 황구지천 상류 주변 토지이용



〈그림 29〉 황구지천 하류 주변 토지이용

4.51km이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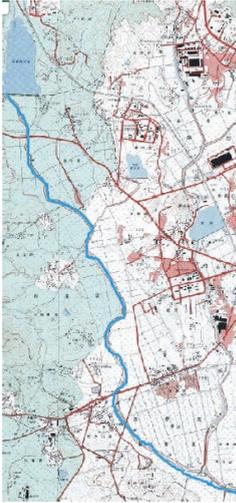
황구지천은 수원시의 4개 수계 중 가장 개발이 늦었고 주변 토지이용은 2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왕송저수지 직하단부터 금곡교 구간의 주변 토지이용은 농경지이다. 황구지천의 하류 솔대교부터 서호천과 합류되는 기안교 구간으로 농경지와 고색산업단지가 있고, 하천 제방에서 호매실지구와 권선행정타운 시가지가 조망된다.

1986년 도시기본도(그림 30)를 통해서 하천 주변 토지이용을 확인해 보면 대부분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도 도시 기본도(그림 31)에서는 토지이용을 비교해보면 봉담과천 고속화도로와 금곡지구, 호매실지구 등이 나타나고 있다. 2015년 도시기본도(그림 32)에서는 도로와 시가지 면적 분포가 훨씬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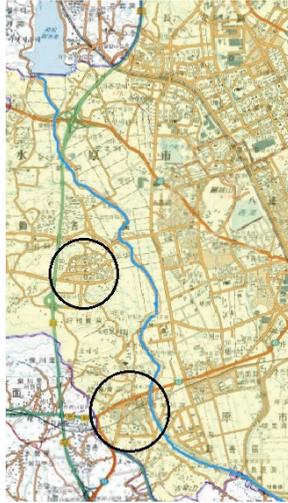
황구지천은 수원천과 서호천, 원천리천과 다른 토지이용 형태를 보이는 것은 도

50 수원시, 2012,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행정구역 변화와 관련이 있다. 황구지천의 상류는 1980년대까지 화성군의 행정구역에 있다가 1991년에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⁵¹ 그리고 칠보산과 왕송저수지 하단의 넓은 농경지는 1970년대부터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농경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림 30〉 1986년 황구지천 시가지 분포도



〈그림 31〉 2000년도 황구지천 시가지 분포도



〈그림 32〉 2015년 황구지천 시가지 분포도

황구지천의 하류는 1990년대에 수원시에 흩어져 있던 공업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 형태를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고색산업단지 조성은 1996년부터 추진하여 2015년에 완성하였다. 황구지천 주변 토지이용을 통해서 정부정책과 수원시의 도시 변화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현재 황구지천 지역의 농업 경관이 유지되고 있는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나. 문화자원

황구지천은 역사자원은 없고, 인문자원으로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 매실길, 고

51 이창수, 2014,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색뉴지엄이 있고 자연경관으로 하천 경관과 농업 경관이 있다(표 22). 황구지천은 타 하천과 달리 하천 양안으로 건물이 없어 오픈 스페이스의 하천 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주변 논 경작지는 계절마다 다른 농업 경관은 형성한다. 인간의 삶과 가장 밀접한 농업 경관이야말로 생태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3〉 황구지천 하천 경관과 농업 경관(2021년 7월 6일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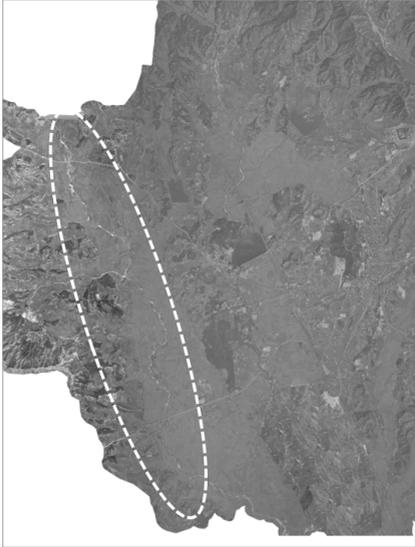
〈표 22〉 황구지천 관련된 문화자원과 하천 영향

구분		관련 문화자원	기능	하천 영향
인문 자원	저수지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	• 농업 용수 • 친수공원	• 수계 형성 • 하천지형 변화
	도시 개발	고색뉴지엄 매실길	• 공업 용수 처리 문화공간 • 힐링, 친수, 자연학습	• 주변 토지이용 변화 • 주변 경관
기타 자원	경관	하천경관 농업경관	• 친수 • 농업용수	• 주변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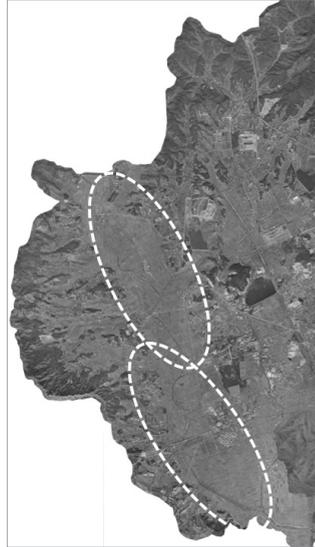
(2) 생태적 특성

가. 하천구조 변화

황구지천은 미복원 상태이다. 따라서 친수시설은 없고 하도에 보와 낙차공이 남아 있다. 일부 보는 현재에도 농업용수에 이용되고 있다. 황구지천은 일제강점기인 1944년 왕송수리조합이 결성되어 1948년에 왕송저수지가 축조되면서 수계가 형성되었다. 주변 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이며,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성이 높은 하천으로 규모가 큰 편이다.



〈그림 33〉 1966년(항공사진) 황구지천 유로 변화



〈그림 34〉 1977년(항공사진) 황구지천 유로 변화

해방 후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던 1966년 항공지도(그림 34)를 보면 왕송저수지 아래로 자유 유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77년 항공사진(그림 35)에는 부분적으로 직선 유로를 보인다. 황구지천의 유로 직선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방축조 기록을 보면 배양제, 오목천제, 고추말제, 고색제, 천천제, 탐리제, 호매실제가 1972년부터 1975년 사이에 축조되었다.⁵² 1970년대는 경지정리사업이 한창 추진되었던 시기로 황구지천 유역은 대부분 농경지이므로 하천제방 축조와 함께 유로가 직선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하천 제방 축조와 함께 유로가 직선화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구지천은 하도 내 보와 낙차공이 지금까지 남아 있고 현재에도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기존부터 설치되어 있던 하도 내 시설물들은 하천의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황구지천은 주변 농경지와의 횡적 연결성은 양호하나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종적 연결성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2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stream.go.kr); 『진위천 하천정비기본계획』 2014.

나. 비오톱

황구지천의 비오톱은 조사 면적 290,464㎡ 중 초본식생지가 49.9%, 수면적 및 퇴적지 35.1%, 목본식생지 14.8%, 조성녹지 0.3% 순이다(표 23). 비오톱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본식생지에서 습지자생초지 31.61%로 갈대와 부들이 우점종이다. 건조자생초지는 18.3%였으며 쭉과 쇠뜨기가 우점종이다. 외래종은 큰김의털이 5.3% 분포하였다. 자생목본식생은 버드나무가 우점종이며 하천 제방을 따라 길게 분포하고 있고 하천 내부 둔치가 없고 제방과 수로가 연해 있는 자연상태이다.

황구지천은 전체적으로 미복원 하천으로 하천 비오톱은 오랫동안 인간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습지자생초지 분포 비율이 높고, 자연하천에 가까운 하천 식생을 보이고 있다. 모래톱과 자갈톱은 왕송저수지 직하단과 장수천교 하단에 형성되어 있고, 시설지는 없다. 하천 생태성 비오톱에 해당되는 자생목본식생, 습지자생초지, 수면적 등의 비율은 90.5%로 매우 우수하다.

〈표 23〉 황구지천 비오톱 유형별 면적 및 비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면적(㎡)	비율(%)	
				소분류	중분류
목본 식생지	자생목본식생지	01. 버드나무	31,435	10.8	10.8
	외래목본식생지	04. 아까시나무	11,714	4.0	4.0
초본 식생지	습지자생초지	07. 갈대	88,723	30.6	31.6
		09. 부들	2,394	0.8	31.6
	건조자생초지	13. 강아지풀	629	0.2	13.0
		14. 쭉	11,513	4.0	13.0
		15. 쇠뜨기	25,691	8.8	13.0
	외래종초지	20. 큰김의털	15,438	5.3	5.3
조성 녹지	조경수식재지	24. 자생조경수식재지	884	0.3	0.3
수면/ 퇴적지	수면 및 퇴적지	28. 수면	102,030	35.1	35.1
시설지	기타 시설지	34. 기타시설	13	0.0	0.0
소계			290,464	100.0	100.0

다. 야생조류

황구지천 야생조류 조사결과 출현종의 채이길드에 따른 종수 및 개체수 현황은 총 10종 80개체가 관찰되었다(표 24). 이 중에서 관목종은 멧비둘기, 붉은머리오목눈이 2종 11개체, 물가종으로 민물가마우지, 왜가리, 중대백로, 쇠백로, 황로 등 5종 15개체, 수면종은 흰뺨검둥오리가 22개체, 인가종으로 까치와 참새 8개체가 관찰되었다. 하천의 생태성을 평가하는 물새류의 종수와 개체수가 많았으며, 물가종 중에서 중대백로와 황로, 수면종이 붉은 오목눈이가 인근 농경지에서 관찰되었다. 하천과 인근농경지의 먹이자원 등 횡적 연결성을 비롯하여 야생조류 서식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4〉 황구지천 야생조류 출현 현황

채이길드	종명	학명	서식유형	개체수
관목	멧비둘기	<i>Streptopelia orientalis</i>	Res	3
	붉은머리오목눈이	<i>Paradoxornis webbiana</i>	Res	26
물가	민물가마우지	<i>Phalacrocorax carbo</i>	WV	2
	왜가리	<i>Ardea cinerea</i>	SV	1
	중대백로	<i>Egretta alba modesta</i>	SV	6
	쇠백로	<i>Egretta garzetta</i>	SV	2
	황로	<i>Bubulcus ibis</i>	SV	4
수면	흰뺨검둥오리	<i>Anas poecilorhyncha</i>	WV	28
인가	까치	<i>Pica pica</i>	Res	3
	참새	<i>Passer montanus</i>	Res	5
합계				80

* 서식유형은 Res(뒷새), SV(여름철새), WV(겨울철새), PM(나그네새)

황구지천의 생태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종합해 보면 주변 토지이용이 대부분 농경지이다. 문화자원은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가 있고 하류에는 고색뮤지엄이 있다. 하천 제방을 따라 수원시 둘레길인 매실길이 조성되어 있다. 매실길을 따라 걸으면서 하천 경관과 농업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황구지천은 1948년 왕송저수지 축조로 수계가 형성되었고 주변 농경지에 농업 용수로 이용되어 왔다. 하도에는 보와 낙차공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하천의 생태

성 비오톱 비율은 90.5%로 매우 높으며 야생조류는 10종 80개체가 출현하였다. 야생조류 중 흰뺨검둥오리와 중대백로, 황로가 인근 농경지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하천과 농경지와의 횡적으로 연결성이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천은 전체가 미복원 상태로, 오랫동안 인간활동에 의한 교란이 없어 자연하천에 가까운 생태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생태문화적 해석

가. 왕송저수지 축조와 수계 형성

황구지천은 왕송저수지가 축조되면서 형성된 수계이다. 왕송저수지는 1944년 왕송수리조합이 결성되어 해방 후 1948년에 축조되었다. 일월저수지는 1939년에 일월수리조합이 결성되어 1941년 축조되었으며 현재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다.

왕송저수지와 일월저수지 축조 이후 인공제방이 축조되고 주변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하도 내에 보와 낙차공 등 수리관개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도에 설치된 수리관개시설은 유속 방해, 생물 종적 이동 방해, 자정 기능 저하 등으로 비오톱과 야생조류 서식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표 25〉 저수지 축조와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	생태 변화
저수지 축조 농업 용수	왕송저수지, 일월저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구조 변화 - 제방, 하도 변화(보, 낙차공)

나. 도시개발과 주변 토지이용 변화 및 하천구조 변화

황구지천은 오랫동안 도시개발에서 배제되어 농경지로 이용되었다. 황구지천의 주변토지이용이 수원천과 서호천, 원천리천과 다른 토지이용형태를 보이는 것은 도시행정구역 변화와 관련이 있다. 황구지천의 상류(왕송저수지 직하단-금곡교)는 1980년대까지 화성시의 행정구역에 있다가 1991년 화성군 매송면 금곡리와 호매실리가 수원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었다. 칠보산과 왕송저수지 하단의 넓은 농

경지는 1970년대부터 생산녹지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어 현재까지 농경지 경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황구지천의 하류(솔대교-기안교)는 1990년대에 수원시에 흡여져 있던 공업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면서 현재와 같은 토지이용형태를 보이고 있다.

황구지천은 수계가 형성된 이래 1990년대까지는 주변에 농경지가 분포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정책에 따라 수원시의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칠보산 하단 구릉지와 황구지천 사이에 칠보 지구와 금곡지구가 개발되면서 황구지천의 유역이 도시화 영향을 받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호매실지구와 권선행정타운, 하류에는 고색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하천 유역에 도시화 면적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하천 제방과 인접해서 건축물은 없으며 대부분 농경지와 수변공원이 설치되어 완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황구지천 주변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이다. 1970년대 경지정리사업 간에 하천 제방을 인공적으로 축조하면서 유로를 직선화하였다. 하천 유로가 직선화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하천구조는 그대로 지속되어 왔다. 하천구조 변화는 비오톱과 하천식생과 야생조류 서식에도 영향을 준다.

〈표 25〉 저수지 축조와 하천 생태 영향

하천 이용	문화 형성	생태 변화
농업 용수(상류)	농업 문화, 주변 토지이용 변화	• 하천구조 변화
유역 개발(하류)	고색산업단지, 주변토지이용변화	• 비오톱 영향 • 야생조류 서식 영향

다. 소결론

황구지천은 1948년 왕송저수지 축조로 본 수계가 형성되었다. 황구지천 주변 토지이용은 대부분 농경지로 현재까지 농업용수로 이용되고 있다. 유역이 농경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 하천 변화는 왕송저수지 축조이후 하도의 보와 낙차공 등 하천 구조물은 구축되었고 유로 변화는 1970년대 경지정리 간에 제방이 축조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27〉 황구지천 생태문화적 특징 및 기능

구분	농업경관/농촌하천	생태 기능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관 유지 • 하천과 농경지 횡적 연결 • 지속적 경관보존 관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생태성 비율 90% 이상 • 자연하천에 가까운 생태 유지
구간	왕송저수지-금곡교	솔대교-기안교
하천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왕송저수지 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대교 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류 기안교부근 

하천의 비오톱 생태성 평가 결과 수원시의 하천 중에서 비오톱 생태성 비율이 가장 높은 하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70년 이전에 하천구조가 변했으나 오랫동안 인간활동에 의한 교란이 없는 상태에서 하천 생태계가 하천 환경에 적응하여 현재의 하천식생과 물새류의 서식 등 하천의 생태성이 회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황구지천은 전체적으로 미복원 상태로 현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농촌하천이며 생태적 특성이 매우 양호하다. 생태문화적 해석 결과 황구지천은 도시속의 농촌경관을 갖고 있는 생태하천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현재 황구지천의 특징은 농업경관과 농촌하천, 생태하천의 기능을 갖고 있다.

4. 결론 및 관리방향

수원시의 주요 수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원천, 서호천, 원천리천, 황구지천에 대하여 생태문화적 특성과 생태문화적 해석을 하였다. 그 결과 하천마다 생태문화적 특성과 정체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 동일 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도시성장과 개발과정에서 형성된 주변 토지이용과 문화자원 등으로 인해 하천환경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도시하천 관리는 도시계획의 공원녹지관리계획의 한 분야에 포함시켜 계획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관리지침 또한 동일선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하천은 도시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조건과 목적에 따라 하천의 문화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이 변화되어 왔고, 관리측면에서도 하천은 여러 개의 자치구를 걸쳐서 통과하기 때문에 지역민의 관심도에 따라 관리 자치구별로 차이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도시하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되면서 산책로, 쉼터, 체육시설 설치 등 거의 유사한 형태의 특색 없는 하천으로 변모되었고, 아직 복원되지 않은 하류의 하천도 생태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도시계획에 의거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도시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문화적 해석결과 도출된 하천별, 구간별로 고유특성과 정체성에 맞게 브랜드화하여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생태문화적 공간으로 관리가 필요하였다.

수원천은 생태문화적 해석결과 도시 형성부터 현재까지 민초들의 삶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수원도시 역사와 함께한 하천이다. 수원시 도시원형인 화성이 수계상에 있고, 민초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전통시장이 수계상에 있다. 하천의 친수시설은 지역민의 산책, 운동, 휴식 등 생활문화적 공간으로 이용이 가장 많은 하천이다. 관리방향은 생태문화적 특성에 따라 복수문부터 남수문 구간은 역사문화하천으로 관리목표를 정하고 역사문화와 하천을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수경관에 비친 역사문화경관 감상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참여 가능하도록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심속의 생태공간으로 지역민의 이용이 많은 것을 고려하여 생태보다는 친수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민의 생활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생태환경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서호천은 생태문화적 해석결과 한국농업역사와 함께한 한국 농업의 메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수계상에는 세계관개시설물 유산인 만석거와 축만제가 있고, 국립농업박물관과 경기상상캠퍼스, 서울대학교 수목원 등이 있다. 하천환경은 수원천과 달리 생태적이며, 하천 유역에는 대규모 주거지가 분포하고 있고, 지역민의 이용이 많다. 관리방향은 생태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축만제가 있는 구간은 농업 역사하천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국립농업박물관과 서울대학교 수원수목원, 경기상상캠퍼스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및 브랜드화가 필요하였다. 나머지 구간은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도록 생태 및 친수하천으로 관리목표를 정하고 생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였다.

원천리천의 정체성은 수원시 도시화와 산업화를 촉발시킨 하천으로 하천 유역 1/3이 산업경관을 갖고 있으며 도시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호수공원부터 백년교까지 친수시설이 연결되어 있어 쾌적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문화적 환경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원천리천 관리방향은 삼성전자 공업지 구간은 산업경관하천으로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하천생태와 삼성디지털시티와 삼성이노베이션 박물관과 연계한 산업 프로그램 개발로 원천리천만의 브랜드화가 필요하였다. 하류는 생태환경이 양호하므로 관리목표를 생태하천으로 설정하여 하천의 생태환경이 지속 유지되도록 관공서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하천 복원 시 생태환경을 참고하여 인위적인 개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다.

황구지천의 정체성은 도시 속의 농업경관하천이자 생태하천이다. 하천 전체가 미복원 상태이며 하천 주변에 건축물이 없다. 제방에는 수원시 둘레길인 매실길이 조성되어 있고 둘레길을 걸으면서 하천경관과 농업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황구지천의 하천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황구지천의 관리방향은 도시속의 농촌경관하천으로 브랜드화하여 수원시의 생태학습 및 어메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표 28〉 수원시 도시하천의 관리방향

해당하천(구간)		관리목표	관리방향
수원천	화성 성내 구간	역사문화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문화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 하천옹벽제방 상부에 역사문화경관 조망 공간 조성(테크형 쉼터)
	전 구간	친수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 친수시설 보강/편의성 제공
서호천	중류 구간	농업역사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역사문화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상류	생태친수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 친수시설 보강/편의성 제공 •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개발
	하류	생태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관리
원천리천	삼성전자 공업지구간	산업경관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성디지털시티와 연계 하천 브랜드화 • 생태와 친수 유지의 주민참여 유도
	하류	생태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관리
황구지천	상류	농업경관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관 브랜드화 및 관광자원화
	하류	생태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교육 학습장으로 이용 • 하천내부 수생태계 기능 지속 유지 관리

투고일 2023년 9월 30일 심사일 2023년 11월 1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15일

참고문헌

- 경기문화재단, 2005, 『화성성역의궤 국영증보판』 상 하.
- 구자옥, 2010, 「서둔별 근대농학 교육과 과학기술 전개」,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97~135쪽.
- 노재현, 2014, 「문화경관으로 보는 수원팔경의 형식과 의미」,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김도형, 2010, 「권업모범장 설립과정과 역사적 성격」, 『농업사연구』 9(1), 한국농업사학회, 35~54쪽.
- 김효중, 2011, 「도시하천의 인위적 경관변화 연구」, 한국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농촌진흥청, 2000, 「한국농업 근현대화 100년 기념 심포지엄 정책자료」.
- 박종필, 2017, 「수원화성의 풍수지리적 입지 특성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종철, 2006, 「정조시대 화성의 가로, 녹지, 수리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수원문화원, 2018, 『수원우시장』, 경기도문화원연합회.
- 수원시, 2000, 『수원시 도시계획 200년사』.
- 수원시, 2012, 『2020 수원 공원·녹지 기본계획』.
- 수원시, 2019, 『70, 수원 도시공간의 역사』.
- 수원박물관, 2014, 「문밖마을」.
- 수원박물관, 2016, 『연못마을·골목마을·벽화마을』.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 : 수원의 지리적 환경』.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2 : 수원의 도시공간과 도시구조』.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5 : 토지소유구조와 농업경영』.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6 : 수원의 산업과 경제성장』.
- 수원시사편찬위원회, 2014, 『수원시사 16 : 그곳에 가면 수원의 역사가 보인다』.
- 신영호·채혜성·이은석·이다혜·신필식·양세진, 2011, 「외암마을 물길의 경관생태학적 해석」, 『국토지리학회지』 45(3), 427~438쪽.
- 전영옥·이상문, 2008, 「전통도시 화성의 수로조영에 나타난 생태적 계획원리」, 『국토계획』 43(5), 도시계획학회지, 123~143쪽.
- 정성모, 2014, 「수원우시장의 성장과 변화」, 『수원시사 6 : 수원산업과 경제성장』, 수원시사

편찬위원회.

- 조명래, 2007, 「생태적 지역발전 페러다임의 모색」,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7~106쪽.
- 우한정 · 윤무부, 1989, 「원색한국조류도감」, 아카데미서적.
- 이도이, 2023, 「수원시 수체계에 대한 생태문화적 해석」,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희 · 강수학 · 구본학, 2015, 「북촌지역 바위글씨에 나타난 생태 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5, 178~181쪽.
- 이창수, 2014, 「수원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전개」, 『수원시사 2 : 수원도시공간과 도시구조』, 수원시사편찬위원회.
- 한동민, 2012, 『수원을 걷는다-근대 수원 읽기』, 수원박물관.
- 한봉호 · 김정호 · 손병도 · 이경재, 2005, 「서울시 월드컵공원 야생조류 군집 특성 및 생태적 관리방안」, 『한국조경학회지』 33(5), 43-56쪽.
-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2006,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제도정비방안과 추진전략」, 연구보고서 2006-12, 145쪽.
- 허명진, 2019, 「제주 올레길 생태문화자원 경관생태학적 해석 기법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환경부, 2019,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
- 日本造景學會, 1999, 『ラントスチーフユロツ』, 一技報堂出版, 1-5.
- 半田眞理子, 1989, 「都市の生態系と緑」, 『線と讀本』 10, 3-10.
- 국토지리정보원 (<https://www.ngii.go.kr/>).
- 수원시청 (<https://www.suwon.go.kr/>).
- 하천관리지리정보원 (<https://www.stream.g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www.encykorea.aks.ac.kr/>).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04, 『경관생태학』, 보문당.

요 약

본 연구는 수원시의 자연하천이 인간의 이용과 개발에 의해 도시하천으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문화와 하천의 생태 변화와의 상호관계를 해석하여 수원시 도시하천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생태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는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원시 도시하천의 생태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생태문화적 해석결과 하천별, 또 동일하천이라고 하더라도 구간별로 다르게 드러났다.

수원천은 수원시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수원도시원형 화성 건설 시 이용된 하천이며 수원시의 도시 성장에 따라 도시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도시의 골격이 되어 온 하천으로 정체성은 도시역사와 함께한 하천이며 역사문화경관과 친수 기능을 갖고 있다.

서호천은 수원시의 서측 중앙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조선후기 화성의 운영유지를 위한 농업을 위해 이용된 하천이며,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농업이라는 주제가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곳으로, 정체성은 한국 농업의 성지라는 자긍심이 내포된 한국농업역사하천이다. 하천의 특성은 농업문화역사와 생태 및 친수 기능을 갖고 있다

원천리천은 수원시의 동측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1970년대 삼성전자(주) 공업지가 입지하면서 하천 유역권이 개발되기 시작하여 현재 하천 유역권 중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하천으로 정체성은 수원시의 산업화를 견인한 하천이다. 하천의 특성은 산업경관과 친수 및 생태 기능을 갖고 있다.

황구지천은 수원시의 서측을 관통하는 하천으로 하천유역의 농경지는 오랫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까지 농업경관을 갖고 있는 도시속의 농업경관 하천이다. 수원시에서 생태환경이 가장 우수한 하천이다.

수원시에는 다른 도시에서 찾을 수 없는 4개의 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도시를 관통하며 저수지와 소하천이 유입된다. 이를 이용한 녹지네트워크 연결, 도시경관조성과 하천 생태와 문화를 연결한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

수원시 도시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태문화적 해석결과 도출된 하천별,

구간별로 고유특성과 정체성에 맞게 브랜드화하여 생태와 문화가 융합된 생태문화
적공간으로 관리가 필요하였다.

주제어 : 역사문화경관하천, 생태하천, 친수하천, 농업역사하천, 산업경관하천

ABSTRACT

Ec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of Urban Rivers in Suwon City and Management Direction

Lee Do-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urban rivers in Suwon by interpreting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culture and ecological changes in rivers formed in the process of changing natural rivers into urban rivers by human use and development and to suggest management directions that match ec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ec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urban rivers in Suwon City, ec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revealed that each river and even if it is the same river, it is different for each section.

Suwoncheon Stream is a river that runs through the center of Suwon City, used to build Suwon City Circular Hwaseong Fortress, and has been the framework of the cit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ity according to the city's growth. Its identity is a river with urban history and has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s and hydrophilic functions.

Seohocheon Stream is a river that runs through the western center of Suwon City and was used for agriculture to maintain the operation of Hwaseong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theme of agriculture has been consistently promoted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to modern and contemporary times, and its identity is a Korean agricultural historical river that contains pride as a sacred place for Korean agricultu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ver have a history of agricultural culture and ecological and hydrophilic functions

Woncheonricheon Stream is a river that penetrates the east side of Suwon City, and the river basin area began to be developed in the 1970s when Samsung

Electronics Co., Ltd. was located, and its identity is the river that drove Suwon City industrialization. The characteristics of rivers have industrial landscapes, hydrophilic and ecological functions.

Hwanggujicheon Stream is a river that penetrates the west side of Suwon City, and the agricultural land in the river basin has been designated as a development-restricted zone for a long time, so it is an agricultural landscape river in the city that has an agricultural landscape until now. It is a river with the best ecological environment in Suwon City.

In Suwon City, four rivers that cannot be found in other cities penetrate the city from north to south, and reservoirs and small rivers flow in. Using this, it is possible to connect green space networks, create urban landscapes, and develop programs that connect river ecology and culture.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urban rivers in Suwon, it was necessary to brand them according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nd identity for each river and section derived from ecological and cultural analysis and manage them as ecological and cultural spaces.

Key words : Historical and cultural landscape rivers, ecological rivers, hydrophilic rivers, agricultural historical rivers, industrial landscape rivers

『수원학연구』 간행 및 편집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4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0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0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원학연구 간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원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수원학연구 편집·발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위원회) 수원학연구 발행의 기획, 논문 투고,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주관하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그 인원은 간사를 제외한 20명 이내로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원내 연구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부서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한다.

- ③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수원학연구센터의 학술지 담당자로 하며, 학술지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학술지 논문 심사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 결정
- 2. 논문 심사를 위한 해당 전공분야 심사위원 추천 및 승인
- 3.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 4. 그 밖에 학술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결정

제6조(편집위원장)

- ①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논문 심사위원 위촉
 - 2. 편집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 3. 논문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의 조정
 - 4. 학술지 편집 및 간행에 대한 제반사항 총괄

제7조(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매 학술지 발간일 4개월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 1. 위원회의 임무와 관련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때
 - 2.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 3. 그 밖에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③ 정기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의결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④ 임시회는 편집위원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이 의결사항은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출석한 편집위원 중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학술지 발간

제8조(발행횟수 및 시기) 학술지는 연 2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30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일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논문 공모)

- ① 학술지에 수록하는 논문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특집을 제작하거나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원고료 지급)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발행부수) 학술지의 발행부수와 인쇄의 질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제12조(심사대상)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심사위원 선정)

- ①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투고 논문과의 전공 일치도 및 연구업적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선정·위촉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거쳐 투고논문에 대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③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연구원 직원이 투고할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원 직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경우, 연간 전체 논문 심사위원의 30% 미만을 유지하도록 한다.
- ⑤ 논문 심사 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유지)

- ①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비공개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과정 중에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5조(심사 기준)

- ① 심사위원은 객관적 기준과 자율적 판단에 의거해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1. 논문 주제의 적절성
 - 2. 연구의 창의성과 독창성
 - 3. 연구방법의 적절성과 연구 자료의 신뢰성
 - 4. 논문 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 5. 연구결과의 학술적·실천적 기여도
 - 6. 표·그림·사진·지도·참고문헌(각주)의 적절성
 - 7.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 8. 국문·영문 초록의 질적 수준
- ②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 판정)

- ①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와 함께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② 심사결과는 게재(A), 수정게재(B), 수정 후 재심(C), 게재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③ 재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2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삭제한 후 ‘논문심사 결과 및 수정 요구서’를 투고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 ⑤ 투고자는 수정보완을 요구받으면, 10일 이내에 수정 보완한 논문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되 최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초과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⑦ 재심사 결과는 A, B, D의 3등급 중 하나로 판정한다.
- ⑧ 최초 심사결과가 ‘수정 후 재심’으로 나올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최초 심사와 동일한 심사기준으로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수행한다.
- ⑨ 논문의 최종게재 여부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와 저자의 논문수정 여부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결과에 의거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⑩ 재심사의 심사위원이 1인일 경우 그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을 처리하고, 2인 또는 3인일 경우 게재불가가 둘 이상일 경우에만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요구 사항에 따라야 한다. ‘게재’판정이 난 논문에 대하여도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동일하게 적용된다.
- ②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내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간일 전까지 투고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투고자는 위원회의 통보내용에 대해 더 이상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논문심사 판정기준표〉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AAA AAB AAC	ABB ABC BBB BBC	AAD ABD ACC ACD BBD BCC BCD CCC CCD	ADD BDD CDD DDD

『수원학연구』 발간 윤리 규칙

제정 2017.08.28. 규칙 제 55호

개정 2018.12.04. 규칙 제 71호

개정 2021.08.19. 규칙 제11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학연구의 간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학술지 발간을 위해 투고된 논문 및 그 밖에 관련 자료, 학술지 편집 및 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적용되며, 이 윤리규칙을 준수해야 할 주체는 편집위원, 논문 심사위원, 논문 저자이다.

제2장 편집위원회의 윤리

제3조(편집위원의 책임)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4조(공정성)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저자 성별·나이·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어떠한 선입견이나 사적 친소성을 가져서는 안 되며,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공정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 선정의 객관성)

-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 ② 심사위원 선정 시에는 저자와의 친분, 적대적인 관계 등을 피함으로써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비밀유지)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내용과 저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을 비밀 유지해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7조(성실성과 적실성)

-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 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② 본인이 논문심사에 부적임자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8조(객관성) 심사위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 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논문을 저평가 하거나, 본인의 관점과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9조(타당성)

- ① 심사위원은 전문인으로서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② 논문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심사자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③ 논문심사 중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이중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의 혐의 발견 시 즉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 ①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② 논문평가를 위하여 특별한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그 내용에 대해 논의해서는 안 된다.
- ③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저자의 윤리**제11조(저자의 의무)**

- ① 논문의 저자는 학문추구에 정직성, 정확성, 성실성을 가질 의무가 있다.
- ② 투고 및 게재 논문에는 표절·위조·변조·이중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의 연구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12조(타인의 표절) 타인의 표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란 고의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 등의 고유한 내용을 원저작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처 명시 없이 임의로 변형, 삭제, 왜곡하는 행위
2. 표절의 대상은 타인의 저작물에 담긴 고유한 생각(아이디어), 독특한 표현(단어, 어구, 절, 문장, 그래프, 도표, 사진 등), 연구 착상(가설)이나 방법(분석 체계 또는 논리), 이론 및 연구결과, 데이터, 조사자료 등

제13조(자기 표절)

- ①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절한 출처표기 없이 그 일부 혹은 전부를 새로운 사실처럼 재사용하는 것도 표절에 해당한다.
- ② 출처를 표기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도록 인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표절로 간주한다.

제14조(이중 게재)

- ① 저자는 국내외 타 학술지에 출판 혹은 게재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투고 심사가 진행 중인 원고를 중복으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② 이미 발표된 연구결과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중 게재나 중복 출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위조 및 변조) 위조와 변조는 연구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며, 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2. “변조”란 연구재료, 장비, 과정 및 데이터, 연구결과 등을 인위로 조작하거나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제16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 ① 논문의 저자는 직접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하여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그 업적으로 인정받으며, 따라서 저자의 표기는 연구 기여도에 따라 반영해야 한다.
- ② 연구나 저술에 기여도가 있다면 반드시 공동저자로 기록해야 한다.

제17조(재 투고) 본 학술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단,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기존 논문과의 연구방법, 자료해석, 논리전개방식 등 상당부분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이를 정확히 기술해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 ② 타인 또는 자신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문 또는 각주,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인용 및 참고사실을 밝혀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9조(구성과 의결)

- ① 학술지 발간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편집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제6조에 따른 편집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②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는 학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은 혐의가 있는 논문의 내용에 정통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조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및 활동)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3. 제소된 사람의 보호 및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와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21조(연구 부정행위의 처리)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의 혐의가 인지·접수되었을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조사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처리하고 부정행위 내용을 투고자, 투고자 소속기관장,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 ③ 연구 부정행위를 한 투고자는 해당 논문으로 인해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향후 5년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제22조(권리보호)

- ①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한 사람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위원회나 조사위원은 제소된 사람이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그 방법은 위원회에서 논의·결정한다.

제23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① 위원회는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사람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24조(조사결과서의 작성 및 보관)

- ①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소내용
 2. 조사 대상 연구과제 및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언
 5. 조사결과에 대해 제소한 사람과 제소된 사람의 이의제기 및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②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③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학연구』 논문 투고 및 작성 요강

▣ 논문 투고와 작성 일반사항

1. 원고 접수

- 1) 접수일자는 원고가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 2) 논문 투고지는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투고신청서에 논문제목, 주저자의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주민등록 주소, 연락처, 원고의 주요 내용 등을 성실히 기재해야 한다. 또한, 교신저자(해당 원고 관련 문의에 응할 수 있는 공동저자)가 별도로 있다면, 교신저자의 인적사항도 명확히 기재한다.
- 4) ‘학술지 간행 및 편집 규칙’ 및 ‘수원학연구 논문투고 및 작성 요령’에 의거해 작성하지 않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원고 분량

- 1)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내외로 한다.
- 2) 원고분량의 지나친 초과나 미달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 작성

- 1) 원고 작성은 국문 또는 영문을 원칙으로 한다.
- 2) 원고는 워드프로세서(한글)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작성한다. 용지 여백은 위쪽/아래쪽 20mm, 왼쪽/오른쪽 18mm, 머리말/꼬리말 12mm로 한다.
- 3)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국문요약과 국문 주제어를 첨부하고,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문초록(ABSTRACT)과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필히 첨부한다.

- 4) 그림 및 표, 사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림 및 표, 사진에 있는 글자와 숫자 등이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 논문 작성 세부사항

□ 논문의 구성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서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국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영문을 작성한다.

2. 영문논문

- 1)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초록(ABSTRACT), 영문 키워드(Key Words), 본문, 참고문헌(References), 국문 제목, 국문 저자명, 국문요약, 국문 주제어, 부록(필요한 경우) 등의 순으로 구성한다.
- 2) 저자의 소속, 직급/직위는 논문 첫 페이지의 하단에 각주로 작성하되, 영문을 먼저 작성한 후 괄호 안에 국문을 작성한다.

□ 논문 제목 표기

1. 국문논문

- 1) 국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국문 저자명 아래에 영문 제목을 작성한다.

- 2) 한자 또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어를 병기한다.

2. 영어논문

- 1) 영문 제목을 먼저 작성하고, 영문 저자명 아래에 국문제목을 기재한다.
- 2) 영문제목(부제목 포함)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시작한다.
- 3) 문장 중의 단어는 전치사와 접속사, 관사를 제외하고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 Review of Administrative Reform in Suwon)

3. 부제목

- 1) 부제목이 있는 경우, 국·영문 논문 공히 주제목 아래에 부제목을 기재한다.

□ 저자 및 인적사항 표기

1. 저자 표기

- 1) 국·영문 논문 공히 국문 제목 아래에 국문 저자명을 기재하고, 영문 제목 아래에 영문 저자명을 기재한다.
- 2) 영문 저자명은 성, 이름 순으로 기재한다.
- 3) 저자가 복수일 경우,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4) 논문을 제출한 후에는 저자를 추가하거나 저자의 지위(주저자, 공저자, 교신저자 등)를 변경할 수 없다.

2. 저자의 소속 및 직급, 교신저자 연락처 표기

- 1)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각주로 표기한다.
- 2) 저자가 1인일 경우, * 다음에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를 표기하고, 저자가 복수일 경우에는 * / ** / *** / ...을 표기하고, 주저자부터 순서대로 표기한다.
- 3) 저자가 1인일 경우, 소속 뒤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교신저자의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4)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에도 소속 뒤에 ‘교신저자’라고 표기한 뒤, 괄호 안에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표기한다.
 - ※ 교신저자는 여러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논문의 투고 및 심사과정에서 연락과 수정을 책임지며, 논문이 출간되었을 때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저자를 말한다.
- 5) 저자의 소속 및 직급/직위는 국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괄호 안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 6) 국문 표기방법은 소속기관, 부서(또는 학과), 직급(또는 직위)의 순으로 한다. 그리고 영문 표기방법은 직급(또는 직위), 부서(또는 학과), 소속기관의 순으로 한다.

3. 저자 소속 표기 예시

1) 저자가 1인인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2)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같을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suwonology@suwon.re.kr, Tel : 031-234-5678)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3) 저자가 복수이며, 주저자와 교신저자가 다를 경우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Research Fellow, Center for Suwonology, Swuon Research Institute)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Urban& Environmental Research Group, Swuon Research Institute), 교신저자(E-mail : Urban@suwon.re.kr, Tel : 031-456-7890)

□ 요약 작성 및 주제어 표기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 작성

- 1) 국문요약 및 영문초록(ABSTRACT)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시사점, 향후 연구방향 등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2) 국문요약은 ‘요약’이라고 기재하고, 700자 내외의 국문요약을 작성한다.
- 3) 영문초록의 경우, ‘ABSTRACT’라고 기재하고,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2. 주제어 표기

- 1) 국문요약과 영문초록 하단에 각각 10개 이내의 국문 주제어와 영문 키워드(Key Words)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국문 주제어는 ‘주제어’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3) 영문 키워드는 ‘Key Words’라고 기재하고 콜론(:)을 표기한 후 작성한다.

□ 본문 작성

1. 본문 작성

- 1) 목차 및 본문의 장(章), 절(節), 항(項) 등의 번호 전개는 ‘장 → 1. 2. 3. / 절 → 1) 2) 3) / 항 → (1) (2) (3)’으로 하고, 목차에는 장과 절만 표시한다.
- 2)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10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3) 한자나 외래어가 필요한 경우, ‘수원학(水原學)’ ‘수원학(Suwonology)’과 같이 병기한다. 고유명사의 경우는 처음에만 병기하고, 이후 큰 문제가 없을 경우 한글로 쓴다.
- 4)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모든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2. 본문의 인용문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60%로 한다.
- 2) 왼쪽 여백만 2줄림 둔다.
- 3) 자료(사료) 인용은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한다. 금석문 등 번역이 불가능한 경우는 한자 등 원문을 노출시킬 수 있다.
- 4) 인용문의 출전 표시는 각주로 처리한다.

□ 도표 및 사진

1. 표 번호

- 1) <표 1>, <표 2>의 순으로 표 상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2. 그림 및 사진 번호

- 1) <그림 1>, <그림 2>의 순으로 그림 하단 좌측에 제목과 함께 명기한다.

3. 본문에 들어가는 도표 및 사진은 수정 없이 바로 인쇄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컬러 인쇄를 하지 않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흑백으로 선명하게 작성해야 한다.

4. 인용한 도표 및 사진의 경우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출처 표기방법은 인용문헌이나 참고문헌 작성방법에 준하며, 참고문헌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 각주 및 참고문헌 표기

1. 각주

- 1) 글꼴은 신명조,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줄간격은 130%로 한다.
- 2) 한자(漢字)를 노출시킬 수 있다.
- 3) 표기 순서와 원칙(√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 ① 홍길동, √1998, √「의적의 개념」, √『의적연구』1, √활빈학회, √100~101쪽.
 - ② 홍길동, √1960, √「의적연구」, √『의적학보』1 √; √1998 √『의적의 사회사』, √활빈출판사 √재수록, √100쪽.
 - ③ 홍길동, √1997, √앞의 논문(앞의 책), √100쪽. 홍길동, √1988(a), √앞의 논문, √100쪽.
 - ④ 괄호가 중첩될 때는 [...()...]와 같이 처리
 - ⑤ A. √R, √Zolberg, √1972, √“Moment of Madness”, √Politics and Society √Vol. √2, √No. √2, √pp. √183~207.
 - ⑥ 조한욱 √윤희김, √1996, √『고양이 대학살』, √문학과 지성사(Robert √Darnton, √1984, √The Great Cat Massacre : And Other Episodes in French Cultural History, √출판사이름), 100쪽
 - ⑦ 『삼국사기』, 『고려사』, 『실록』, 『일성록』 등 흔히 인용되는 사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를 지킨다.
 - 『고려사』 √권76, √百官1 √贊成事. √“(忠烈王) 二十四年 忠宣以宰執員冗 論議異同事多稽滯 仍罷之.”
 - 『세종실록』 √권9, √세종 √6년 √5월 √1일(경자). √“學而時習之 不亦悅乎”
 - ⑧ 소장처를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李昆洙, √『壽齋遺稿』, 「書啓」(소장처, √도서번호).

2. 참고문헌

- 1) 국문 참고문헌을 가나다순으로 먼저 열거한 후 동양문헌을 기재한다. 그 다음 서양문헌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 후, 인터넷 사이트를 기재한다.
- 2) 논문 및 단행본의 서명은 『 』(국문 및 동양문헌) 또는 이탤릭체(서양문헌)로 표시한다.

- 3) 서양문헌의 저자는 성, 이름순으로 표기한다.
- 4) 저자가 복수일 경우, 모든 저자를 다 밝힌다.
- 5) 기타 사항은 일반적인 원칙을 준용한다.

□ 사사 등 표기

1. 사사 표기

- 1) 연구비의 출처와 사사(謝辭, acknowledgement)는 논문 첫 페이지 각주에 필자의 소속과 직위에 앞서 기재한다.

2. 게재일자 등

- 1) 논문의 투고일, 심사일 및 게재확정일은 논문의 맺음말 말미 하단에 편집위원회에서 기재한다.

편집위원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은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용 원광대학교 교수
남기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
송화성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근 서울대학교 교수
이성호 경상대학교 교수
정수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정연식 영남대학교 교수
정현목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최지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한금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한동수 한양대학교 교수
Rainer Dormels 비엔나대학 교수

편집간사

홍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수원학연구 Suwon Studies · 20

발행인 | 김성진

편집인 | 박상우

발행일 | 2023년 12월 30일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1642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서둔동)

www.suwon.re.kr

031-220-8058

인쇄 | (주)아이콘커뮤니케이션(031-245-5500)

ISSN | 2508-6677

